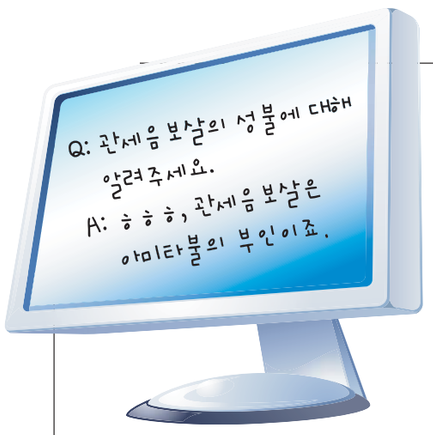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3월 12일(음력 2월 5일) 수요일 (주간) 제670 호



e-세상에 넘치는 엉터리 불교정보

인터넷 '지식검색'과 각종 블로그에서 불교가제 모습을 잃고 있다. 불교 정보 전문가인 스님과 법사, 포교사 등이 제공하던 정보와 지식을 사이버 공간에서 불특정다수가 제공하게 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e-세상에 넘치는 엉터리 불교정보 현황과 대책을 짚어봤다.

전체회원 수 3천만명, 지식in 서비스 컨텐츠만 8천4백만개인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불교 관련 질문 개수는 현재 1만3천여개다. 이 가운데 잘못된 불교는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올바른 불교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도 없다. 네이버 지식in 서비스에서는 특정 분야에 전문 에디터를 선발하고 있지만 불교 카테고리의 전문 에디터가 없는 것이다.

잘못된 불교정보에는 지식검색 서비스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지식검색 서비스 자체가 네티즌 자율에 의한 것이다 보니 비전문적인 답변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네이버 홍보팀 곽대현 과장은 "지식인 서비스는 정답을 구하기보다는 네티즌의 의견을 묻는 구조"라며 말했다. 곽 과장은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질문자는 원하는 답변을 채택할 뿐"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자체적인 컨텐츠 정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신고 기능이 있어도 실제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욕설 등 실정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할 뿐 별다른 조치가 없다. 지식검색 서비스의 특징을 떠나 불교 정보 관련 활동이 미비한 것도 문제다. 350여개의 불교 관련 질문이 있는 엠파스는 다른 카테고리에 피해 질문 수도 적다. 엠파스 홍보팀 박성우씨는 "불교 카테고리의 경우 타 카테고리에 비해 네티즌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식검색 사이트의 불교 정보 오염에 대한 교계 반응은 '속수무책'에 가깝다. 중앙신도회 정순영 팀장은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으려면 조직적인 인력 투입이 절실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보가 있을 때만 대응할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 팀장이 활동하는 종교평화위원회는 2005년 모바일서비스 중 불교 폄하 컨텐츠와 포털사이트의 스님 비하 만화를 삭제한 성과가 있었지만 모두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조계종 사회부 홍민석 행정관도 "국제 사이트

지식검색 서비스 오류 투성이
교계는 인력 부족 등 속수무책
백서 발간 등 대응책 마련 시급

를 제외하고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는 별도 모니터링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종단 차원에서의 대책도 없음을 시사했다.

포교사단(단장 강홍원)만은 문제인식을 하고 자체 활동에 나서고 있었다. 자체 사업으로 불교바른정보사업을 벌이고 있는 포교사단은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성과를 모아 사업결과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포교사단은 전에도 동일 사업을 했었다. 2005년부터 2006년 7월까지 50여명의 포교사들이 동참했지만 1년 만에 중단됐었다. 1년의 공백기를 지나 새로 진행된 불교바른정보사업을 주도한 이는 서용칠 포교사(군8팀)다. 서 포교사는 "인터넷상 불교 폄훼와 왜곡이 심각한데 그중 지식검색 서비스가 가장 심각하다"고 말했다. "불교 공부 중 모르는 것을 인터넷에서 찾다 황당한 질문에 황당한 답변을 보고 시작하게 됐다"는 서 포교사는 지금도 매일 2시간 이상씩 지식검색 사이트를 돌며 잘못된 답변을 찾아 정확한 답변을 올린다.

인터넷에 범람하는 오염된 불교 정보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까? 한 네티즌은 "우선 '불교 지식 사례 분석' 등 백서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서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 매뉴얼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교계의 조직적인 대응이 어렵다면 포교원 등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 조언한다. "네이버만 해도 답변을 하면 포인트를 받고 레벨이 오른다. 이런 통계를 통해 우수 불자를 포상하는 이벤트를 마련하는 것쯤은 쉬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답변을 다는 것부터 많은 공부가 되는 것이니 종립학교에서부터 답변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처럼 사이버 포교단을 조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불교정보 자정활동과는 별도로 불교 전문지식 사이트도 필요하다. 서용칠 포교사는 "언제까지 불교 정보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의존해야 하느냐"며 교계 차원의 불교 전문지식 사이트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지식공유 트렌드에 맞춰 2006년 4월부터 정부도 국가 지식검색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크로스맵 기독지식(crossmap.christiantoday.co.kr) 등 전문지식 사이트를 운영한다. 정보화시대의 변화만큼 쏟아지는 의견과 주문이 많은 가운데, 교계에서 얼마나 실천해 파사현정을 구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생명의 강을 지키겠습니다"

3월 7일 문경 봉암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대운하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특별기도법회가 봉행됐다. 조계종립 특별선원 봉암사(주지 함현)와 종교인 도보순례단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생명의 강 지키기 불교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법회에는 월주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과 법등 스님(조계종 호계원장), 정광 스님(봉암사 선원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생명의 근원인 강을 수몰(水沒)시킬 대운하 건설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참회문을 통해 "오늘의 기도가 수행과 성찰의 첫 걸음이 되게 해 달라"고 발원했다. 문경 봉암사/글 · 사진=박재완 기자 <관련기사 3면>

부석사 오불회 괘불탱 등 5건
문화재청,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3월 6일과 7일 '영주 부석사 오불회 괘불탱', <감지은니 대방광불화엄경>, '도성도', '순천 선암사 순치 14년명 동종'과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5건을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영주 부석사 오불회 괘불탱'은 부석사에 전래되던 1684년작 괘불 도상에 노사나불을 첨가하한 작품으로 1745년에 조성됐다. 가로축에는 비로자나불 · 약사불 · 아미타불이, 세로축에는 비로자나불 · 석가모니불 · 노사나불을 배치해 삼세 · 삼신의 오불회 형식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은 일본에 유출됐던 것을 개인이 환수한 문화재로 총 7권 7첩이다. 고려 충숙왕 복위 5년(1336년) 감색 종이에 은니로 사경된 것으로 사경 연구에 귀중한 자료다.

'도성도'는 18세기 중엽 작품으로 추정된다. 도성(한양)의 전모를 원형구도에 담고 있는 어람용 회화식 지도다. '순천 선암사 순치 14년명 동종'은 보성 대원사 부도암에서 대표적인 조선시대 주종장 김용암이 1657년에 주성한 작품이다.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10호였던 '대구 동학사 대웅전'은 493년 신라 보조 화상이 유가사로 창건했다. 772년 신라 심지 스님이 사명을 동화사로 개칭한 이래 수차례 중창이 있었고, 현재 법당은 1727년 화재로 소실된 법당을 중창한 것이다. "전형적인 조선후기 목조건축으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평가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18일 개회

조계종 제176회 중앙종회(임시회)가 3월 1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주요 안건으로는 2007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 및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종헌 · 종법 개정 등이 다뤄진다. 총무원이 2월 28일 입법 예고한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 제정안'도 논의된다.

개회식은 18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여수령 기자











"문화재 법안 불교계와 협의할 것"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조계종 지관 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3월 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문화재 관련 법안은 불교계와 잘 협의해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강 대표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이 같이 밝혔다.

강 대표는 "최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불교계와 사전 협의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얘기를 들었다"며 "앞으로 문화재 관련 법안을 다룰 때는 불교계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표는 "숭례문 화재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문화재 관련법을 정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최근 '목조문화보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문화재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불교계에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관 스님은 "불교계에는 부석사 무령사전과 봉정사 극락전,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등 소중한 목조문화재가 많이 있다"며 "이들 문화재에 대한 방재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호법부장 정만 스님도 "전국 67개 사찰의 1년 관람료가 300억 정도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원비용이 250억원 수준"이라며 "하지만 조계종이 컨설턴트에 의뢰해 67개 사찰의 문화재 유지비용을 산출한 결과 매년 8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문화재 보수 및 관리 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만 스님은 "불교계가 문화재관람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 만큼 문화재가 처한 현실을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글=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태고종 해외특별교구장
미국서 교황 만난다

태고종 해외특별교구 종무원장인 종매 스님이 4월 17일 미국을 방문하는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알현한다. 종매 스님은 이 자리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교황에게 선물하는 작은 범종을 전달하고 교황이 주재하는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종매 스님은 현재 가톨릭 예수회 소속의 로욜라매리마운트대학의 종교학과 교수다. 혜철 충청지사장

실천승가회 대표 법안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이하 실천승가회) 신임대표에 법안 스님(서울 금선사 주지)이 선출됐다.

실천승가회는 3월 3일 서울 수국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법경·도문·정휴스님을 부대표로, 가섭스님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외에도 지선·청화스님을 상임고문으로, 성관·효림스님을 명예대표로 추대했다.

김주일 기자

범어사 주지후보 정여 스님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 주지 후보에 부산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이 선출됐다.

정여 스님은 3월 6일 열린 산중총회에서 272표 중 141표를 얻어 23대 주지후보에 선출됐다. 함께 입후보한 상운 스님은 125표를 얻었고 광탄 스님은 득표하지 못했으며, 덕륜 스님은 이날 오전 후보를 사퇴했다. 투표에는 총 347명의 선거인단 중 272명이 참석했고 6표는 무효처리 됐다.

하성미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국고보조금 빼돌리고 뇌물 로비에 법정공방까지…

부끄러운 불교계 현주소

국고보조금 60억원 편법 취득

태고종 태고종은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국고보조금을 편법으로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오광수 부장검사)는 2월 26일 가짜 서류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60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적용해 운산 스님을 불구속 기소했다.

운산 스님은 2004~2005년 신도와 교단 산하 사찰 주지로부터 잠깐 돈을 빌려 통장에 60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꾸민 뒤 이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해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 국고보조금 60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사비 102억원을 123억원으로 부풀려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해 문광부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태고종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종단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부담금 60억 원을 불가피하게 채워야 하는 사정 때문에 생긴일"이라며 "이미 지난 1월에 원장스님께서 개인적인 횡령 등의 문제는 없다고 검찰 수사결과 확인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직 총무원장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태고종은 3월 5일 원로 및 중진 스님 1백여명이 모여 연석회의를 열고 수습에 나섰다. 종정 혜초 스님의 유시 발표와 현 총무원장 체제 유지, 검찰 고발자 퇴출을 통한 종단 조직 재정비 쪽으로 해결 방향을 잡았다.

운산 총무원장 스님도 "일방적 판단으로 의혹만 가중시켜 태고종의 명예를 실추시킨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종단 구성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리 하겠다"고 밝혀 향후 탈종 사태와 종단 내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보우승가회 회장 도산스님이 ▲도법사 매각 ▲영종도 용궁사 토지 일부 매각 ▲2004년도 이월금 중 26억6천만원의 행방 등 총 11개항을 총무원장 운산스님에게 질의했으며, 운산스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계속 조사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밝혀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또한 보우승가회 소속 대각스님이 유죄 판결시 총무원장 퇴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자, 일부 스님들이 회의장 밖으로 밀어냈으며,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대각스님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불교계의 대표적 종단들이 혼란에 휩싸였다. 태고종과 천태종은 총무원장 스님이 불구속 기소 되는가하면, 진각종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현직 총무원장의 법정 공방이 아직도 계속 중이다. 이런 때아닌 홍역에 불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계 일각에서는 불교의 명예가 추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설까지 대두되고 있어 긴장감이 감돈다.

탈북자지원사업권 따려 로비

천태종 천태종도 탈북자 지원 사업 민간 이양을 둘러싼 뇌물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월 20일 통일부 산하 하나원 원장 이충원씨가 전격 구속된데 이어 이씨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총무원장과 부장급 스님 등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속된 前 원장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종단에서 1억 원을 직접 송금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탈북 주민인 새터민의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 산하 하나원은 탈북자가 1만명이 넘어서면서 탈북자 지원사업 일부 분야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그동안 여러 민간단체에서 사업권 획득을 위한 치열한 로비를 벌여 온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1억원은 빌린 돈이고, 직무관련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천태종이 체탈 도첩한 모스님의 고소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 문제가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검찰 조사결과, 천태종은 이 씨에게 건 낸 1억 원을 제외하고도 탈북자 민간사업권 수주를 위해거액의 불법 로비자금을 추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천태종이 이 돈을 앞서 구속된 영통포럼 사무총장 노모씨에게 전달했고, 노씨는 하나원장 이충원씨 뿐 아니라 다른 관련기관에 로비를 하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천태종은 또 로비를 통해 탈북자 지원사업권을 따내면 탈북자 정착금을 받아 주거임대사업을 하고 정착촌을 개방해 관광 사업을 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현직 통리원장 세력다툼

진각종 지난해부터 불거진 진각종 전현직 통리원장의 갈등과 대립이 끝을 맺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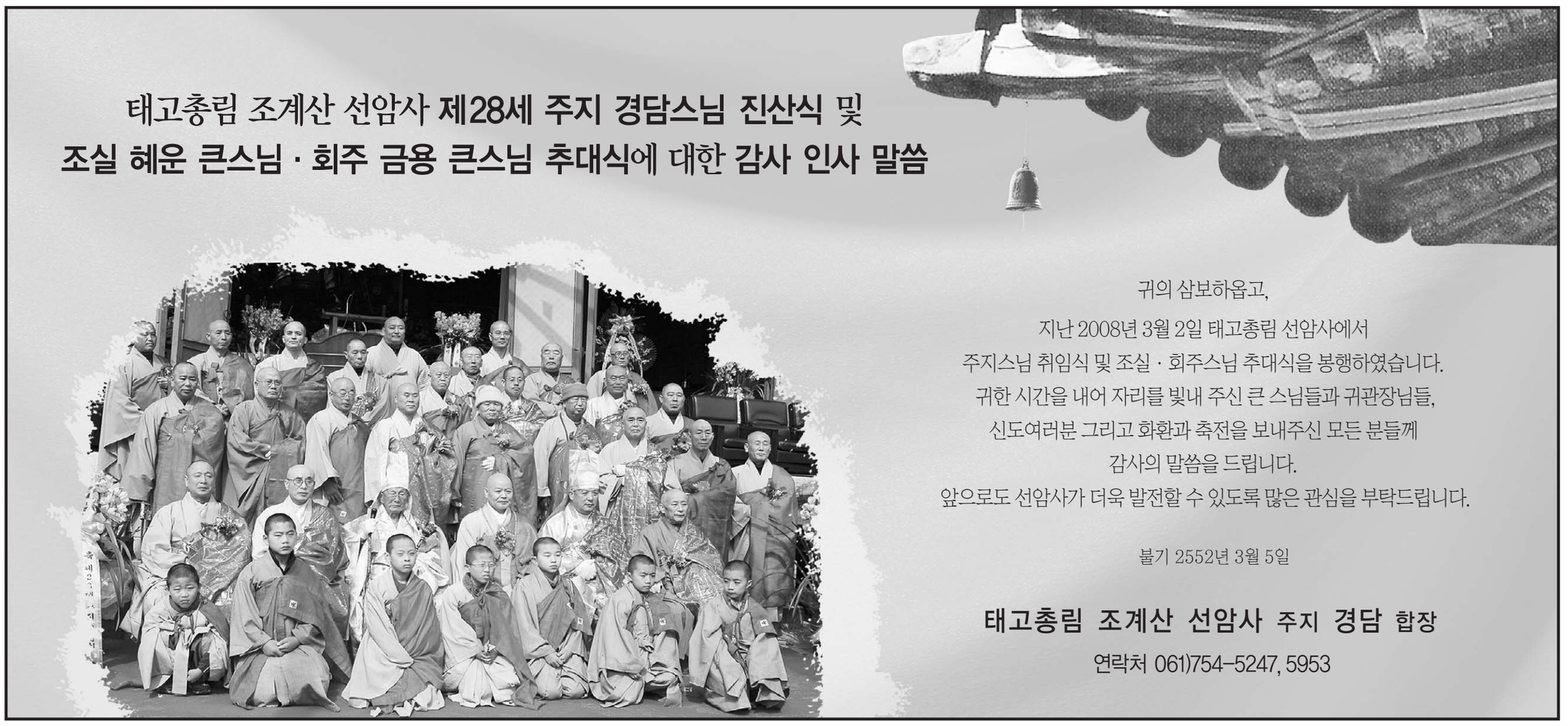
학교법인 회당학원은 지난 1월 이사장 혜인 정사와 이사 보훈 정사를 해임시켰다. 혜인 정사가 前 통리원장 효암 정사와 함께 지난 12월 28일 종단으로 부터 체탈 도첩을 받아 이사 자격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혜인 정사 측은 즉각 반발, 교육부에 상급기관의 승인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장에서 해임시킨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진정을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월말 공문을 통해 "이사장과 해당 이사가 교직자에서 채탈 도첩돼 임원 자격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라 생각되며 교육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며 "다만 이사장의 해임은 주요 안건으로 상정시켜 되는데 지난 이사회에서는 기타 안건에 부쳐 문제가 되는 바 추후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재소집해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효암 前 통리원장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22일 현 원장측이 효암, 혜인, 진산 정사 등 세 명의 스승을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며 "스승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회당학원 이사장 등 원래 맡고 있던 직위도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앞으로 진실이 밝혀 질때까지 계속 상급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감부장 정훈 정사는 "이들에 대한 징계는 소송과 상관없이 스승이란 심출가자로서 세속적인 일에 초연한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물질에 전도돼 지나치게 세속적인 일에 집착하는데 대한 경책"이라며 철회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진각종은 지난해 12월 종법과 전통을 무시하고 종단 기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효암 前 원장에 대해 품수 7급 강등, 공권정지 10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7급은 초임 스승에게 부여되는 급수로 효암 前 원장의 이력으로 볼 때 사실상 승적 박탈이나 다름없는 불명예 강등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발걸음에 생명의 염원 담아…”

‘대운하 반대’ 100일 대장정 순례단 봉암사서 참회·정진법회

첫 발걸음은 2월 12일, 경기도 김포 애기봉에서 시작됐다. 생명의 강을 살리고자 길을 나선 종교인과 참가자들은 100일간 강을 따라 걷고 또 걷는다. 그 길에서 이들은 홍도평야의 재두루미와 여주의 아름다운 습지를, 허리가 잘려나가고 있는 산과 골재채취로 흉한 모습을 드러낸 강을 만났다. 또한 그 길에는 비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며 함께 걸어준 시민들과 갓 결혼식을 치른 신혼부부, 방학 중인 초등학생이 동참했다.

길을 나선지 25일째인 3월 7일, 초파일을 제외하곤 좀체 개방하지 않는 문경 봉암사(주지 함현)가 산문을 활짝 열고 이들을 맞았다. 이날 봉암사에서 열린 ‘부처님 마음과 생명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참회 · 정진법회’는 대운하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고 계획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사부대중의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월주 스님은 “한반도대운하 구상은 생명 터전인 국토와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라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의 서원을 담아 뭇 생명의 고향이자 불국토의 터전인 한반도를 보존하고 가꾸는 보현행자로 살아가자”고 법문했다.

봉암사 주지 함현 스님은 “대운하 문제를 우리 삶의 전반을 성찰하는 정진의 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 땅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부디 생명의 눈을 뜨고 대운하 건설의 미망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교인 도보순례를 기획한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 화계사 주지)은 대국민 메시지에서 “경제 살리기가 아무리 절박해도 국토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 대운하 계획 백지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호계원장 법등 스님과 봉암사 선원장 정광 스님도 도보순례단의 노고를 치하했고, 참가자들은 참회 발원문을 통해 “오늘의 기도가 수행과 성찰의 첫걸음이 될 것”을 발원했다.

앞서 3월 5일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세영)도 “더 이상의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기 전에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위는 앞으로 대운하 건설 예정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와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찰등급제 실시 방안 ‘핵심’

조계종 분담금 제도개선공청회



3월 6일 열린 공청회에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초격·주경 스님 “사설사암도 엄격 부과해야”

조계종이 각 사찰에 부과하고 있는 분담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가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공청회는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향적) 산하 ‘사찰과 종단의 발전을 위한 재정 개선 방안 연구모임(위원장 초격)’이 지난해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연구사업의 1차년도 성과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분담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발제 한 초격 스님과 ‘분담금 제도의 개선 방향 및 관련 종법안’을 발제한 주경 스님은 분담금 부과 실태와 문제점을 먼저 살폈다. 초격 스님이 제시한 지난해 종단 분담금 분포표를 보면, 50만원 미만 납부 사찰이 21.3%, 5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 납부 사찰이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찰의 56.4%가 100만원 미만을, 84.5%가 500만원 미만을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초격 스님은 “이러한 현실은 사찰이 제출하는 예산서가 재정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주경 스님은 “분담금 책정 및 납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 종단 집행부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두 스님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찰과 사설사암 모두 세분화된 등급조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법론에 대해 초격 스님은 “사찰등급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개별 사찰의 재정현황을 파악하고, 등급을 기준으로 정액제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경 스님은 “사찰 총수입을 등급 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되, 사찰의 교육 · 복지 · 포교시설 운영 여부, 입지 여건, 주변 환경 등을 사찰등급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두 스님은 특히 사설사암에 대한 분담금 부과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조계종 전체 사찰 중 사설사암이 62.6%(1499개, 2006년 기준)를 차지함에도, 분담금 비중은 절대적으로 낮으므로, 사설사암 또한 공찰과 동일한 사찰등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학원과 대각회 등의 법인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총무원 재무부장 장적 스님은 사찰등급제 실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장적 스님은 “지난해 종단 전체 예산 중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5.5%(약 42억)에 불과한데, 굳이 사찰등급제를 도입해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1994년 이후 교구의 역할이 강화된 만큼 말사의 분담금은 본사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진 스님(청주 관음사 주지)은 “중앙분담금은 총무원에, 교구분담금은 본사로 납부하는 등 징수 방식을 이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원명 스님(광명 금강선원 주지)은 “사찰등급평가 시 사찰의 구체적인 재정현실을 고려하고, 공찰과 사설사암의 차이점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념 스님(양양 낙산사 주지)은 “특별분담사찰도 교구별 형평성에 맞게 지정해야 한다”며 “사찰의 교육 · 복지 · 포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동결해주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영담 스님(부천 석왕사) 또한 “사찰등급 심사에서 재정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총 예산만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또한 사찰의 토지매각 시 부과되는 분담금도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분담금이란?

조계종이 종단의 유지 • 운영을 위한 물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소속 사찰에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1962년 통합종단 출범 후 사찰 등급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현행 분담금 제도가 시작됐고, 1994년 종단 개혁 후 종단 재정 안정화를 위한 분담금 부과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오늘에 이른다. 크게 분담금과 목적사업분담금, 종단목적사업기금이 있으며 분담금에는 중앙분담금과 관람료분담금, 교구분담금, 특별분담금, 직영분담금 등의 종류가 있다.

3·1절 기념 만해백일장 동국대 중강당서 개최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회장 박법수)는 3월 1일 제89주년 3·1절을 기념해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제29회 만해백일장’을 개최했다.

만해백일장 사상 최다인원인 1525명의 청소년 및 일반인이 참가한 이번 백일장에서는 ‘설거지’ ‘어깨’ ‘나의교실’ ‘부끄러움’ ‘자화상’이 시제로 제시됐으며 시·시조부문과 산문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대상에는 시·시조부문 백낙원(인천 신송고 2), 산문부문 신윤정(서울 중경고 3) 학생이 각각 당선돼 문화관광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백낙원 학생은 ‘어깨’라는 시를 통해 태안기름유출 사고 현장을 아련하게 그렸고 신윤정 학생은 ‘나의 교실’이라는 산문에서 교실을 화자로 설정,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들을 의인화시켜 경쾌하게 풀어냈다. 김강진 기자

‘국립박물관 무료관람’ 반발 목소리

사설 박물관 “경영악화 우려…신중한 접근 필요”

이명박 대통령 문화 공약이었던 국립박물관 · 미술관의 무료 관람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 31개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등이 무료가 되면 과연 공약 의도처럼 문화복지가 실현되는 것일까?

우선 국립박물관 등이 무료화가 되면 불교중앙박물관 등 성보박물관과 사설박물관 등도 무료 개방 요구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무료가 되지 않더라도 국립시설에 편중될 관람인원을 어떻게 유료시설로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범하 스님(불교중앙박물관장)은 “불교중앙박물관의 경우 입장료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한 뒤 “입장료는 박물관의 수입보다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무료관람제 실시가 관람객 증가를 가져오지만 결국 적정 관람 인원을 초과해 문화재 보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스님의 우려다.

사설박물관인 고판화박물관을 운영하는 선학 스님은 “입장료 수입이 전시 기본비용 충당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스님은 또 “박물관 무료개방은 영세한 사설박물관의 경우 문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 주장했다. 선학 스님은 이에 더해 “문화가 공짜라는 인식이 확대되는 것이 무료관람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찾아가는 문화’ 등 무료행사를 실시해 본 결과 “문화를 감사하게 수용하기 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며 문화재의 무료개방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한국박물관협회 등 사립 문화기관들도 이 같은 이유로 무료관람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범하 스님은 “국립박물관 등의 무료관람제와 별개로 사설박물관들이 전시의 차별화를 꾀하면 관람객 수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하지만 공약실천을 환영하기에 앞서 공짜논리에 휩쓸려 문화재가 홀대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문화계 인사들의 중론이다. 조동섭 기자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승진가산점 부여단체로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 이하 파라미타)가 3월 1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승진가산점 부여 가능 단체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파라미타는 서울시 소재 초 · 중 · 고등학교 파라미타 설립을 촉진시켜 서울지부 조직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승진가산점 부여 제도란 교육부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증진을 위해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공인된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하는 지도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파라미타는 올 2월 서울시교원 직무교육연수를 유치 등 요건을 갖추고 서울시교육청에 추가지정을 요청해 승진가산점 부여단체로 지정받았다. 김강진 기자


진공청소 · 물걸레청소 · 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Mamirobot Intelligent Home Robotics KM MICROTECH (주)경민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275,000(소비자가격) 입금계좌:기업은행 018-072448-01-015 [예금주:장승락]

www.sungbul.co.kr
성 불 조 각 원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

경산지역 새싹불자 '쑥쑥 커요'

청도 운문사 부설 운문유치원 개원…신입생 125명 입학

경북 경산지역 새싹불자들을 키워낼 운문유치원이 3월 4일 문을 열었다.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운문유치원은 4일 열린 개원식 및 입학식에서 125명의 신입생을 맞았다.

청도 운문사(주지 진성)가 1999년부터 건립을 추진해 온 운문유치원은 지역 유치원연합회의 건립 반대로 개원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2006년 경산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착공해 1년여의 공사 끝에 완공했다.

운문유치원은 2000여㎡(약 600평)의 대지 위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졌다. 유치원은 5학급 125명 규모이고, 유아반은 만 3세반(아란반) 4세반(가섭반 · 수보리반) 5세반(사리불반 · 목련반)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은 일반적인 프로그램 외에 명상, 다도, 사찰음식, 예절교육 등 사찰문화를 배울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더해 인성교육에도 만전을 기했다. 또한 1~2월에는 사찰 참배를 실시해 불교 기본 의식 및 예절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생태학교실을 열어 자연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바른 생각 맑은 마음 밝은 지혜'를 원훈으로 삼고 있는 운문유치원의 원가(園歌) '운문유치원의 노래'도 눈길을 끈다. 고은 시인이 작시하고 피아니스트 임동창씨가 작곡한 원가는 '초롱초롱 빛나네 어라둥둥 신나네 운문의 어린이들 너랑 나랑 뛰노네…여기가 우리들의 운문의 집 여기가 부처님의 자비의 집'이라는 가사와 밝고 경쾌한 리듬으로 이뤄져 있다.

운문사 승가대학장 명성 스님은 "어린이불자 양성을 위해 많은 어려움 끝에 개원한 만큼 아이들의 밝고 맑은 심성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문유치원 안무영 원장도 "교직원과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을 통해 유아교육의 새 지평을 열고 지역교육기관과 함께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월 4일 열린 운문유치원 개원 및 입학식 모습.

한편, 개원식에는 운문사 승가대학장 명성 스님과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운문사 주지 진성 스님, 경산교육청 김우한 교육장, 이수경 교수(동국대 유아교육학과) 등이 참석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지역복지 꽃피우는 '예술의 힘'

고창사회복지관 복지기금 마련 예술전시회 개최

전북 고창지역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이 '제1회 복지기금 마련 예술전시회'를 개최한다. 3월 17~28일 복지관 내 2층 상설전시관과 대강당에서 '예술이 복지 구름을 일으키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고창노인복지센터 송영서비스 차량 마련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회는 불교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의 작품과 함께 지역사회 중진작가들의 작품 약 120점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광 스님과 석정 · 범주 · 성수 · 원담 스님 등 불교계 대표적인 선사들의 선서화(禪書畵)와 정비파 · 여태명 · 손숙희 등 유명 작가의 작품을 직접 보고 구매도 할 수 있어 관심을 끈다. 이와 함께 종교를 뛰어넘어 이해인 수녀의 글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무공 스님은 "이번 전시회에는 지역사회에서 서예 · 문인화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의 작품도 대거 전시될 것"이라며 "조건이 열악한 지역 행사지만 고창 노인복지가 활성화되고 지역복지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은 고창군노인복지관, 고창군노인복지센터와 함께 지난해 9월 7일 개관했으며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법만)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063)563-0009


범주 스님의 달마도.

김강진 기자

"태고종 사찰로 삼사순례 가요"

옥천 대성사 주관…태고총림 선암사서 첫 법회

태고종 사찰인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가 종단에 대한 이해와 애종심을 높이기 위해 종단 소속 사찰을 참배하는 삼사순례법회를 기획해 눈길을 끈다.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그동안 삼사순례라고 하면 으레 유명 관광사찰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태고종 사찰 중에서도 오랜 역사와 수려한 경관을 가진 사찰들이 많아 이들 사찰을 대상으로 삼사순례를 기획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첫 법회는 3월 4일 태고총림 선암사와 마이산 탑사, 남원 관음사를 참배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삼사순례는 단순한 '관람'에서 벗어나 각 순례사찰에서 법회를 봉행한 후 주지스님에게 창건 설화와 사찰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서를 마련해 사찰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각 순례지에 불사성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관음사 주지 청암 스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찰까지 순례를 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순례를 통해 유명사찰 뿐 아니라 지역의 작은 사찰도 부담 없이 참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혜철 스님은 "종단에 소속된 사찰을 참배함으로써 애종심을 높이는 한편, 불사에 작은 도움이나마 보탬으로써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창건설화 및 문화재를 간직한 태고종 사찰을 대상으로 순례를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손효선 기자

선암사 신임주지 진산식

혜초·운산 스님 등 참석

태고종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 신임주지 경담 스님 진산식이 3월 2일 봉행됐다. 진산식에는 방장 혜초 스님을 비롯해 선암사 조실 혜운 스님, 회주 금용 스님, 총무원장 운산 스님, 이용호 국회의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마음을 지녀 위로는 부처되기를 발원하고 아래로는 선암사 사부대중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합과 보살행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어에 앞서 주지 경담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선원, 율원, 강원, 염불원의 수행정진이 더욱 더 승화하여 총림으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대중 화합과 사찰 발전에 헌신해 지역불자들에게 정신적 위안과 희망을 주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는 선암사가 되도록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진산식에 앞서 선암사 조실 혜운 스님과 회주 금용 스님의 추대의식이 봉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예천불교인 윷놀이 한마당

제9회 예천 지역 불교인 윷놀이 한마당이 3월 2일 소백산 용문사(주지 청안)에서 펼쳐졌다. 예천불교사암연합회와 예천불교연합신도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예천지역 스님들과 정재계 인사, 불자 등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흥겨운 잔치 한마당을 펼쳤다.

용문사 주지 청안 스님의 개회사와 사암연합회장 인사말로 진행된 1부에 이어 2부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한마음으로 어우러지는 윷놀이가 마련됐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화면에 손만 대면 조계사 한눈에 '쏙'

서울 조계사(주지 원학)가 경내에 사찰 안내 터치스크린 시스템을 설치해 참배객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터치스크린은 화면에 나타난 문자나 특정 위치에 손을 대면 저장된 정보가 나타나는 시스템이다. 조계사에 설치된 사찰 안내 터치스크린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사찰소개와 행사 법회 신행 정보를 제공한다.

조계사는 앞으로 사찰 안내 터치스크린에 인사동 등 사찰 인근 관광 안내 정보도 수록할 예정이다. 이번에 설치된 안내시스템은 국내 벤처회사인 웨이비비전이 협찬 제공한 것이다.

여수령 기자

"어려운 이웃에 자비의 손길을"

무각사 '자비봉사단' 발족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가 3월 1일 봉사모임 '자비봉사단(단장 조은미)'을 창단했다. 자비봉사단은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1일 열린 발대식에는 청학 스님과 광주자원봉사센터 손봉남 센터장과 자원봉사자 60여 명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청학 스님은 창단사를 통해 "관세음보살의 자비정신과 보현보살의 큰 실천을 본받아 행동하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자"며 "이제는 불자들이 모범적으로 남을 돕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창단 의의를 밝혔다.

이어 손봉남 센터장은 축사를 통해 "중증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봉사단은 발대식에 이어 5 · 18광주시민공원 청소봉사를 전개했다. 무각사 자원봉사단은 매월 정기적인 자원봉사 교육과 함께 광주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국제포교사회 지부 창립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대구경북지부(회장 우성연)가 2월 23일 대구 한국불교대학 관음사에서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국제포교사회의 지부가 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성연 회장은 "앞으로 지부에서 불교경전 번역사업을 비롯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불자를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법회에는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과 국제포교사회 강영성 회장, 부평 미얀마 선원 우소다사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부 창립을 축하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한국 대승불교 실천연합 제 2차 정기총회 (구 부산불교 뉴-라이트 연합)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의 가정과 직장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옵니다. 한국 대승불교실천연합 정기 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수희 동참 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宣 言 文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외면한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무엇이 진실한 가르침인지 아닌지 조차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다. 데카르트와 뉴턴이 드러낸 위대한 인류의 지침은 오늘날 서구문명의 기본이 되어 기독교와 함께 이 땅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에게는 행복이 아니었다. 찬란한 로마문명을 파괴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였다. 불교내에서도 이런 서구적인 행복론이 수용되어 이제 제법 커다란 獅子身蟲이 되어버렸다. 많은 佛子들이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왜곡하고 비뚤어도 이를 바로 해야 할 善知識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에 따른 가치관이 이 땅에 가득히 넘쳐나게 될 때까지, 大乘佛敎 中興을 위하여 出家와 在家가 합심하여, 四部大衆이 합심하여 일어섰다.

부처님이 涅槃에 드신지 벌써 2500 여년이 지났다. 부처님의 正法은 보이지 않고 末法時代의 조짐만이 보일 뿐이다. 이기적이고 폭력이 난무하는 末法時代가 바로 지금 이 땅에 도래한 것이다. 그것은 조선왕조 오백년 동안 이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 사이에 숫한 왜란과 호란이 겹치더니 끝내는 地獄과 같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으며 해방 후에도 지옥은 이어졌다. 오늘날 선진 대열에 합류하고자 모든 국민이 열망하지만 아직 나라는 후진대열에 서 있다.

정치인이 그렇고 경제인이 그렇다.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사회를 이끌고 있다. 종교도 철학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 순수한 희생으로 대기업이 형성되었으면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 정치는 경제를 그렇게 이끌어야 한다. 그런 정치인과 경제인을 국민은 믿고 따르는 것이다. 종교와 철학도 정법을 외면하고 있다. 지금 부처님이 오신다 한들 모두 외면하고 멀리 할 것이다. 아예 부처님께서 오실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 쓰레기가 쌓인 곳에 바퀴벌레가 모이듯이 이 땅에는 惡魔의 軍團이 넘실거린다. 이에 우리는 일어선 것이다.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불국정토를 이루어야 한다고 發願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如來의 거룩한 誓願을 믿고 따르는 佛子가 되어 만중생이 正定聚가 되어 歡喜하며 행복해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진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 있다면 그는 바로 大乘行者일 것이다.

우리는 이에 <大乘佛敎實踐聯合>의 탄생을 만천하에 宣言한다.

佛紀 2552年 3月 19日

◆행동강령

1) 삼보호지 : 우리는 불 · 법 · 승 삼보를 호지한다.
2) 생명존중 : 우리는 유정 무정 모든 생명체를 존중한다.
3) 불교문화 : 우리는 한국불교문화유산의 지킴이가 된다.
4) 불국정토 : 우리는 불국정토를 구현하기 위하여 신명을 다한다.

◆임 원 진

상임대표 唯心成道(스님)
공동대표 강동균(교수) 혜련(스님) 보리(스님) 김연숙(기업인) 권승렬(기업인)
감 사 한영동(금융인) 안달갑(전공무원)
고 문 법일(스님) 지공(스님) 보각(스님) 이영채(육영사업) 이영구(방송인) 임채수(법사)
자 문 화엄(스님) 삼주(스님) 대광(스님) 원덕(스님) 해운(스님) 덕림(스님) 법정(스님) 혜정(스님) 송용기(법사) 오주영(교수) 이상복(병원장) 허종범(변호사) 변계원(학원장) 박필순(꽃예술가) 현동림(여행업) 오동림(귀금속업)
지 도 영명스님 도정스님 용운스님 임태환(승복전문가) 백련화(화가) 박만식(기업인) 박영식(호텔업) 천성엽(기업인) 안태봉(시인) 강철우(전공무원) 김철수(해양업) 양형태(전공무원) 이은정(서예가) 이점순(주부) 박은자(꽃예술가) 유진갑(미용전문가) 최승배(차량정비업)

운영위원장 박현철(토건업) 국제교류위원장 오주영(교수) 법제위원장 허종범(변호사)
불교문화위원장 송재근(교수) 사찰순례위원장 현동림(여행업) 교육위원장 구자상(교수)
포교위원장 이상범(교수) 청소년위원장 박상욱(기업인) 여성위원장 김호정(포교사)
사무처장 박규보(교수) 사무국장 손동렬(건설업) 총무국장 박몬비(주부)

◆행사안내

· 일 시 : 2008년(불기 2552) 3월 19일 수요일 저녁 6시
· 장 소 : 부산역 새마당 웨딩 2층 특실
· 식 순 : 제 1부 법회 | 제 2부 공양 | 제 3부 형제결연식
· 연 락 처 : 사무국 051)468-5657(총무국장 박몬비 017-566-4504) / 팩 스 051)442-5659 / 홈페이지 http://www.bbnr.or.kr

* 화환은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기는 수행…해운대로 오세요”

반냐라마 싸띠스쿨 20일 개원



‘수행을 즐기자’ 는 반냐라마 싸띠스쿨이 부산 해운대에도 생긴다. 사진은 김해 다보선원에서의 수행모습. 사진제공=반냐라마

안개 속을 지나면 옷은 안개에 젖듯이 수행을 가지고 놀면 몸과 마음은 수행의 향기로 물든다. 반냐라마 싸띠스쿨(이하 반냐라마)은 엔조이 싸띠(Enjoy Sati), ‘수행을 즐기자’란 본칙(本則)으로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즐기도록 돕고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반냐라마는 김해 다보선원을 본부로 국내에서는 서울, 성남, 대구, 울산에서 선방을 운영 중이며 인도, 뉴질랜드에서도 국제선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남방근본불교도량이다. 이번 3월 20일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에 새로운 지점을 개원한다. 해운대 반냐라마 지점은 반냐라마 본부의 교육방침과 수행방법을 그대로 전수한다. 또한 수행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여 수행할 수 있는 도량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몸이 지치고 더러울 때 목욕탕을 찾듯 사람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쉼을 얻고자 할 때 불교를 찾습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문제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합니다. 불교에서 쉼을 원하는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선방을 개원한다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하겠지요. 이것이 해운대에 선원을 개원한 계기입니다.”

반냐라마 선원장 반야디빠 스님은 선원의 역할과 개원 의미를 이와 같이 밝혔다.

“목욕탕 수만큼이나 선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신도시이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부처님 법으로 행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 지점은 부처님의 수행법을 배우는 교육기관과 마음의 쉼을 얻는 선방 역할, 두 가지 모두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65일 모두에게 열려 있는 선원이 되도록 지향할 것입니다.”

해운대 반냐라마는 수행교실 및 수행모임으로 운영된다. 수행교실은 수행의 기본을 익히고 배우는 과정으로 5회 출석 수업과 24시간 사이버수업(www.satischool.net)으로 진행된다. 출석 수업은 1회 수행기술(좌선, 행선, 생활선, 자비수행), 2회는 마음과학을 가르친다. 3~5회는 몸과 마음으로 수행을 익히는 시간이다. 사이버 강의는 출석수업의 복습과 함께 수행이론과 인도불교사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수행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배우는 수행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 붇다빠라 스님을 지도법사로 열린다. 붇따빠라 스님은 서울 약사사에서 출가해 양산 통도사서 청하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한국 법명은 본원(本願)이다. 동국대 선학과 학부와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강의를 맡아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통도사 포교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근본불교 상가(Sangha) 최고지도법사로 있으며 부산 김해 반냐라마와 인도 붇다가야선원, 근본불교학교에서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051)702-2841

하성미 기자 hdbp@hanmail.net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심학섭 법사

포교를 위한 최고의 장소

장병 위한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마련
“외부 봉사단체 방문이 큰 힘 되죠”



젊은 인재를 키우기 위한 최고의 장소가 있다. 바로 군포교 현장이다. 군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들을 향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바라보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힘겨운 한발 한발을 옮기고 있는 곳이 있다. 부산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는 지난 2007년 12월 진해에서 부산 용호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군작전사령부는 해상주권을 수호하는 해군들의 작전 사령탑으로 수많은 장병들이 생활하고 있다. 아직 칼바람이 부는 바다의 중심에서 한반도의 해상주권을 수호하고 있는 부산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를 3월 5일 종교활동 시간에 맞추어 찾았다.

매주 수요일 7시 장병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곳은 200여 명의 젊은 장병들로 법당이 가득 차 있었다. 이날 법당에서는 동아대 박규보 교수를 초청하여 ‘다종교 사회에서 불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특별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진지한 눈빛과 바른 자세로 흐트러짐 없는 장병들의 모습은 불교를 향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군작전사령부가 이전하면서 새로 부임한 일각 심학섭 법사는 해군 장병 포교의 지휘 역할을 맡고 있다.

“젊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흥미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불교도시 부산과 함께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포교사단과 외부 불교청년회와 연계하여 장병들을 위한 여러 방편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젊은이의 시각과 시대적 차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은 21년 동안 군법사로 활동하며 깨달은 일각 법사의 노하우다.

“인재가 곧 재산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뛰며 활동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인재 한명이 10명 아니 100명을 키워내는 것이지요. 젊은 인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군포교 현장은 인재를 키우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새로 부임한 후 일각 법사는 2월 24일 부산 차 문화 진흥연구회와 정다 문화원 회원들을 초청하여 ‘장병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차 자리’를 개최했다. 장병들을 위해 차 문화를 소개하고 불교문화를 편하게 만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앞으로 일각 법사는 “장병들에게 불교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차 행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작전사령부의 또 다른 포교사들은 바로 각 사찰에서 찾아온 어머니 봉사자들이다. 매주 수요일 종교교육 활동시간에 외부 사찰에서 오는 봉사자들은 장병들을 위한 간식을 손수 만들어 제공한다. 일각 법사는 “홍법사, 공덕원, 포교사단, 대한적십자사 불교봉사회 참사랑단 등 다양한 곳을 통해 찾아온 봉사자들의 간식은 정성으로 가득 차 있어 장병들이 무척 좋아해 포교에 도움이 많이 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고딩불자’ 다 모여라~”

부산 파라미타, 고등부 모임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 이하 부산파라미타)는 3월 15일 오후 3시 부산불교신도회관 법계정사에서 ‘고등부를 위한 첫 법회’를 개최한다.

파라미타 고등부 법회는 파라미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으나 진학한 고등학교에 파라미타가 없어 활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법회이다. 즉 고등학교에 파라미타가 없어도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산파라미타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

부산파라미타 유진상 사무차장은 “학생들의 지속적인 신행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리였다”며 “중등부를 이어 고등부 대학생까지 부처님의 법 아래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산파라미타 고등부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마다 정기 법회를 개최하고 불교를 통한 마음공부 뿐 아니라 특별활동을 개최해 아이들의 장점 및 특기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대각 30년, 그 열정을 위한 비상”

부산 대각사 대각불교청년회 창립 29주년 기념법회

부산 대각사(조실 경우) 전국불교청년회(회장 신수흥)가 창립 29주년 기념법회를 3월 16일 대각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봉행한다. 기념법회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일반재가불자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문화체험행사로 한지체험공예 및 네일아트를 진행한다. 본 행사는 오후 6시 시작되며 법요식 및 축하공연을 마련했다.

신수흥 회장은 “대각불교청년회는 29년 동안 전국 불교 청년회의 귀감이자 모범적인 역할로 많은 불자들을 이끌어 왔다”며 “창립기념법회는 대각사에서 신행생활을 해 왔던 역대 선배님들을 모시고 발자취를 돌아보며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051)245-8781 하성미 기자

사천 극락사 전시회

사천 극락사(주지 동진)는 3월 8일부터 12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장학기금마련 및 불사건립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 수안 스님의 육바라밀 병풍 등이 전시됐다.

동진 스님은 “이번 전시는 극락사 건립 및 어려운 환경에서 향학열을 불태우는 학생들의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 연임



영광도서 대표이사 김윤환 회장(사진)이 제10대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을 연임하고 상임회장으로는 (주)동해통신 대표이사 이달숙 회장이 선출됐다. 부산불교실업인회는 2월 27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하성미 기자

삼천 부처님 부르며 삼천배 참회

감로사, 17일부터 21일까지

부산 감로사(주지 혜총)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제57회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를 봉행한다. 기도 중에는 삼천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매일 600배씩을 진행하고 오후불식을 실천한다.

이와 함께 영산 율원장 철우 스님을 유나로 모시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인환 스님,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 등 17명의 법사 스님을 초청, 법문도 마련한다. 하성미 기자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남여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 카필라”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 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 국가이름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대단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있다.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고, 스님께는 승복색상에 맞게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청하고 있다. 또한”카필라”를 신고 만행할 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것이 독특하다. 성불화”카필라”는 남여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싸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벅” 사용

관절과 연골이 불편하십니까? 관절과 연골 건강을 위하여

글루코사민 ‘파격할인’

“선착순 300분께” 총18개월분을 69,800원…

창사 30주년

한일그린팜(한일그린제약) 30년만에 특별세일!!

창사 30주년을 맞은 한일그린팜(구.한일그린제약)이 하루 129원으로 관절과 연골의 건강을 대박세일을 선언했다. 한일그린팜(구.한일그린제약)은 올해 부터 동남아를 시작으로 세계무대 진출을 선언, 앞으로 전 세계인들이 한일그린팜(구.한일그린제약)의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연것이다.

◇하루 129원으로 효도실천

한일그린팜(구.한일그린제약)의 창사 30주년 기념과 글로벌 선언으로 인해 발표된 대박세일은 다름 아닌 ‘효도세일’.

어르신들의 관절과 연골의 건강을 지키시라는 의미에서 글루코사민 6개월분, 해조칼슘 6개월분, 비타민 6개월분. 총18개월분을 선착순 300개 한정 69,800원에 판매하는데, 이는 하루 129원인셈, 제품 구입을 서둘러 볼 만하다. 한일글루코사민은 ▲ 관절과 연골의 건강을 원하시는 분 ▲ 나이, 비만 등으로 관절에 무리가 오신 분 ▲ 생활환경 등으로 무릎관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 ▲중, 노년기 갱년기 여성분 ▲관절과 연골에 영양공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대박찬스’ 다. 특히, 이는 어르신들에게 부담없는 가격으로 칭찬받는 선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 틀림없다.



글루코사민 6개월 + 해조칼슘 6개월 + 비타민 6개월 = 총18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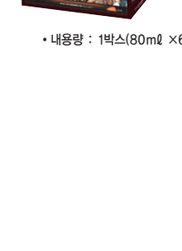
구입문의 080-223-7000

※택배비 고객부담 2,200원

농 협 1285-02-011378 이현실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분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구입팬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사찰 홍보·기부확산 힘쓸 것"

생명나눔실천본부 올 주요사업 계획

어떤 사람은 피가 모자라서, 어떤 사람은 이식받을 적합한 조직이 없어서 죽어간다. 이런 환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결연을 맺도록 도와주는 일을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맡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 주력사업을 3월 4일 발표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주요사업은 크게 ▲장기기증 결연사업 ▲헌혈은행 사업 ▲환자지원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생명나눔 의식'을 알리고 환우지원사업에 주력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종단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 천태종 · 진각종 지도자들을 이사진으로 영입해 함께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며 더 넓은 차원에서 활동하는 단체로서의 면목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월 2회 이상 사찰 캠페인 전개

지난해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을 진행, 기증자 3100명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인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사업에서도 '생명나눔, 함께하는 지정점' 108곳을 선정, 이들을 통한 생명나눔 홍보를 올해까지 계속 하고 있다.

올해는 이들 사업을 이어나가면서 월 2회 이상 사찰 캠페인 전개, 장기기증 및 조직기증에 대한 세미나 등을 계속해서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뇌사시 장기기증 및 조직기증 1500명, 조혈모세포 등록희망자 3100명 모집의 성과를 올해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정복자 사무총장은 "올해 사찰 캠페인에 역점을 둘 계획인데 각 지역 사찰 주지스님이 생명나눔에 대한 의식을 신도분들에게 설명해주시면 회원 확보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신용카드로 손쉽게 후원

그 동안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불교계 안 지원금 모금에만 치중해왔다면 올해부터는 폭을 넓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신용카드사 포인트를 이용한 기부확산을 꾀한다. 신한카드사와 협력한 '아름인(www.arumin.co.kr)'은 이미 후원제휴를 시작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공익단체 사이트인 네이버 해피빈(happybean.naver.com) 및 싸이월드 '사이좋은 세상(cytogether.cyworld.com)' 등에도 곧 등록해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연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름인의 경우 '아름다운카드'를 쓰면 일정 포인트가 신한카드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로 바로 연결, 적립된다. '해피빈'과 '사이좋은 사람들'에서는 각 포털사이트가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소개하는 환우들을 게재할 때마다 기부 포인트를 적립시키면 된다.

희귀병환자 희망걷기 대회 개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 9월 '(가칭)생명나눔과 함께하는 희망걷기' 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는 희귀병 환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환자지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걷기대회 코스는 남산길로 내정했으며 환우와 환우 가족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불자 호스피스 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 재교육과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은 광주지역본부 기념행사도 기획하고 있다.

일면 스님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한다"면서 "생명나눔에 대한 생각이 사회적으로 많이 퍼졌지만 불자들의 관심은 부족한 형편"이라며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해주기를 당부했다. (02)734-8050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⑯ 불교여성개발원 교정위원 윤순옥 씨

지난 1월, 불교여성개발원이 사형수를 위한 2000일 기도 회향일을 며칠 앞둔 때 사형수로 복역 중인 몇 명의 불자가 감형됐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일반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세계 교도소. 높은 담과 철망, 그리고 철저한 통제로 차단된 또 다른 사회다. 하지만 그들 역시 이 세상의 일부고 사람의 온기를 향해 손을 뻗는다. 교도소에서 법음을 전하며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불교여성개발원 교정위원 윤순옥(57·사진)씨를 만나봤다.

"知·行 갖춘 봉사자 될 것"

서울구치소 방문 月 2회 교정활동

"상대방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사형수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우락부락하고 생긴 것부터 우리랑 다를 것 같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들도 참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윤씨는 현재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활동 내용은 주로 사형수 면담 및 종교활동 지도다. 즉 사형수로 복역 중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2시간 여 들어주고 함께 법당에서 불법을 나누는 것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어머니'가 됩니다. 그들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교도소' '사형수' 등의 단어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까지 그 위화감 속에 몰아넣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윤씨의 생각이다.

물론 윤씨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사형수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나서니 "왜 그런데 가려고 하냐"며 주변 사람들부터 말렸고 윤씨 자신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불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불자에게 가장 큰 미덕이 무엇인가. 그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이다. 이는 윤씨의 기본적인 봉사 생각이기도 하다.

윤씨가 봉사를 시작한 것은 꽤 오래전 일이다. 학자인 남편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다 한국에 돌아온 후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실천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봉사활동이었다. 그 때가 1987년이라 불교계 봉사활동 단체가 없어 그는 친구와 함께 한 교회 단체에서 봉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불교계 봉사활동은 1995년 '미소회'라는 봉사단체를 조직하면서부터 계속됐다. 미소회 활동을 통해 그는 탑골공원 무료 급식을 주도했고 현재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매월 첫째주 금요일마다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몇 해 전까지는 서울 신림중학교에서 집단상담을, 불교여성개발원과 인연을 맺으면서 서울구치소에 나가기 전까지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교정활동을 해왔던 윤씨. 이런저런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 2년 전에는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밟으며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주제로 논문도 썼다고 한다. 지와 행 모두 갖추기 위해 힘써왔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는 뭔가 '베푼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욕만 넘치면 쉽게 지치게 마련이에요. 봉사처에서 정해놓은 룰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윤씨의 법명은 '환희심'이다. 그는 봉사와 신행활동을 통해 진정으로 환희심을 느끼기 때문에 이 법명이 좋단다. 하지만 아무리 봉사의 길이 좋아도 그는 '주부'라는 위치를 절대 놓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봉사를 할수록 집안에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봉사와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어디서든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스리랑카 파견봉사자 박재현씨

"현지에 적합한 봉사 해야죠"

"해외자원활동에 대해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제가 가진 '좋은 세상'에 대한 신념으로 반대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고려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박재현(26)씨는 스리랑카 조계종복지타운으로 파견된다. 군대에 가기 전 대학생정토회에서 인도 둥게스와리 마을 활동을 한 것이 그의 인생에서 큰 반환점이 됐다.

"저는 세상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저 스스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 가서 그들을 위해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진 박씨는 학내에서도 '사회적 기업 학회'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계속해왔으나 이번 1년을 통해 해외활동가로서의 자질을 스스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은 정말 평생을 걸고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최대한 현지인에 동화되어 이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선발 자원활동가 2人

"해외봉사 주춧돌 쌓을 것"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2월 자원활동가를 선발, 몽골과 스리랑카 지역 조계종 건립 복지시설로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이중 새로 선발된 자원활동가 2인을 3월 3일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이들은 3월 중순경 파견 지역으로 떠나 1년 동안 해외활동가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도 계속해서 해외활동가 연수를 받고 있다. 현지에서는 홍보 • 마케팅은 물론 현지 사정에 맞는 기부상품 개발, 프로그램 진행 등의 중책을 맡게 된다. 그들은 입을 모아 "나가서 큰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주춧돌이 된다는 각오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몽골 파견봉사자 구자정씨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싶어"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지 사람들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완공된 몽골 조계종 사회복지센터에 파견되는 구자정(27)씨는 한신대 국제관계학과를 얼마전에 졸업했다. 그러나 대학시절부터 수원지역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는 물론 NGO단체 참여 경험이 많아 진작부터 해외활동 적격자로 꼽혔다.

"이번 기회로 해외활동에 대해 생각해왔던 것들을 재정립하게 됐습니다. 제가 현지인에게 다가서야 한다는 것도 절실히 느꼈지요."

해외활동가의 길을 걷기로 마음 먹었다는 구씨는 1년의 시간 동안 스스로 해외활동가가 될 자질이 있는지 시험하는 시간으로 꾸려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지에 도착하면 우선 그 분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생각입니다. 문화를 배운다는 자세로 활발하게 일하면서도 요란하지 않은 활동가가 되겠습니다."

동방불교대학 신·편입생 모집 안내

■ 모집학과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승가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불교미술학과	00명	3년제	정규반

■ 전형일정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 접수 및 면접	2008. 3. 4(화) ~ 2008. 3. 31(월) 17:00	• 본교 교학처 • 인터넷 교부 · 접수 (www.dongbang.org)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 졸업특전

1. 태고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승려가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승려증을 발급받는다.
2. 모든 학과 졸업생에게 정식 태고종 2급 정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3. 범패학과 졸업생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에서 상주권공 수료증을 수여한다.
4. 불교미술학과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국가고시) 등에 대비한 특강을 실시한다.
5.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 제출서류 및 지원자격 · 전형료 등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학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2008-1학기 특별강좌 개설

본교는 2008학년도부터 건학이념과 사회적 흐름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재학생 및 동문과 기성종도 및 일반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특별강좌를 개설합니다.

◆ 수강신청 : 2008. 3. 5(수) ~ 2008. 4. 4(금)
◆ 개설기간 : 2008. 4. 7(월) ~ 2008. 7. 7(월)

강좌명		강 사	강의일시	수강료
상담학		김구산(법암스님) (前 중앙대 교수)	매주 금(3개월) 10:30~12:10	20만원
유마경 강해		정성준 (동국대 강사)	매주 월(3개월) 10:30~12:10	20만원
요가와 호흡명상		심준보 (동국대 강사)	매주 화(3개월) 10:30~12:10	25만원
상장례에서의 유족심리와 치료		이범수 (동국대 강사)	매주 목(3개월) 10:30~12:10	25만원
문화재수리 특강	건축사	심대섭(대원고건축연구소장)	매주 월(3개월) 10:00~12:00	25만원
	색채학	곽동해(동국대 겸임교수)		
	도 학	김희정(본교 불미과교수)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120-150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49-1
TEL:(02)745-2030~2 FAX:(02)744-3461
홈페이지 www.dongbang.org

불교 태고종 중앙승가 전문강원 제 2기 강원생 모집

한국불교의 수행근본 도량인 금강산 유점사의 강맥을 오롯이 계승 전수하는 태고종 중앙승가 전문강원에서는 제 2기 강원생을 모집합니다.

1. 강원 수학연한 및 교과 과정

1. 수학연한 : 2년 4학기(1학기 : 능엄경 / 2학기 : 금강경 / 3학기 : 기신론 / 4학기 : 원각경)

2. 입학원서 등록 마감

2008년 3월 14일(음 2. 7) 금요일

※ 입학자격 및 구비서류 등의 자세한 문의사항은 태고종 총무원 교무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2)739-3450(내선 113번) / 교무과장 법전

한국불교 태고종 제 32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대상 행자 모집

본 종단에서는 승려법 제 3조 및 제 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 32기 합동득도 수계산림에 참가할 행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등록마감
2008년 3월 13일 목요일

2. 접 수 처
총무원 교무부, 각 시 · 도교구 종무원

※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문의사항은 태고종 총무원 교무부와 각 시 · 도교구 종무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2)739-3450(내선 113번) / 교무과장 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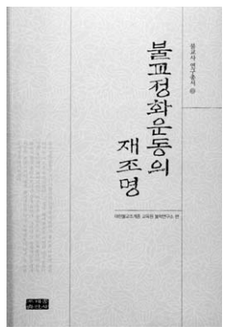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교무부원장 보경

불교정화운동은 자생적 정화의지 발현

조계종 교육원 '불교정화운동의 재조명' 발간

2006년 2월, 태고종이 발간한 <태고종사>는 불교계에 일대 회오리를 몰고 왔다. 현재의 태고종 창립과정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조계종의 근간이 된 정화운동의 주역이던 스님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는 조계종의 반발이 강력히 제기됐던 것. <태고종사>는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로 촉발돼 대처승을 축출 · 정리했던 정화운동을 '비구승들이 종권탈취에 혈안이 돼 저지른 법난'이라는 식으로 서술했다. 이를 두고 조계종은 조계종에 대한 모독이라며 분개했고, 당시 분란은 조계종에 대책위원회가 조직되는 등 또다시 한국불교에 비구 · 대처의 난리가 일어나는 듯 했다. 당시 사태는 태고종단의 문제부분 수정으로 일단락됐다. 그 후 불교정화운동 연구에 매진했던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이 사태 후 2년여 만인 지난해 12월,학문적 차원에서 불교정화운동 재정리를 마치고 <불교정화운동의 재조명>을 발간했다.

<불교정화운동의 재조명>은 고영섭 교수(동국대), 김광식 교수(부천대) 등 불교사연구위원회에 참여했던 9인의 학자들이 1년간의 연구 활동을 결산한 것이다. 보다 거시적인 안목과 성찰로 불교정화운동을 학술적으로 조명했다는 결과는 어떤 것일까? 연구실무 책임자인 현종 스님(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은 발간사에서 "불교정화운동은 식민지 불교의 잔재 청산을 기함과 동시에 계율 수호와 청정 수행가풍을 회복하기 위해 일어난 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재헌(경원대 강사)씨는 '미군정의 종교정책과 불교계의 분열'을 통해 "불교정화운동은 개신교에 유리한 종교정책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김상영 교수(중앙승가대)는 '정화운동시대의 종조 갈등 문제와 그 역사적 의의'에서 정화운동 기간 중 종조문제가 첨예한 대결구도에 있다는데 중점을 뒀다.

> "객관성과 다양성 갖고 접근
> 자의적 · 호교적 이해 극복"

김 교수는 "일반 언론이 비구-보조 지눌파, 대처-태고 보우파라는 이분법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화운동이 종조문제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정화운동을 지나면서 사찰재산이 상당부분 망실됐다는 사실도 김순미(한국교원대 대학원)씨의 '농지개혁과 사찰농지의 변동'을 통해 증명됐다. 비구 중심의 한국불교에서 소외됐던 비구니에 대한 연구도 정리됐다. 황인규 교수(동국대)는 "정화운동 때 경무대 시위만 예를 들어도 비구니들이 선봉적 역할을 했다는 점, 정화대책에 비구보다 많은 수가 서명에 참여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교정화운동의 비구니 참여가 현대 비구니 불교계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적었다. 윤승용 연구위원(한국종교문화연구소)은 '불교 정화공간과 사회복지'를 통해 불교정화운동 당시 불교사회복지 실태를 살폈다. 윤 위원은 "당시 보이는 불교사회복지활동은 일제강점기부터 유래된 것뿐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분규가 마무리된 1970년대까지 사회복지사업 등 대외 사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고영섭 교수의 '불교정화의 이념과 방법', 김광식 교수의 '불교정화운동과 화동위원회', 김순석 수석연구원(한국국학진흥원)의 '이승만 정권의 불교정책', 이경순(한국철도대 강사)씨의 '근대 불교구술사 성과의 현황과 과제' 등 총 9편의 연구성과가 수록됐다.

조계종은 <불교정화운동의 재조명>이 객관성 · 다양성을 갖고 접근한 책자라며 불교정화운동에 대한 자의적 · 호교적 이해를 극복했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학계 일각에서는 "조계종, 태고종이 대승적 차원에서 공동 연구팀을 꾸려 공동결과물을 발표하지 않는 한 불씨는 계속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청화 스님의 "앞으로도 종단사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면 그에 대한 학술적인 정리 작업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 그런 시각을 반증하는 것 아닐까?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일본 유출 문화재 자발적 환수 돼

日 고마자와대, 동국대에 '불설아미타경' 반환

지난 1990년대 고속철도 선정과정에서 수조원을 들여 떼제베(TGV)를 선정했던 것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떼제베를 선정하면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주겠다"는 약속 때문이었다. 결국 수조원을 들였지만 외규장각 도서는 돌려받지 못했다. 2005년 일제 때 약탈됐던 북관대첩비가 돌아왔고, 2006년에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47책이 93년 만에 반환됐다. 모두 숱한 반환 요구와 노력 끝에 얻어진 성과로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 환수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여줬다. 문화재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20개국 7만4434점에 달한다.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만 해도 1만477점에 이르는 가운데 일본에 있던 한 점이 자진반환 돼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에 모범적 선례가 됐다.

일본 고마자와 대학이 동국대에 반환한 문화재는 <불설아미타경> 한 권. <무량수경> <관무량수경>과 함께 정토삼부경의 하나인 아미타경은 아미타불을 지극히 염송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전이다.

반환된 <불설아미타경>은 어떤 가치를 지녔을까? 반환 후 조사결과 한글 언해본인 목판본 경전은 전남 해남 대둔산(대흥사)에서 17세기초인 1623년경 판각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대둔산에서 1623년 판각된 <대방광불화엄경입부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의 간기에 공양승으로 표기된 찰안 스님이 <불설아미타경>의 각수자로 나왔다는 점, 또 진언 부분의 한글 음토와 판구 등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동일연대로 추정된 것이다. 1564년(명종19년) 패엽사(唄葉寺)에서 판각한 <묘법연화경>의 것을 묘사한 아미타불설법 변상도 역시 반환된 <불설아미타경>이 17세기경 작품임을 뒷받침한다.



고마자와대가 동국대에 반환한 '불설아미타경'.

어떻게 반환 됐을까? 동국대와 자매결연 중인 고마자와 대학은 1957년 타계한 故 에다 도시오(江田俊雄) 교수의 유족이 기증한 <불설아미타경>에서 중앙불교전문학교 도서관 장서인이 찍힌 것을 발견했다. 고마자와 대학은 중앙불교전문학교의 후신인 동국대에 반환의사를 전했고, 2월 19일 <불설아미타경>을 환수 받았다.

한편 반환된 <불설아미타경>은 국내에 남아 있지 않은 희귀자료로 임진왜란 직후 한글 연구 등에 귀중한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신해철 과장(동국대도서관 불교학자료실)은 "반환된 <불설아미타경>은 임진왜란 직후 국어학 연구는 물론 불화연구 등 중세 불교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조동섭 기자

백의관음 · 지장보살 병립한 고려불화 발견

동국대 박물관장 정우택 교수 공개



정우택 교수가 공개한 <관음 · 지장보살 병립도>.

중국 · 일본에는 유례가 없는 고려시대 후반과 조선시대 초 한국에서만 그려진 관음 · 지장보살 병립도가 공개됐다. 일본 나고야 지역 개인 소장품에서 정우택 교수(동국대)가 발견한 불화는 고려시대(14세기) 것으로 추정되며, 세로 75.4㎝ 가로 44.7㎝의 크기에 비단에 채색된 작품이다.

정 교수는 "불화에 원색위주의 채색법이 사용된 점, 연화당초원문이 중심문양인 점, 관음보살 백의 전면에 금니로 상하좌우대칭의 연화원문이 그려진 점 등으로 볼 때 고려시대 14세기 후반 작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필, 보견의 흔적 없이 형상에 이지러짐도 없고, 뛰어난 색감을 보이는 등 불화 상태가 원형에 가깝게 보존 상태도 우수하다.

이번에 공개된 '관음 · 지장보살 병립도'는 일본 서복사와 남법화사 불화에 이은 세 번째로 국보급 문화재에 해당한다. 15세기초 조선시대 작품인 일본 아명원 금선묘에 있는 '관음 · 지장보살 병립도'와 도상이 거의 일치해, 금선묘의 불화가 이 불화를 모사한 것으로 짐작된다.

정 교수는 "화불로 짐작되는 세구의 여래상이 표현된 현존 유일의 관음 · 지장보살 병립도라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고려불화이다. 1476년 조성된 무위사 백의관음도의 원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라 평가했다. 조동섭 기자

우리 학회는 | (10)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불교학대사전 '가산불교대사림' 편찬 중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은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1990년 전통불교의 드높은 정신을 재인식해 연구 · 교화에 주력하고 장대한 불교전통의 현대적인 수용을 바탕으로 대중교화에 힘쓰고자 설립했다.

설립된 해 국일법장으로 사단법인 인가를 마쳤으나 1994년 현재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으로 변경됐다. 설립 이듬해인 1991년에는 가산학회를 결성하고 가산학술상을 제정해 인재불사에 주력했다. 성본 스님(동국대), 정승석 교수(동국대) 등 저명한 학자들이 가산학술상을 시상했다. 전문학술지 <가산학보> 발간을 비롯해 한국불교학전문강좌를 열어 불교학의 대중화와 전문화를 동시에 꾀했다. 설립초기 국일법장이었던 법인명은 1994년 가산불교문화연구원으로 변경됐다. 한문, 범어, 빨리어, 티베트어 등 불교원전연구과정을 개설해 불교학 연구자의 외국어 습득에 큰 도움을 줬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성과라면 단연 100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제작중인 <가산불교대사림>이다. <가산불교대사림>은 완간되면 세계 최대 불교사전이 될 전망이다. 총 15권을 목표로 발간 중으로 2007년 제10권까지 발간됐다. (02)765-9602 조동섭 기자

범음 · 범패 수강생 모집

교육과정

1. 49재 및 천도재 의식 (6개월 과정)
- 천수바라
- 사다라니바라
- 도량게
- 다게작법

※49재 및 천도재의식 후 점안의식 강의 포함
※매주 수요일 13시

2. 윤달대비 생전 예수재 의식
※매주 수요일 17시 30분

3. 상주권공재 의식
※매주 수요일 16시

4. 매화 역수 사주학과정(6개월 과정)
(강사 : 도연스님)
※매주 수요일 10시 30분

준 비 물 녹음기, 필기도구

개 강 일 2008년 3월 26일

◆녹화, 촬영 절대 금지.
◆본광고는 연 2회 게재합니다.

송강 범음 · 범패 전문강원
●원장 : 오송강(중요무형문화재 준 보유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미륵당 011-258-0314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입 종 안 내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지방종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빙서류(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외부)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총무원 (051)527-5431~2 팩스 (051)527-7733
· 경남종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중부종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제주종무원 (064)724-0318~9 휴대폰 019-522-0318

일 주 문



범망경 산림대법회 법문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 스님은 3월 16일 오전 10시 조계사 <범망경> 산림대법회에 참석해 법문한다.(02)732-2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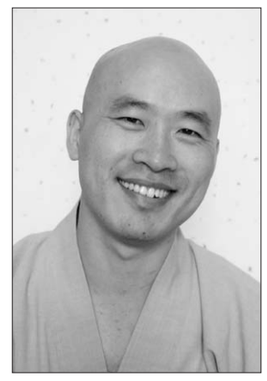
동국대 개강법회서 법문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은 3월 18일 오후 5시 동국대 서울캠퍼스 정각원 법당에서 열리는 개강법회에 참석해 법문한다.



탁월한 불교여성상 수상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이 3월 7일 UN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지위향상을위한협회가 수여하는 '탁월한 불교여성상'을 수상했다.

"한국불교 세계에 알리는데 힘쓸 터"

일미 스님 미국 애리조나대 교수 임용돼



2007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일미 스님이 미국 애리조나대 교수로 임용됐다. 한국스님의 미국 대학 교수임용은 2007년 햄프셔대에 교수임용된 혜민 스님에 이어 두 번째다.

일미 스님은 "교수 임용으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전남 장성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일미 스님은 속가 삼촌인 지범 스님(제주 불광사 주지) 손에 이끌려 출가했다. 검정고시로 1989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했다. 학부 졸업 후에는 서구 불교를 알고자 1996년 독일로 유학 갔었다. 휘광 스님(뉴욕 불광사 주지)과의 인연으로 도미한 뒤, 하버드대에 진학한 스님은 1999년 하버드대 신학대 석사과정, 2002년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2007년 한국불교 근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불교관계를 고찰한 '한일불교 관계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하버드대에서 박사후연구과정(Post-doc)중인 스님은 6월 연구과정을 마치자마자 애리조나대에서 일본과 한국 불교학 관련강좌를 담당하게 된다.

자신의 교수임용을 "한국불교가 미국에서 목소리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한 스님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자양성"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현재 미국의 불교연구 트렌드가 책 등 이론을 넘어 직접 조사 · 체험하는 것"이라며, 일본 불교를 전공하는 학생들 다수가 일본에 방문해 수개월 이상씩 체류하며 자료를 찾고 선사를 만나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현재 애리조나대 동양학과 학부 · 대학원 재학생 50여명 가운데 한국불교를 전공하는 학생은 한명 뿐이다. 한국불교를 전공하는 학생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들이 한국불교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국내외에서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스님은 한국의 스님과 불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고창사회복지관 자비의 쌀 전달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은 3월 3일 한화그룹이 '사랑의 쌀 나눔' 사업 일환으로 기증한 쌀 20kg 21포대를 지역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정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강불교대 · 동해유치원 입학식



천태종 대구지부 대성사(주지 도산)는 3월 3일 서원당에서 금강불교대학(학장 윤수현) 제5기 입학식을 열고 166명의 신입생을 맞았다. 이어 대성사는 5일 제24회 동해유치원 원생 291명의 입학식도 개최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불광불교대학 입학식



대구 불광사 불광불교대학(학장 성봉사요)은 3월 5일 만불보전 대법당에서 제21기 근본교리반 신입생 120명에 대한 입학식을 거행했다. 학장스님은 "한 주에 한 시간만 투자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불교와 함께 새로운 삶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인사말 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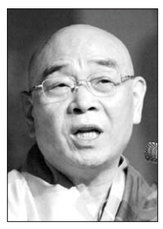
우리불원 점안 및 개원식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우리불원(주지 일오)은 3월 2일 양산시 북부동에서 점안식 및 개원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능인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개원식에서 능인 스님은 "전법도량을 수행하는 참모습에서 탐진치를 버리고 불법 정진하여 다 같이 인연 맺어 성불의 길로 가자"고 축사했다. **청운경남부지사장**

"금강경 실천 운동 일어나야"

공생선원서 '금강경 강의' 혜거 스님



서울 강남 지역에서 20년 동안 30만 여 명에게 각종 경전들을 강의해 온 혜거 스님(금강선원장)이 강북에서 법석을 폈다. 3월 6일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공생선원(선원장 무각)에서 <금강경> 강좌를 시작한 것.

첫 강의에서 "불자들이 당당하게 살길 바란다. 당당함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 깊이 공부하고 수행하며 불자로 사는 것이 즐거워야 하는 것"이라며 "기복적 신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기를 당당한 깨침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스님은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경전을 통째로 외우겠다는 원력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금강경>은 머리로 공부한다고 와닿는 진리가 아니고 그 가르침들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금강경>운동이 일어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시간씩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임연태 기자**

"노숙인 사회복귀 프로그램 강화"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 2대 회장 지거 스님



"노숙인에 대한 인식 재고, 노숙인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은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제가 다시 소임을 맡았으니 노숙인 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월 27일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2008년 서울시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정기총회'에서 보현의집 기초해결센터 원장 지거 스님이 제2대 협회장에 연임됐다.

지거 스님은 3년 전 불교계 최초 복지시설협회장으로 당선돼 임기동안 80여개 노숙인복지시설협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노숙인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20%를 인상하는 등 취임 초 계획했던 사업 목표를 꾸준히 달성해왔다. 보현의집에서는 6년간 원장을 맡고 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스님은 "그동안 진행된 노숙인 사업들을 보다 체계화하고 노숙인의 복지와 인권 그리고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스님은 우선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님은 2008년 현재 서울시노숙인복지시설협회가 50여개의 협회 회원시설과 20여개의 노숙인 관련시설을 대표하고 있어 적지 않은 규모라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강진 기자**

문필기 할머니 타계 나눔의 집 추모공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보금자리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원장 원행)에서 기거하던 문필기 할머니가 3월 5일 양평 용문효타운에서 타계해 7일 나눔의집 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었다. 향년 84세.

1925년 경기도 진양군에서 태어난 문 할머니는 18세 되던 해인 1943년 중국 지린성(吉林省) 창춘(長春) 위안소에 강제 동원, 광복이 될 때까지 피해자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어려운 생활을 하던 문 할머니는 199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 1993년 등록됐으며 2003년부터는 나눔의집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살아왔다. 한편 나눔의집에서는 올해 지돌이 할머니에 이어 문필기 할머니가 연이어 작고함에 따라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들의 요양시설 건립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김강진 기자

유광진 동국대 이사 별세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유광진 이사(동국대 명예교수)가 3월 2일 별세했다. 향년 65세. 유광진 이사는 1960년 대구 대륜고등학교를, 64년 동국대 정외과를 졸업한 후 동국대 정치학과 석사(1966년), 동국대 정치학과 박사(1978년) 과정을 마쳤다. 유 이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동국대 행정대학원장 · 기획조정실장 · 총무처장 · 사회과학대학장 · 학생처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11월 법인 이사로 선임됐다. **조동섭 기자**

"대구경북 범음범패 활성화 최선"

태고종 구룡사 불교대학 강주 상진 스님



"상주권공 등 의식불교를 차근차근 잘 가르치겠습니다."

대구 구룡사 불교대학 강주 소임을 맡은 상진 스님은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철하 스님(마산 원각사)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동방불교대학과 봉원사 등에서 불교전통의식을 배웠다. 스님은 "대구 경북 불교대학이 폐교돼 안타까웠는데 최근 구룡사 불교전통의식 교육원이 개원돼 지역 불자들의 불교문화 교육 불사에 큰 전기가 마련됐다"며 "과거 유명했던 팔공산 범패처럼 대구경북지역 범패를 활성화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동섭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의과대학과(Hypnosis Career College) 학술교류 협정

제33기 최 면 「전생 · 빙의 특별 워크숍」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개강안내 3월 13일 10:00~17:00까지

수련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과정별 교재 및 수련테잎 제공
▶수련비 : 200만원
▶특전 :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한국최면과학원 임재형박사 직강
미국 최면의과대학 객원교수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 각종 통증해소,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현재 접수중

한국최면과학원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301
(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
전화 : 042) 255-0734~5

BBS 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중앙승가대 입학식 현장

새로운 출발…힘든 만큼 즐겁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화 한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 한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화 한다."

'승가실천강령'을 외치는 스님들의 소리가 무명의 장막을 찢는 사자후처럼 울린다. 3월 3일 중앙승가대 대강당. 2008학년도 입학식 현장이다.

스님들만 다니는 대학의 입학식은 어떤 분위기일까? 일반 대학의 입학식과 가장 다른 점은 부모나 친지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입생 학인들과 선배스님들 그리고 단상의 어른스님들과 귀빈들이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축하를 위해 동참한 선배스님들은 매우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신입생 학인들에게서는 긴장감이 역력하게 느껴진다. 입학식장의 주인공, 08학번 스님들은 모두 112명으로 대학원 22명(박사과정 5명, 석사과정 17명)과 학부 90명(불교학과 25명, 역경학과 7명, 포교사회학과 20명, 사회복지학과 30명)이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오늘의 입학식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을 훗날 알게 될 것입니다"는 총장 종범 스님의 환영사가 시작됐다. 의상대사의 '이르는 곳마다 출발하는 곳(止止發處)'이라는 말로 매사에 시작이 중요함을 강조한 종범 스님은 "오늘의 입학식이 학문의 시작이고, 수도의 출발이며, 중생교화의 시발점이다. 성실하고 향학열에 불타는 학교생활을 통해 큰 빛을 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승가대 2008학년도 입학식은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승가실천강령 낭독, 학사보고, 입학생 선서, 입학허가 선언, 입학성적 우수자 장학증서 수여, 총장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입학식이 끝나자 1층에서 기념촬영이 있겠다는 사회자 천산 스님(총무국장)의 안내에 고학년 스님들이 자리를 나선다. 선배스님들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안행하며 지난 공간은 길이 됐고, 그 빈자리를 새내기 스님들이 메우며 뒤따른다.

선배스님들은 도서관, 기숙사로 저마다 할 일을 찾아 사라졌다. 자비관(대학본부) 현관에서 있은 사진촬영도 끝났다. 새내기 스님들은 비구 · 사미, 비구니 · 사미니로 나뉘어 각각 육화당(비구 기숙사)과 화경당(비구니 기숙사)으로 들어갔다.

딱 한번, "차수하고 시선 고정하세요." 습의사 법초 스님(2학년) 목소리가 들렸을 뿐 육화당에 이를 때까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육화당에 이르는 동안 스님들의 안행은 소리 아닌 소리로 저마다의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경책이 됐다. 안행은 스님들이 차수하고 줄맞춰 소리 없이 도량을 지나는 모습이 기러기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내기 스님들은 1학년 동안은 대중생활을 하며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것과 지켜야할 것을 익히는 습의(習儀) 과정을 철저히 거친다. 교정을 다닐 때는 눈은 땅을 보고 입은 굳게 다문 채, 두 손은 포개 단전에 놓고 가을밤 하늘을 나는 기러기처럼 차수와 안행은 기본이다. 처소도 선배스님들은 2인 1실을 사용하지만 1학년 스님들은 200여평 남짓한 큰방에서 함께 생활한다.


입학식 후 큰방에서 습의사 스님의 생활지침을 경청중인 신입생 스님들.

"대중생활이 어렵겠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의 과정인 만큼 슬기롭게 견뎌내기 바랍니다." 습의사 승묵 스님(3학년)의 말을 큰방에 앉아 경청하는 새내기 스님들의 모습은 경직돼 있었지만 눈만은 새벽별 같았다.

큰방에서의 대중생활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스님은 없을까? 혜융 스님(입승)은 "비구와 사미가 함께 대중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진 않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대자유인이 되겠다고 출가했을 터, 어찌 이런 속박을 자청한 것일까? 동국대 · 강원 · 승가대등 기본교육기관을 마쳐야 비구계 수지가 가능한 승가교육체계상의 이유도 있지만 정작 중앙승가대를 찾은 출가자들에게 그것은 단지 제도일 뿐 이유는 달랐다.

이번에 입학한 정헌 스님과 지묵 스님도 그랬다. 두 스님은 이미 강원도 마쳤고 비구계도 수지했다. 출가한지 올해로 11년 됐다는 정헌 스님은 백양사 강원을 나오고 중강 소임도 3년 살았다. 그런 스님이 다시 중앙승가대를 찾은 것은 폭넓은 교리와 역사를 습득해 정견을 세우겠다는 진리에의 열망 때문이었다. 정헌 스님은 승가대에서 바른 정견을 세워 졸업 후 "선방을 찾아 정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묵 스님도 같았다. "출가해서 지내보니 모자란 부분이 많았다"는 스님은 "현대교육과 전통교육을 함께 받고 싶어 찾았다"며 입학동기를 말했다.

조주 스님의 경우도 특이하다. "출가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대중생활을 경험하지 못했었다. 새로 태어나 시작하는 각오로 입학하게 됐다"는 스님은 모스크바 달마사, 우즈베키스탄 자운사 등에서 해외포교를 위해 힘써왔다. 조주 스님은 "승가대 교육을 마치면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 현지포교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각오와 계획은 서운 스님과 무경 스님 등 2007년 9월, 제33기 행자교육을 갓 마친 스님들도 같았다. "승가 경험이 일천해 습의할 것이 많다"는 서운 스님의 입학동기는 은사 도신 스님(서산 석왕사 주지)이 "출가한지 얼마 안 된 사미는 중물이 제대로 들어야 한다"며 입학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신입생 중 좌차(앉는 순서)가 가장 낮은 무경 스님도 은사 운성 스님(진해 대광사 주지)이 "내전과 외전 체계가 잘 갖춰진 곳"이라 추천해서 입학했다. 무경 스님은 "좌차(앉는 순서)가 낮은 만큼 더 많이 노력해 대중화합에 힘쓰겠다. 승가대에서 내전과 외전을 두루 배워 선사의 길을 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 한해 새내기 스님들은 큰방에서 하심과 평등, 상생을 화두로 대중생활을 한다. 황사로 세속의 강산은 뿌연 요즘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화 · 생활화 · 대중화 하겠다"는 스님들의 열망이 가득한 한국불교의 미래는 쾌청하다.

글=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야단법석'의 어원은 佛家

해외불교칼럼


흔히 쓰는 '야단법석'은 불교에서 유래한 말이다. 사진은 대중법회 장면. <현대불교자료사진>

'야단법석'에 대한 '불교대사전'의 해석은 대개 이렇다. 야단(野壇)은 '야외에 세운 단', 그리고 '법석(法席)'은 '불법을 펼치는 자리'란 뜻이니, 곧 '야외에 단을 마련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풀이된다. 요즘 같으면 노천법회나 야외법회쯤 되겠다. 석가세존께서 친히 벌이신 야단법석 가운데 대중이 가장 많이 모인 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했을 때라 전해진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보면 아무래도 시끌벅적 어수선해진다. 경황이 없고 들뜬 그런 축제분위기를 비유적으로 일컫던 말이 이젠 일상 언어로 굳혀졌다.

삼국시대 이래 고려왕조에 이르러 극치를 이룬 연등회와 팔관회는 오늘날 초파일 행사보다 훨씬 성대한 야단법석이었나 보다. 그 양대 행사에는 우리 민족의 전통습속과 불교의례가 맺어지고 여러 토속신령들에 대한 제사와 가무도 곁들여졌다. 이들은 또한 가을의 추수를 천신에 감사하고, 전사한 장병들의 위령제도 겸하며 지신과 수신을 두루 섬겼던 전국적인 종교행사이자 종합적인 문화카니발이었다.

동 시대 중국의 해상활동 관련 문헌과 해양무역의 주무 부서이던 시박사(市舶司)가 남긴 자료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동부 해안선을 따라 명주와 천주 일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아랍계 무슬림 상인들의 대 고려 무역의 흔적이 적잖게 남아있다. 그들에게 고려의 연등회와 팔관회는 가장 큰 '장사 대목'이었다. 그들은 축제 특수품인 초, 향료, 종이는 물론, 고가의 사치품인 비단, 상아, 코뿔소 코, 공작의 깃털, 심지어 앵무새 등 애완동물까지 팔고자 고려 땅으로 몰려들었다. 또 그들이 남긴 항해일지 등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나침반을 이용한 항해가 바로 고려와의 교역 때에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계절풍과 해류를 타고 한반도의 서남해안에 진입한 그들의 무역선단은 대체로 고군산열도 근해부터 고려 함대의 호송을 받으며 예성강 입구부터는 간혹 봉화신호의 야간항해유도까지 받으며 벽란도에 도착한다. 그리곤 개경 인근의 객관에 수개월씩 머물며 큰 장사판을 벌였다. 불가의 야단법석이 국제 경제적 야단법석으로 이어진 샘이다. 다른 한편, 무슬림들의 신앙적 의무이자 필생 소원인 성지순례 핫즈(hajj) 역시 전 세계의 이슬람교도들이 모여드는 야단법석이다. 핫즈의 중심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는 무슬림들의 영성적인 귀착점인 동시에, 그들이 세계 각지에서 이끌고 온 엄청난 지식과 정보, 문화와 물자들의 교류 및 교역 장소였다. 그래서 지금도 '메카'는 중심지 또는 집결지, 그리고 무슬림들이 펼친 '바자'는 간이 장터라는 뜻의 보통명사로 각각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듯 야단법석은 본디 불가에서 유래했으되 독과점 아이템은 아니다. 오늘날 여타 종교들도 운동장 등에서 춤추고 노래도 하는 옥외신앙집회를 펼치는데, 이는 자신들의 믿음과 친목을 다지는 흥겨운 야단법석이다. 머잖아 날씨가 풀리면, 여기저기서 대규모 종교집회들이 벌어질 것이다. 다만 그 야단법석의 신바람이 지나쳐 '사찰이 무너지게 하소서!'라 울부짖는 축생들의 야비규환 동영상 시리즈가 또 다시 지구촌을 떠돌지 않길 바란다. 비록 일부라지만 우리 한민족 형제자매들이 온 세계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게 너무 안쓰럽기 때문이다.

참조 : 宣和奉使高麗圖經, Islam in China(BBC), Crazy Korean Christian Series1-6(Youtube.com), 기타

번안 : 성휴 스님

스리마하보디 원숭이 출몰 비상

23년 전 스리랑카의 타밀 반군의 무차별 공격에도 총알 한발 맞지 않고 무사했던 불교의 성수(聖樹)인 스리마하보디가 이젠 또 다른 위협에 노출되어있다.

2500여 년 전 붓다가 그 아래서 성도한 보리수의 묘목을 스리랑카의 고대 도읍지에 이식, 2300년 동안 국민적 불심과 국가정체성의 상징으로 삼아온 성수 스리마하보디에 최근 엄청나게 증가한 원숭이 무리가 몰려들어 급기야 승려들과 경비용역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불살생의 계율에 따라 원숭이들에게 치명상을 가하는 현대장비를 피하고 종을 치거나 폭죽 등을 터뜨리는 퇴치방식을 쓰는바, 그것이 이 불청객들을 돌려보내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

출처 :AFP

미호지 의문사 안전사고로 종결

영국 버킹검셔 배심원은 2006년 8월 21일 밀턴 케인즈에 소재한 미호지 불교사원에 발생한 의문사사건에 대한 심의종결을 2월 22일 발표, 사망원인이 단순한 안전사고임을 공식 확인했다.

사망 당시까지 50세로 동 사원의 주지로 역임하던 핸더 스님은 사원 경내의 젖은 잔디밭에서 실족, 잔디 깎는 트랙터 아래 깔려 상당한 거리를 끌려 다닌 끝에 난도질을 당한 듯 엽기적인 타살형태의 시체로 발견됐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그 동안 나돌던 종교 테러, 문화적 반감에 의한 타살 가능성, 재산, 치정관계에 얽힌 살해 등 온갖 의혹들이 이번 공식 평결로 인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출처 : BBC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00

명상훈련 도입한 농구코트의 대선사

월드★스타 불심도★스타

필 잭슨 ❶



"먼저 내 마음을 맑고 가지런히 하라."

미국의 NBA 프로농구 경기에서 9회 타이틀 쟁취라는 믿지 못할 기록을 남긴 명 코치이자, 또한 농구코트의 대선사(Great Zen Master)라 불리는 필 잭슨은 이와 같이 말을 잇는다.

"어디로 나아갈 건지 미리 방향을 찾아 헤매지 말라. 먼저 내 마음을 맑고 가지런히 지니라. 그러면 나아갈 방향은 내게 스스로 찾아든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목표라는 욕망을 꾹꾹 채워 넣고 비틀기보다는 오히려 집착을 훌훌 털어내고 마음을 텅 비우라는 얘기다. 1989년부터 1998년까지 파죽지세의 시카고 불즈 팀을 키워낸 필 잭슨은 불교의 참선을 프로농구에 접목시킨 불자로서 미국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위기관리, 조직행태 등 고단위 경영기법과 집단심리 등 관련학계에서 특별 케이스스터디의 대상이기도 하다.

성장배경부터 남들과 크게 다른 그는 1945년 '하나님의 성회'라는 개신교의 목회자로 함께 일하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 댄스도 하지 말라, 영화관도 가지 말라, 텔레비전도 보지 말라는 등 극히 통제적이며 금욕적인 유년기 교육을 거친 그는 고교 때에 처음으로 영화관에 갔고, 댄스란 건 대학에 들어가서야 처음 해볼 수 있었다. 그 부모님의 가정교육은 시대착오적이라 할만치 폐쇄적이었다. 하지만 아들 삼형제는 고행수도승이나 특수부대원처럼 그 지독한 극기 훈련을 잘 복종하고 견뎌냈다.

그들은 자칫 과잉보호로 밀가루반죽처럼 흐느적댈 나이에 엄격한 부모로부터 할 짓과 안할 짓(do's & do-not's)을 가리는 금기의 기준, 그리고 무서운 자기절제의 능력을 터득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강철같이 강한 품성과 곧은 인격을 다져낸 것이다. 역시 그 부모에 그 자식이란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그들은 숨 막힐 듯 답답한 성장환경을 엄청난 양의 독서와 각종 스포츠로써 해소했다. 아마도 그의 부모님은 그들이 억눌린 에너지를 폭발시킬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 분출구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아주 현명하게 서서히 이끌어준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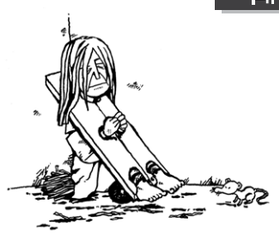
그리하여 책벌레에다 만능 스포츠맨을 겸한 필 잭슨은 고교 때부터 특히 농구에서 발군의 실력을 과시했다. 그리고 이내 노스다코다대학에 스카우트가 된 이후 멋진 현역선수시절을 거쳐 현재는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의 수석코치로 이미 NBA 타이틀 연속3회 쟁취라는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 간다. 참선을 고즈넉한 선원에서 흥분의 도가니인 프로농구경기장으로 옮겨놓은 장본인이 바로 필 잭슨이다. 그는 연못처럼 잔잔한 불교철학을 불꽃 튀기는 삶의 현장에 접목했으며, 또한 참선을 조직 관리에 응용하는데 있어 일대 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를 불교적 리더십(Buddhist Leadership)의 선구자라 일컫기도 한다. 서구인들 중 흔치 않은 완벽한 동양통인 그는 노자의 경세철학에서 일반경영과 인력관리의 이론을 익혔다.

또한 그는 손자의 병법에서 전략과 권모술수를 제대로 배웠으며 제자백가의 담론에도 정통한 학구파다. 게다가 그는 흔히 인디언이라 잘못 부르는 미국토착민의 신앙과 철학에도 전문가적 식견을 지녔다. 그 모두가 회초리를 마다않고 가르치신 부모님의 가없는 은덕이다. 그렇듯 너른 다양성(width)과 심오함(depth)은 유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그 분들의 엄정한 가정교육과 인성관리, 특히 체계적인 독서지도에 의해 일찍부터 그 '기본'이 철저히 다져진 것이다.

이처럼 이미 뛰어난 인간과학의 대가인 필 잭슨이 불교를 통해 새로이 깨우친 건 무엇이며, 또 서구인들에게 참선이란 무엇일까?

성휴 스님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Tomorrow is not real.
The only reality is now
내일은 헛것일 뿐, 지금만이 현실입니다

An unfortunate warrior was captured by his enemies and thrown into prison. That night he was unable to sleep because he feared that the next day he would be interrogated, tortured, and executed. Then the words of his old meditation master came to him, "Tomorrow is not real. It is an illusion. The only reality is now." Pondering these words, the warrior became peaceful and fell asleep, "Yes, Nirvana is here and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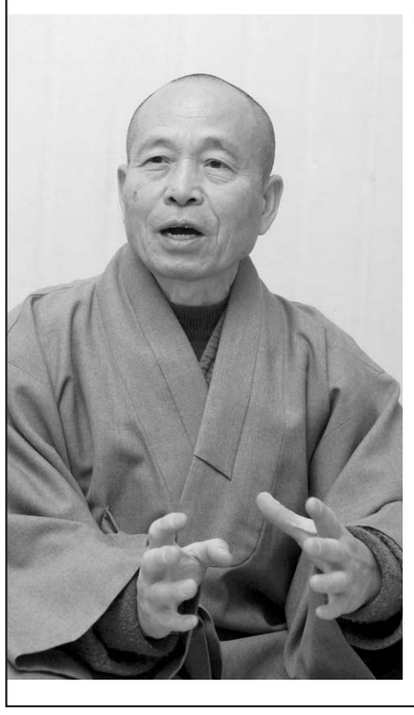
어느 불운한 무사가 적의 포로로 잡혀 감옥에 처박혀졌다. 그날 밤 그는 이튿날이면 심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결국 처형될 거란 생각에 좀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다 문득 언젠가 옛 선사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다. "내일은 헛것이자 눈속임일 뿐, 바로 지금만이 현실이라." 그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던 그는 어느덧 마음 편히 하고 푹 잠이 들었다. "그래, 바로 이 순간 여기가 니르바나인 것을…"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각성큰스님 법을 펴시다!!]

불교강원과정 3기 수강생 모집

부처님법을 만남은 삼천년에 한번 피는 우담바라꽃을 보는것과 같다고 하듯이 경허, 한암, 탄허 큰스님의 법맥을 이으신 각성스님은 팔만대장경의 정수를 막힘없고 완벽하게 강해하신 한국불교천육백년에 핀 동양학의 대 선지식이십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큰스님의 법보시를 받아 불법의 종지를 증득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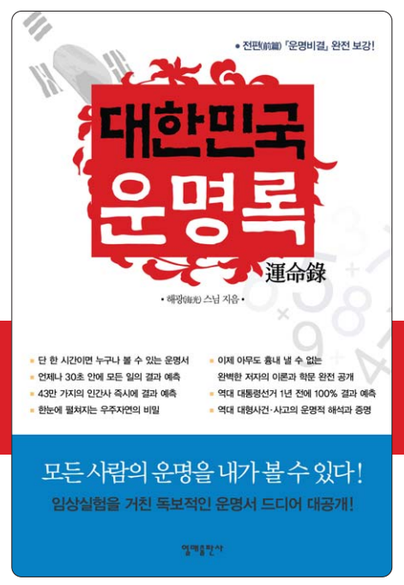


1. 강의과목 : 강원 사교과정 중심
(능엄경, 대승기신론, 유식론, 선가귀감, 반야심경 약소)
※ 현재 선가귀감, 반야심경 약소, 유식론 강의 진행중
2. 교 수 진 : ◆ 원조 각성 큰스님 화엄사(부산) 회주
◆ 서대원 박사(북경대 철학박사)
3. 각성 큰스님약력 :
◆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 등 불교전문강원 강주역임
◆ 동국역강원 역경위원
◆ 강해 저서 〈능가경〉〈능엄경〉〈유식론〉〈구사론〉〈대도직지〉〈대승기신론〉 등 다수
4. 개강일시 : 2008년 3월 15일(토) 오후 3시
5. 강의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6. 제출서류 : 입회원서 1부, 사진 1매
7. 접 수 처 : 보명선원 TEL 02)2273-8484 / FAX 02)2276-0108
011-757-9847 / 011-9021-1680

[재가불자들의 탁마수행도량]

보 명 선 원

서울 종로구 종로5가 182-7 대화빌딩 5층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5번출구 10M전방 첫 우측골목)





과학적으로 證明된 정확한 논리와 臨床을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학 역학계에 돌풍을 일으킨
경악과 충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 서적구입 문의 032)665-8472
교보문고,전국대형서점,불교서적

전수생 모집
· 스님이나 불자로서 포교원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할분
· 해광스님 직강
· 문의 : 010-3730-5247

일 반 상 담
· 해광스님의 운명 상담을 원하는 분은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 예약문의 : 032)665-8472

금강禪院 · 금강불교대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3-7 인터넷 다음에 〈금강선원 해광스님〉



각성 스님은 1938년 전남 장성 출생. 한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여덟 살부터 한학을 배웠다. 18세인 1955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탄허·운허·관응 등 당대 선지식들로부터 경학을 익혔다. 영천 은해사를 시작으로 50여 년 동안 부산 화엄사, 보명선원, 조계사 등에서 쉽고 재미있는 정통 원전 강의로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아왔다. 강해 저서로는 <능가경> <능엄경> <구사론> <대승기신론> 등이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보명선원에서 <유식론> <선가귀감> <아미타경> <무량수경> 등을 강의 중이다. (02) 2273-8484

“님 그리워하는 것 보다 지극히 염불하세요”

선지식을 찾아서

각성 스님 (부산 화엄사 회주)

경전 공부는 글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
경·병·약 담긴 주머니 세 개가 재산의 전부

간화선 생활화의 시대. 육근·육경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가 일체, 나와 남이 왜 같고 다른지도 모르면서 부처되겠다고 가부좌 틀고 앉는 사람이 부쩍 늘은 요즘이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앉아만 있다 해서 부처가 될 수 있을까? <화엄경><금강경> 등 팔만사천법문을 갖고 50여년 동안 정법안장을 꿰뚫는 강의로 정평이 나있는 각성 스님(부산 화엄사 회주)에게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등을 물었다.

“선과 교가 모두 부처님의 도입니다. 특히 교는 선을 알기 전 기초지식으로 반드시 필요하지요. 또 염불은 누구나 쉽게 도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평생 글공부에 매진했던 경학자가 난데없이 염불을 권했다. “<화엄경>에도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모두 친견한 후 문수보살을 친견했을 때 십대원왕(十大願往)으로 극락세계에 왕생하도록 가르치지 않았는가”라고 말한 스님은 화엄학 대가로 알려진 자신이 염불을 권하는 것이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스님이 염불을 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말세 중생은 염불을 해야 성불이 빠릅니다. 참선은 상근기가 수행하기 좋은 것이지만, 상근기·하근기 모두 성불하기 가장 좋은 방편은 바로 염불이지요.”

많은 염불법 가운데 각성 스님이 권하는 염불법이 따로 있는지 물었다. “상근기는 나무아미타불을 송하지 않더라도 쉼 없이 염하면 되고, 하근기는 나무아미타불 염송을 함께 하면 됩니다. 재가자는 염주를 돌리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송하는 것이 염불을 가까이 하기 쉬운 방법이겠지요.” 염불에만 정신 집중하다보면 염불삼매에 이르고 현생에 극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스님의 말씀이다.

“<정토삼부경>에 한번만 진심으로 염해도 극락세계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염불로 삼매에 이르면 내가 부처가 되고, 내 몸이 바로 극락세계가 됩니다. <화엄경>에서 ‘한 티끌이 그 안에 온 우주를 머금었다(一微塵中含十方)’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를 돕는 설명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것도 바쁘다며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일까? 스님은 “바쁜 일상에 염불하기 어려우면 잠자리에 들기 전과 후라도 잠시만 짬을 내 서쪽을 향해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 10번만 염송하면 된다”고 말했다. 각성 스님은 “다만 그리운 임, 부모님을 그리는 것보다 더 지극한 마음으로 언제 어느 순간에도 아미타불 모습을 떠올려야 한다”며 염불행자의 마음가짐을 당부했다.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自他不二)가 말과 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염불을 통해 아미타불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한다는 각성 스님. 스님은 마음이 곧 극락정토라는 유심정토(唯心淨土)나 자성이 곧 아미타불이라는 자성미타(自性彌陀)라고 말했다. 결국 각성 스님이 말하는 깨달음이란 주관과 객관이 동시에 사라진 상태다.

각성 스님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점점 궁금해졌다. 스님은 한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8세부터 <사서삼경> 등을 공부했다. 그 덕에 출가 후 한문 경전을 보는데 남보다 빨랐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도원 율사를 은사로 출가한 18세 때, 다른 출가자처럼 참선부터 시작했다. 참선도 뭔가 알고 해야겠다 싶어 강원에 가서 탄허·운허·관응 스님 등 고명한 선지식에게 경학을 공부했고, 그것이 평생 경전 공부하는 큰 밑천이 됐다. 강원과정 후 사교입선(捨敎入禪)에 목적을 두고 선수행에 전념하기도 했다. 4·19 직후 영천 은해사에 강원이 설립되면서 이후 6년여를 은해사에서 강주로 살았다. 한번 강주로 이름을 내니 이후에도 통도사, 범어사 등 여러 곳에서 강주로 살게 됐다. 스님은 “실참을 하고 싶었지만 강의를 하는 것도 부처님 법을 펼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후부터 큰 거부감 없이 교학에 매진했다”며 “글로만 푸는 경우가 안타깝다. 경전을 제대로 보려면 우선 마음공부가 돼야 하고,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금강경> 사구게를 예로 들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凡所有相 皆是虛妄)’는 것을 두고 현실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공(我空), 법공(法空), 구공(俱空) 삼공의 도리를 아는 것이 바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바로 여래를 본다(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는 구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마라집역과는 달리 범본에는 ‘제상과 비상을 보면 여래를 본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님도 공부할 때 많은 장애가 왔다고 했다. “제게는 세 개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경전 공부한 경주머니와 심신을 괴롭혔던 병주머니, 약주머니가 제가 가진 세 개의 주머니지요.” 하지만 스님은 이를 장애로 여기지 않는다. “원치 않아도 평생 차고 다녔던 병 주머니, 약주머니지만 조금도 원망 않습니다. 병고로 양약을 삼으라는 <보왕삼매론> 구절처럼 몸이 불편한 덕분에 시간 귀한 줄 알게 됐습니다. 그 덕에 분심을 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한의학 등에 조예도 넓힐 수 있었지요.” 평생 병주머니, 약주머니를 대한 스님의 마음자세였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경주머니를 놓지 않았던 각성 스님이 체득한 공 도리는 어땠을까? 스님은 사미계 수지 후 유가사 도성암에서 공부할 때 은사스님에게 ‘옴마니반메훔’ 진언을 항상 수지독송 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은사스님의 가르침대로 낮이고 밤이고 진언을 갖고 용맹정진했습니다. 얼마가 됐을까요? 진언 수행을 하니 세상 이후의 기억이 모두 또렷해졌습니다. 사람이 올 것을 미리 안다던가 하는 약간의 신통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진했지만 머릿속에는 육자주가 염주처럼 쉬지 않고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육근이 없다는데 이것도 없애야겠다 싶었습니다. 육자주까지 버려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 순간 나도 세계도 우주공간도 없음을 체험했지요.”

그 순간에 대해 스님은 “평소 <반야심경>의 ‘무안이비설신의’라는 구절에 의문이 있었는데 순간 그런 의심들이 모두 해소됐다. 모두 놓아버려야겠다고 생각한 그 순간 주관과 객관을 모두 여읜 공을 체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후 스님에게는 <금강경> <대승기신론> 등 경전이 새롭게 보이며 이해가 잘됐다고 한다. 이것을 두고 각성 스님은 “<능엄경>에 내적으로 몸과 마음을 벗어나고, 외적으로 세계도 벗어난 것이 마치 새가 새장을 벗어난 것과 같다고 한 것이나, <대승기신론>에 모든 육진 경계가 마음에 의해 생기고, 마음을 떠나면 없다고 한 공의 도리를 체득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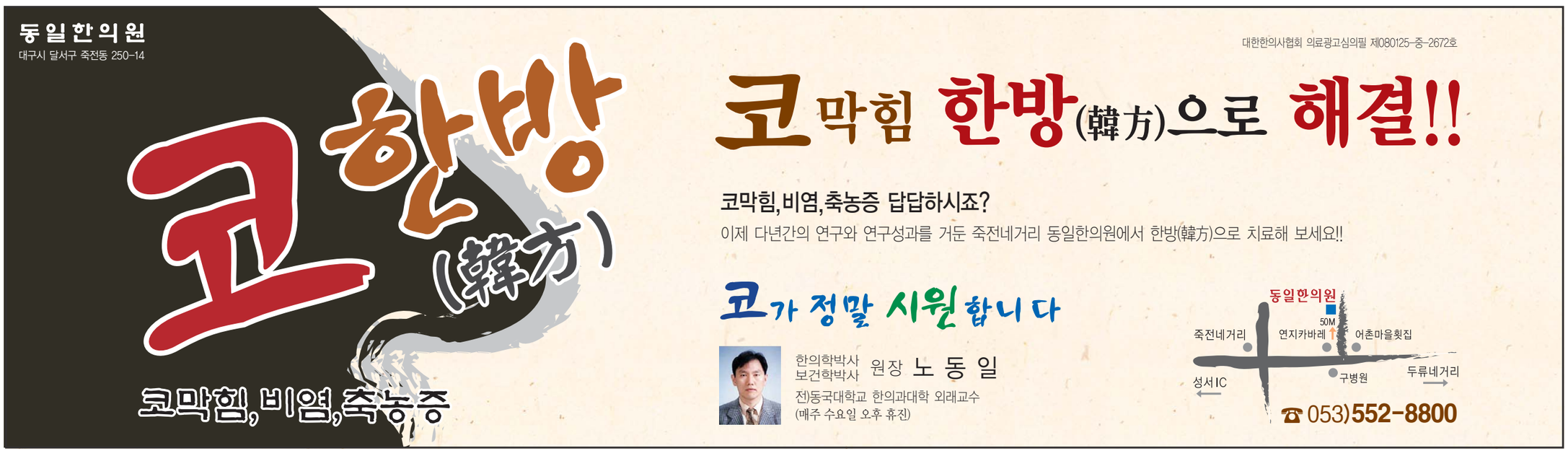
“지금도 가슴 한 켠에 불보살은 수백겁 무진장 설법을 하신다는 말로 경책을 삼고 있다”는 스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모두 중생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전 통일호 침대칸에 몸을 싣고 밤새 기차를 타고 다녀도 힘든 줄 몰랐는데, 요즘은 KTX로 3시간도 못돼 도착해도 힘이 드네요. 글공부가 깊고 도가 무르익어도 육체가 노쇠하는 섭리는 막지 못합니다. 이젠 목숨이 다하는 순간에도 아미타불을 염해 극락왕생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경전 공부한 스님이 무엇 때문에 극락왕생을 바라는 것일까? “젊어서는 즉신성불 하겠다고 기고만장했지만, 경전 공부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은데 몸은 노쇠했으니 극락왕생해서 못다한 공부를 계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 때 가더라도 주워 담은 경주머니는 다 비우고 가야한다”며 강의시간에 맞춰 스님은 자리를 떠났다. 자타불이(自他不二), 유심정토(唯心淨土), 자성미타(自性彌陀)를 말씀했던 스님은 아미타불의 화신이었고, 스님과의 법석은 극락정토였다.

글·사진=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각성





“무주상 교육이 행복의 지름길”

데스크 초대석

한국교원大 박배훈 前 총장

2월 28일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이취임식장은 겉보기엔 여느 대학의 총장 이취임식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었다. 떠나는 제7대 박배훈 총장의 이임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참석한 행사에서 이임사가 생략된 이유, 떠나는 총장의 마음을 담은 노래 두 곡이 그 답이었다. 박배훈 총장이 직접 작시를 하고 촉망받는 소장 작곡가 고영신 교수(교원대)가 작곡한 ‘연화’와 ‘유심무심’이란 노래가 이임식 시간에 젊은 성악가 양보람씨와 이동혁씨에 의해 불려졌다. 반주를 맡은 피아니스트 황경아씨는 박배훈 총장의 둘째 며느리. 두 곡의 노래에는 박배훈 총장의 인생관과 불교에 대한 사유의 깊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4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순간을 그렇게 ‘멋스럽게’ 장식한 박배훈 총장. 총장이라는 짐을 벗고 나서 “일주일간 잠을 실컷 잤다”는 말로 소회를 대신했다. 엘리트 교육자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한국교원대학교는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를 한 자리에서 길러내는 국내 유일의 대학이다. 또 해마다 2000여 명이 교장연수를 받는 곳이다. 학부재학생 수는 2500명인데 대학원 재학생 수는 3500명이고 대부분이 현직교사다. 그 가운데 1000명의 대학원생은 교육파견을 나와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교육인재들. 박배훈 총장은 교육자 양성과 교육학 연구의 요람인 한국교원대학에서 총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양하게 응용하여 ‘무주상 교육’을 강조했다. 이제 연구실로 돌아와 “내가 머물렀던 곳에 많은 향기를 남겼나?”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에게 받은 법명 ‘영명(永明)’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수학박사 박배훈 교수를 만났다.

교육의 궁극 목적은 ‘보이지 않는 진리’ 가르치는 것
타인에 동화되고 소통하는 ‘0’ 같은 삶의 자세 필요

-우선 불교와 인연 맺으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경상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때 순천 송광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함께 근무하던 곽종형 교수가 불일회 회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뵈었는데 두어 시간 동안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을 들려 주셨어요. 주로 ‘유식’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나에게는 뭔가 와 닿았거든요. 그 다음해엔가 해인사 원당암에서 혜암 스님(조계종 前 종정)도 뵈었는데 인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 역시 제 가슴에 큰 가르침으로 각인 되었습니다. 그 뒤로 불교 서적을 읽기 시작했고 나름대로 불자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년에는 큰스님들을 여러분 찾아뵈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지관 스님을 찾아뵙고 격려를 받았고 종정이신 법전 스님에게는 여러 서적과 법명 그리고 화두까지 받았어요. 영명(永明)이란 이름을 주시며 그 뜻을 두고두고 새기라 하셨고 ‘무(無)’자 화두를 주시며 이제 참선에 매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수행하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글쎄요. 수행이라는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새 16년째 매일아침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업진언’으로 시작해서 108예참을 송하며 절을 하고 <천수경> <반야심경> 독송 불보살님의 명호와 광명진언 등 각종 진언 암송 등으로 이어지는 아침예불이 수행이라면 수행입니다. 나는 살면서 세 가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는 ‘하늘과의 약속’인데 어릴 때 어른들이 어머님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신다고 걱정하실 때 나는 하늘을 우러러 “우리 엄마가 이번에 일어서시면 75세까지 사실 수 있도록 잘 모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어린 마음에 한 약속이 지켜져 어머님은 77세에 타계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어머니와의 약속’인데 어머니께서 평생 술과 닭고기를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아내와의 약속’으로 바로 108배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무릎과 손가락 어깨 등 관절이 좋지 않은데다가 혈당마저 높았는데 아내가 108배를 하라고 권유했고 나는 힘이 있는 동안은 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로부터 108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님에 대한 정성이 참으로 지극하십니다.

누군들 부모님께 잘 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어머님은 생전에 늘 “사람살기 8모다”라고 하셨어요. 8모는 8방(方) 다시말해 여덟 가지의 방향을 말하는데 사람이 사는 것에는 절대적인 한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바로 집착하지 않는 삶을 강조하신 겁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대단히 크게 여기며 살고 있어요.

-오늘날 사회적으로 교사들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식층이 교사들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 구성원 대부분의 지식수준이 높아졌고 그로인해 교사들을 보는 시각이 대등해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한국교원대학의 설립 취지도 바로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트 교육자 양성과 교육학의 질적 향상 등을 함께 연구하는 겁니다. 교육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면 정말 희망이 없어집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그 희망을 길러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주상(無住相) 교육’을 강조하시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금강경>에서 무주상 보시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나는 교육도 무주상이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친다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배우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린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 가르친다는 행위에 대한 집착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하나는 교육의 궁극이 바로 무주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있는 것에서 만족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 말입니다. 불교의 중도 사상이 치우침이 없는 절대 가치를 말하듯이 교육자의 궁극도 집착하고 치우치는 것 보다는 그것을 벗어나는 지혜를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0의 삶’을 강조합니다. 숫자에서 ‘0’은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깊은 명상의 결과입니다. ‘0’은 어떤 수에 더하거나 빼도 그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자기를 주장하는 것보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자연도 있는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더하고 빼도 타자(他者)가 그대로일 수 있도록 자기를 ‘0’의 존재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또 ‘0’은 어떤 수에 곱하든 그 수를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나를 타자에게 완전하게 동화시키라는 겁니다. 남을 무한히 포용하고 관용하는 자세 말입니다. 나누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는 수가 적을수록 몫은 커지잖아요? 성립되는 등식은 아니지만 ‘0’으로 나누면 그 몫은 본래의 수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0’과 같은 존재로 타인과 자연과 사회와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0’의 삶은 불교의 보살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교와 수학에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불교는 고(苦)의 해결을 말하고 수학은 ‘문제’의 해결을 말합니다. 불교에서의 고가 하나의 증상이라면 그것은 집(執)에서 비롯되지요. 그리고 고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의 멸(滅)이 제시되고 멸을 이룬 상황을 도(道)라 합니다. 해결되었다는 것이지요.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苦) 그 문제를 이해하려 애쓰며(執) 해결 방안을 모색(滅)하지요. 문제가 해결되면 검증을 하고 응용을 합니다(道). 12연기도 결국은 인(因)과 연(緣)의 문제인데 수학도 관계의 규명작업이거든요. 다만, 수학은 규칙적인 관계에 대한 규명을 다루고 불교에서는 불규칙적인 관계는 물론 관계 자체로부터의 해탈을 궁극으로 삼는 큰 차이가 있기도 하지요.

-교육자로서 후배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앞에서 교육의 근본적인 방법과 목적을 ‘무주상 교육’이란 말로 설명했습니다만, 그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행복’입니다.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듯 교육도 행복의 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돈 권력 명예 같은 있음의 세계에서 추구되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그 고요함과 적정(寂靜)을 생각해 봅시다. 그 순간에는 어떤 근심도 계산도 없이 그저 평안하고 고요할 뿐입니다. 결국 무주상의 경지에서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거기 이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건강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목표들을 성취해 나가는 정진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모든 소원과 목표들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망과 절망을 이기는 법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모두 ‘무주상 교육’을 이뤄 나가는 길이고, 온 국민 나아가 전 세계 인류가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글·사진=임연태 부국장 mian1@hanmail.net

금강선원 첫 서리맞은 뽕잎차

본 차는 합천댐에서 가까운 천연 무공해의 지역 유잠산(有蠶山) 자락에 위치한 금강선원에서 스님께서 직접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다방식인 구증구포의 방법으로 아홉 번을 찌고 비비고 말리고, 마지막 덖음 공정까지 참선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차입니다.

스님께서는 수행하시면서 속이 냉하고 설사 등 오장육부가 안좋아 자연스럽게 불가전통 비법으로 뽕잎차를 만들어 드시며 뽕잎차의 효능을 직접 체험 하시던 중 그 맛에 탄복한 주위 분 들의 권유로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뽕잎차를 인연있는 분들과 함께하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지스님 및 수행하시는 스님들께서 몸이 냉하거나, 당뇨, 체질순환이 잘 안되는경우 장복하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오장 육부가 좋아지는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본 차는 몸이 안좋은재가자 선물용으로 적합하며, 스님들께는 최고의 대중공양이 될 것입니다.

뽕잎차의 수익금은 선원불사와 법당불사에 회향하오니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구증구포뽕잎차는 맛과 향이 뛰어나 가족 모두가 마실 수 있는 건강 약차입니다.

당뇨, 혈압, 중풍(뇌졸증), 동맥경화 등 예방



■ 초심차(初心茶) : 50,000원
뽕잎을 쪄서 말리고 또 찌고 말리고를 아홉번. 이것이 구증구포 바로 금강선원의 초심차 입니다.
선원주변에 맑은 공기와 기름진 토양에서 자라난 뽕나무로 부터 채취된 뽕잎을 재료로 하고 있어 무기질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뽕잎을 씻고 찌는 물은 청정한 맥반석 지하수를 다시 한번 자화육각수로 정화하여 사용하므로 차를 우려냈을 때 더 깊은 맛과 깨끗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 발심차(發心茶) : 70,000원 (첫 서리맞은 뽕잎차)
11월초에 첫 서리맞은 뽕잎을 채취하여 발심차(첫서리 맞은 뽕잎차)가 나오기까지 2달 가까이 걸립니다.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겨울의 길목에서 청정한 산속에 들어가 첫서리 맞은 싱싱한 뽕나무잎을 따서 곱게 썰어 찌고 그늘에 말리기를 9번을 하여 맛을 낸 것입니다. 특히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감기에 대한 면역력이 강해지고 혈압을 떨어뜨려 혈당을 강하시키고 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금 강 선 원
www.ggzen.or.kr
구입문의 : 055)931-9590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 행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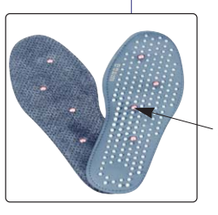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최고의 선물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특무명


지압깔창
발명특허 제10-0806337호
• 가격 : 10,000원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인디넷 필름자리

영국에 풍요 안겨준 '황금의 술' 실론 차

茶와 불교를 찾아 떠난 스리랑카 ②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박동춘 소장



무릉가 나무가 있는 차밭. 낮은 차나무 사이에 시원시원한 큰 키는 차밭의 공간미에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더한다.

스리랑카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계절이라는 1월이지만 한낮의 기온은 무려 30도를 넘나든다. 아침저녁 살랑대는 서늘함도 잠시, 해만 뜨면 한 여름처럼 땀이 난다. 천장에 높이 달린 선풍기가 졸음이 덜 깬 사람처럼 설렁대지만 더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다. 가장 무더운 4월에는 무려 40도를 넘는단다.

더위야 어떻든 구수하고 향기로운 카레 냄새는 스와띳까아가 만드는 맛있는 음식에서 나는 기분 좋은 냄새다. 임 선생 댁의 주방장격인 여인은 자신이 만든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간혹 주방에서 마주치면 음식은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느니, 이것은 어디에 좋다느니, 장황한 설명이 이어지지만 결코 싫지 않다. 그녀는 아침마다 부처님께 꽃을 올린다. 태생적이고도 절대적인 신앙심이 몸에 밴 것이다. 그녀의 이 마음은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는 묘한 힘이 있다.

다음 날, 우리는 콜롬보를 떠나 왓덴가마에 있는 후나스로 떠났다. 콜롬보에서 캔디로, 캔디에서도 네 시간 반이나 차를 타야한다니 무려 여덟 시간은 족히 소요되는 먼 곳이다. 더구나 콜롬보에서 캔디로 가는 길은 영국 사람들이 19세기 커피를 운송하기 위해 만든 우마차길로, 커피와 홍차가 쉴 새 없이 운송되던 역사적인 길이라니 감회가 새롭다. 이 길을 지났을 많은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위해 길을 지났으며, 나는 또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때로는 우마차로, 때로는 해진 신발을 신고서 지났을 이 길을 지금은 자동차로 지난다.

그 뿐인가. 이 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개통된 고속도로란다. 하지만 지금의 이 길은 옛 길이 아니다. 오히려 어설프다 못해 실밥이 풀린 해진 옷처럼 허술하기 짝이 없다. 간간히 도로를 넓힐 셈인지, 아스팔트포장길 가장자리를 붉은 황토로 다지는 공사가 한창이다. 다져진 붉은 황토 길과 검은 아스팔트 도로가 대조적인 색조로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옛날에도 길을 따라 늘어선 야자나무, 물이 고인 늪지엔 어김없이 보라색 수련과 하얀 수련이 피어 있었을 터. 잠시 차를 세우고 언뜻 스칠 꽃향기를 기대했지만 꽃 향은 불전에 공양을 준비하는지 미동조차 없다.

이러 저러한 풍경을 뒤로 하고 도착한 후나스폴호텔. 한때 영국인의 피서용 방갈로가 있던 곳이지만 지금은 방갈로를 개조해 호텔로 쓰고 있다. 아기자기한 작은 규모의 호텔로 천혜의 자연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좌청룡 우백호를 완벽하게 구비한 지세와 안산 격인 앞산의 크고 작은 준령은 편안하고 후덕해 보인다. 무려 1400m이상 고지에 위치해 있으니 천상에서 세상을 내려 보는 듯 발아래 펼쳐진 아침 운해, 이곳은 분명 별천지다. 낮은 기온 탓인지 밤사이 내린 이슬이 보석처럼 영롱하다.



초기 영국인들이 만든 방갈로. 휴식을 위한 공간이면서 차밭을 관리하던 곳으로 전형적인 고지대 차밭이다.



건조하기 위해 널어놓은 커피콩들. 커피는 한때 스리랑카의 보물이기도 했다.

> 해발 1700미터 고산지 대규모 차밭 즐비
> 차나무 사이 무릉가나무 그늘·영양분 공급

이 호텔 주변에는 사방어디에나 영국인들이 조성한 대규모 차밭이 있다. 해발 1700m에 자리한 고지대 차산지, 바위 사이에 자라는 차나무는 건실하다 못해 기름을 친 듯 번들거린다. 건너편 산등성이까지 온통 차밭이니 차밭 속에 호텔이 있는 셈이다. 듬성듬성 차나무 사이에 심은 무릉가나무가 그늘과 영양분, 물을 공급해 준다. 키 큰 무릉가나무 때문인지 제법 운치가 있다. 푸른 차밭 사이로 차를 따는 파밀 여인들의 모습이 멀리서 보는 그림처럼 가물거린다. 이곳에서 후나스 차가 생산된다는데 초입에 있던 차 공장은 한산해 보였다.

최근 만들어진 캔디 지역의 어설픈 저지대 차밭과는 대조를 이루는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고지대 차산지인 후나스, 캔디, 누와라엘리야, 하뿌딸레, 수리야칸다는 어디에나 영국인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 잘 관리된 차밭이 그렇고, 아무리 높은 곳에 위치한 차밭이라도 차를 운송하기 위한 도로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어디를 보아도 허술한 구석이 없다.

결론적인 말이지만 스리랑카에 차를 옮겨 심은 것은 영국인들이었다. 그들은 많은 실험과 노력을 통해 스리랑카의 실론 차를 만들었으며, 홍차라는 색다르고도 새로운 차의 신기원을 열었다. 홍차는 영국인 일상생활에 더없이 좋은 변화와 풍요한 부를 가져왔다. '황금의 술'이란 홍차의 별호는 딤불라, 우와, 누와라엘리야 지방의 농장주들이 만들어낸 말이다. 그들에게 부를 안겨준 신비한 오렌지빛 차는 밭에서 나는 황금이었다.

홍차의 성공은 기실 1842년 커피산업이 몰락한 후 람보다 지역에 차나무 재배를 시도한 메슬리와 웸스의 실험정신이 실마리를 열었다. 이후 '차밭에서 직접 찻잔으로'라는 슬로건을 내 건 립톤 회사가 실론 차의 명성을 세계에 알렸으며, 립톤 티백을 만들어 홍차를 언제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대중 음료로 성장시켰다. 립톤이 이곳에 머무르며 차를 연구하고 사업을 구상하던 남부 구릉지대인 데니야야 고원 남쪽 1960m에 지금도 '립톤의 휴식처'라는 곳이 남아 있다.

이러한 홍차산업의 발달은 커피산업의 몰락 이후이다. 처음 스리랑카를 차지한 영국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커피재배였다. 스리랑카에서 커피가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825년 조지버드라는 영국인의 감뽈라 농장이며 캔디와 누와라엘리야 사이에 있었다. 후일 커피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재배되었고, 대단위 커피 농장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났다. 특히 그로체스터의 유명한 바텐더 존 웨슬리와 그의 조수 화이트 필드가 커피를 대중음료의 반열에 올려놓은 이후, 유럽 사람들에게 커피는 황금을 안겨주는 보물처럼 인식되었다.

스리랑카의 6대 총독이던 에드워즈 번즈는 그의 부하 스키너 대령에게 캔디에서 누와라엘리야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을 지시, 대량으로 생산된 커피를 운송할 도로를 만들게 했다. 이 길은 수많은 스리랑카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고통이 만들어 낸 아픈 역사의 길이었지만 영국인들에게는 황금을 안겨 주는 길이기도 하였다. 늘 이러한 역사의 인과는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이 길을 지나며 느낀 참담한 마음은 무엇 때문인가.

한편 스리랑카에 커피 재배가 기후와 맞지 않다는 것을 주장한 것은 식물학자였던 투아이테스 박사다. 그는 찰스 다윈과 절친한 친구이기도 한 인물로 5대 총독인 그레고리 총독에게 붉은 버섯 균이 창궐할 것이며, 결국 버섯 균은 커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나무가 폐사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비판자라고 비난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는 커피 재배에 손을 떼고 식물원 일에 매진해 커피 대신 심을 수 있는 작물로 기나나무와 차나무를 권장했다. 얼마 후 그의 경고는 현실로 나타났고, 많은 커피 재배 농장은 몰락하고 말았다. 지금도 스리랑카 어디에서나 쉽게 커피나무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리랑카에서는 길가에 널어놓은 커피콩을 종종 볼 수 있다. <계속>

> 홍차의 발전은 커피산업 몰락 이후
> 기후 맞춰 대체한 차나무에서 비롯

육경신도통으로 생로병사를 다스리는 천하대도를 얻어 도통군자 일류스승되어 천하를 다스리는 운수 대통 및 타심통 용맹정진 대법회

생명의 근본은 태식에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 해탈법은 경신 도통에 있느니라.

● 경신수행으로 심신의 번뇌를 벗고 새로운 정신세계를 창조하여 막힌 운명을 찾아 도통하여 미래를 창출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다스리는 수행정진으로 초능력자 일류 스승으로 살아가는 장수 비법과 건강의 주인공 되소서.

진인도통군자 제위 귀하를 타심통 대법회에 초대합니다. 삼라만상 생명의 근본은 마음자리이고, 마음자리의 근본은 心의 근본인 자시와 오시에 생명의 점안을 하는 날이 경신일인 것이고, 부처님을 모셔도 점안을 하여야 사불이 안되듯이 우리 수행자들도 경신일날 타심통과 마음의 점안을 안하면 견성성불이나 견성득도가 되지 않고 허성세월을 하다가 사람 몸받은 도리를 못한채 한생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경신도통법은 지구탄생과 더불어 사람에게만 하늘에서 내려주신 도법으로 만세에도 가벼히 전하지 않고 천고에도 전하지 않았던 하늘과 땅에 감춰진 것을 금년 무자년부터 천년이 시작되므로 천용진인태일대사는 만천하에 전하는 바 이오며 경신도법에 전하는 것은 후천대도는 인간의 득도에 따라 **천도는 드러나지 않게 전하며 지도는 움직이나 멸하지 않게 전하는 것이며 인도는 그 사람 그 자리가 아니고는 기국이나 인품이 아닌 자에게는 전하지 말지니라.** 특히 욕심이나 빨리 배우고 사용하여 이득이나 취하고 영리를 취하는 자에게는 삼가할 지어다.

● 경신도통이란?? 자신의 주인공을 찾는 참선인 것이고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법이며 운을 받아도 안되고 치료해도 안되는 관절과 수족, 중풍,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재하는 수행법인 것이다.

수행자는 경신도통을 하여야만이 무불도통으로 초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전생빙의와 해리로 고통받고 중음신과 삼시구충으로 육신의병, 정신의 병, 잡신과 귀신에 빙의제도법 특별 기도인 것이다.

◆신장과 귀속들을 부려 말문과 글문과 도통군자들과 영통능력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 태을경과 옥주경 주문으로 신장 귀속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다를 수 있는 특별비법인 것이다.

육경신 기도 중 이번 타심통 법회에는 고시에 자신이 없거나 사대가 불편하고 심신으로 고생하며 수족이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즉시 혜원상생 도통하는 건강,특별 기도 성취하는 타심통 기도인 것이다.

心 부처님 열반 7일전에 보현보살에게 부처님께서 비전으로 이어진 부자되고 견성하여 불법을 지키는 비밀의 주문송의 비밀장을 그대는 아시는가. 돈부주문송을 드리며 타심통 법회에 혜명을 득도하는 비법인 진법을 도통군자들에게 참된여래의 종자와 주인공인 나를 감추고 있는 으뜸가는 관문인 혜명과 성품이 갈라져있는 참법을 즉시 도통견성하여 영통능력과 말문을 열어 혜명과 성품이 둘로 갈라져 혜명은 성품 즉 마음자리를 볼 수 없이 육신만 자라면서 성장하자마자 늙고 병들어 제육신하나 관리 못하는 모든수행자들에게 특별 경신수행으로 신선이나 도인이되어 만천하를 제도하며 천하제일의 견성도통 심령도통 광명도통, 말문도통으로 하늘의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만법을 얻어 만중생을 제도하는 경신도통군자 되소서.



삼재팔난 일체고액을 소멸하고 운수대통 하는 달마 구입처 : 02)821-6622/016-239-3119

◆제 2도장 태양의 집 - 도인과 진인을 창출하는 천하 도통 명당 수행지 계룡명당, 봉황산, 계두봉, 서출동유, 지장수 명지, 비산비야, 비승비속 **진인 출현지에 동방의 찬란한 빛이 비춰는 곳 - 정신, 심신, 육신의 수행도량 이곳의 지장수인 청정수를 마시어 고혈압, 당뇨, 살이 빠지고 오장육보가 편해지는 곳.**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259번지 ☎ 041)867-7763 명제스님

세계불교달마종 육경신 도통회 제2도장 태양의집

● 입제 : 양력 2008년 3월 20일(음, 2월 13일 일)(해시)
● 해제 : 양력 2008년 3월 21일(음, 2월 14일 월)(해시)
02-821-6622 , 821-7767, 016-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한영)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 출구 → 버스로 환승 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버스 6513, 6514, 5711, 461,153 이용)

웅조달마 경신도통회
세계불교 달마종 총본산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

담보내용

구분	화 재	화 재	상 해
기본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가입 및 상담 문의 011-648-1203 / 010-9996-7700 동부화재 서일석(無着)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6호



욕심 줄이고 열린 마음으로 살기

〈나를 깨우는 108배〉 펴낸 불교TV 구본일 대표

'절'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KBS 생로병사의 비밀'과 'SBS 스페셜'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최근 대중의 관심을 부쩍 끌고 있다. 108배는 하루 20분 정도만 투자하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등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108배의 의미와 효과, 방법과 실천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나를 깨우는 108배〉가 책과 함께 DVD와 CD로 출시됐다. 저자는 구본일(56) 불교TV 대표다. 구 대표에게 책을 쓴 취지와 '절 수행'의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이 책에는 절을 잘하는 방법 같은 것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절의 의미와 효과, 방법, 실천 체험 등 108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책에다 참회와 감사 및 발원을 담은 참회문을 경전에서 가려 뽑아 108번의 절에 맞춰 가슴에 새기도록 정리했습니다.

참회문은 60가지의 '참회'와 20가지의 '감사', 28가지의 '발원(發願)' 등 108개 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변 사람과 환경에 대해 지은 죄를 참회하는 내용은 물론 범위를 넓혀 우주만물에 대한 내용까지도 담았습니다.

소설가 정찬주씨가 해설을 해 주었고, 108배를 통해 변화를 느낀 가톨릭 경산성당 정홍규 신부와 소설가 한승원 등의 체험담도 들어 있습니다. 참회문은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영진 스님이 독송을 해 주셨는데 들어본 독자들이 마음이 차분해져서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책을 읽다보면 '절'을 수행법 보다는 수련법으로 소개한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절'이란 무엇인가요?

–'절'은 나를 낮추면서 상대의 행복을 비는 동작으로 스트레스에 찌든 현대인들이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치유할 수 있는 건강 유지법입니다. 108배를 하다 보면 분노, 스트레스 등이 사라지고, 인내심과 집중력이 높아지는 등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절'을 하면 '하심(下心)' 할 수가 있어 좋습니다. 하심 하게 되면 타인과 다툼이 없어지고 무욕의 경지에 이르게 되며 항상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박범훈 중앙대 총장께서는 108배를 참회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새 정부가 출범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은 전 국민이 하심하고 겸손해 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과거 10년 전에 비해 몇 배씩 성장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오히려 그렇지 못합니다.

이에 오만과 아집에 사로잡혀 양극화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절'을 하게 되면 누구나 마음이 차분해 집니다. 갈등도 사라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 효과가 많은 '절'을 일반인들이 손쉽게 하고 매일 습관을 들이게 하기 위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책을 낼 욕심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불교TV에서 방송용으로 제작해 방송으로 내보냈지요.

그런데 그것을 본 시청자들이 내용이 좋다고 원고를 구할 수 없느냐는 문의가 많아 고민을 했습니다. 박은주 김영사 사장에게 이런 사정을 말했더니 즉석에서 좋다고 해 2월 한달 동안 만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DVD와 CD까지 만든 이유는 무엇 인가요?

–지금은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어떤 매체든지 5초안에 수요층을 흡수하지 않으면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초스피드 시대입니다.

각 사찰에서 절을 하고 있는 스님과 불자들의 절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편집해 놓아 집에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반들과 함께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시각적인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혼자 하면 자칫 지루할 수 있지만 영상을 틀어놓고 하면 법당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수행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구 대표님도 절을 하시는지요? 한다면 어떤 효과를 체험하셨는지요.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한지 15년 정도가 됐습니다. 몸이 아플 때 빼놓고는 거의 매일 108배를 합니다. 하다 보니 정말 생활의 변화가 많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주변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즐겁고 행복합니다.

또한 욕심을 줄일 수 있게 돼 부려야 할 욕심과 부려서는 안 될 과욕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는 것도 변화중 하나입니다.

절을 한다고 사람의 근본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열리게 돼 모든 사물의 근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108배 하는 습관을 들여 보시길 권합니다.

글=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4	공부하다 죽어라	현각 외	조화로운 삶
5	맑고 밝은 마음(백팔배)	지범	심궁
6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7	불자생활백서	운창화,고명석	민족사
8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9	선요	전재강 역주	운주사
10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세상은 넓고 '감동스토리'도 많다

한바다 우화집 덕담
한바다 엮음|랜덤 하우스 코리아 펴냄|9500원



한 쌍의 부부가 붓짐을 쌌다. 세속 생활을 버리고 성지로 순례를 떠나기 위해서였다. 길 가던 도중 남편은 걸음이 빨라 항상 앞서서 걸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눈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보였다. 남편은 속으로 생각했다. '만일 아내가 이것을 보면 욕심이 생길거야. 그러면 성지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집으로 돌아가 잘살아 보자고 하겠지.' 남편은 아내 몰래 다이아몬드를 묻었다. 그 때 그 과정을 지켜 본 아내가 쫓아와서 서운 한 듯 말했다. "다이아몬드를 알아보는 걸 보니 당신이야말로 아직 세속의 때를 벗지 못한 것 같군요. 내겐 그저 한낮 돌 부스러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삶이라는 낯설고 경이로운 여행지 중에서

인도, 뉴질랜드,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며 명상 수행하던 역자가 세상 각지를 돌아다니며 접한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을 골라 엮은 책이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듯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덕담〉에 소개된 내용들은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종교적 테두리를 벗어나 범인류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감로법문들이다.

그래서 일까. 책장을 덮고 난 뒤에도 긴 여운이 남는다.

김주일 기자

삼국시대 고승들 시 총망라

한국의 시승
로담 집역|불교문예 펴냄|1만2000원



스님들의 글은 법문이다. 글의 형식은 고대로 올라갈수록 운문체가 일반적이다. 경전을 주석하는 경우가 아니라 자신의 심경을 표현한 글의 경우 대개 시의 형식을 따르기도 한다. 게나 송 혹은 평과 창이 대표적이다. 깨달음의 자리를 짧은 글귀로 명징하게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의 시승〉 삼국편은 1100여 년 전인 삼국시대에 이 땅에 살았던 선지식들이 남긴 시들을 모은 책이다. 시인 로담 스님이 시안으로 모아 엮었는데 자료의 수집과 선별 과정을 유추해 보면 생각보다 노고가 컸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향가의 경우 모으기가 쉽겠지만 다른 시가들은 일일이 어록과 문집들을 뒤적여 찾았다. 무엇보다 작가 미상의 백제 시가도 한 편 수록되었는데 부여 능산리 고분 옆의 절터에서 발견된 목간에 써진 16자가 스님이 쓴 시가로 여겨졌던 것이다.

혜초의 시가들과 충담 도선 등 삼국시대의 고승들이 남긴 시가들에 담긴 깨우침의 맛을 한권의 책으로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즐거움이다.

임연태 기자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중과 나한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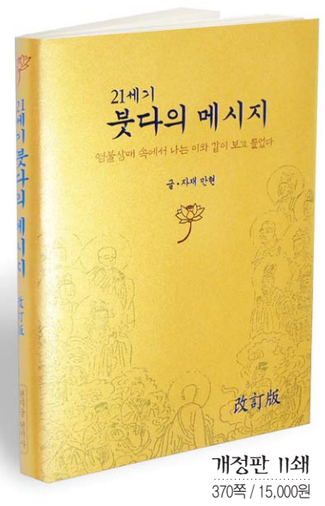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尊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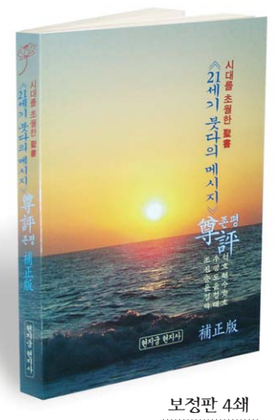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절찬리 판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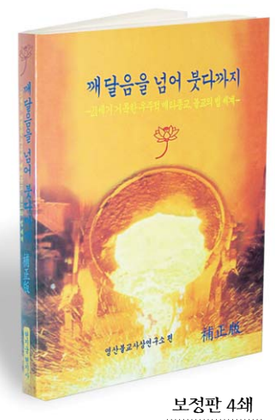
13쇄 발간 2여년만에 들어감 !!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체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교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할까..... 나는 이제 현지사 큰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한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기 바란다.

– 지방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

춘천법회 – 매월 음 8일 / 부산법회 – 매월 음 23일 http://www.hyunjisa.or.kr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궁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영산불교 현지궁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禪의 생활화 이끄는 '손가락' 역할



이시대에 맞는 선(禪) 사상 책을 출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도서출판 장경각의 실무자들이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선서' 제1권을 선보이고 있다.

장경각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1985년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 첫 출간 어려운 책에서 쉬운책으로 방향전환

도서출판 장경각 불서 BEST 20

순위	책 이 름	저 자	출판년도
1	백일법문	성철	1992
2	자기를 바로 봅시다	성철	1987
3	영원한 자유	성철	1988
4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성철	2006
5	무엇이 너의 본래면목이냐	성철	2007
6	틱낫한 스님의 반야심경	틱낫한	2003
7	틱낫한 스님의 금강경	틱낫한	2004
8	한국불교의 법맥	성철	1990
9	돈황본 육조단경	성철	1988
10	마조록 · 백장록	백련선서간행회	1989
11	임제록 · 법안록	백련선서간행회	1989
12	조주록	백련선서간행회	1991
13	종용록	백련선서간행회	1993
14	벽암록	백련선서간행회	1993
15	역주 선림승보전	원철	1999
16	한국불교음악사연구	박범훈	2000
17	계율학 개론	목정배	2001
18	돈오입도요문론 강설	성철	1986
19	신심명 증도가 강설	성철	1986
20	절대무의 견성철학	심적	2003

때아닌 봄눈이 내린 3월 4일 서울을 종로에 위치한 도서출판 장경각(대표 원택)을 찾았다. 서울 한복판에서 '장경각'이라는 이름이 과연 어울릴까 싶었으나 조계사 앞마당이 훤히 보이는 이곳의 위치에 고개만 끄덕였다.

장경각에는 현재 3명의 실무진이 일하고 있다. 영업을 맡은 김윤수 부장, 책을 만드는 장선재 편집자, 관리를 맡고 있는 서연정씨가 그들이다. 이들 모두 장경각에서 일한지 10년이 넘었다.

"저희도 꽤 됐지만 원택 스님 혼자 10여년 출판을 하셨답니다. 스님이 대단하시지요."

요즘 이들은 2012년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때문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기념 선서(禪書)'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원택 스님도 마찬가지여서 요즘은 백련암에서 원고를 쓰느라 바쁘다고 한다. 과연 장경각은 성철 스님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장경각'이라는 이름은 법보종찰 해인사 장경각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원택 스님이 1985년 백련암에 주석하고 있던 성철 스님의 시자를 맡고 있을 때 설립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원택 스님이 직접 설명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돈오돈수(頓悟頓修)를 주장하셨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학계에는 돈오점수(頓悟漸修)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활발했지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돈오돈수의 근거를 알 수 있는 고불고조(古佛古祖)의 어록을 엮어 책을 내자는 뜻을 펼치셨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들어진 책이 <선문정로(禪門正路)>다.

장경각은 그 시작이 성철 스님의 의지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렇다고 성철 스님 책만을 출판한 것은 아니다. 성철 스님의 의지는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해 불자들이 견성할 수 있도록 이끄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93년부터 만들어진 시리즈가 <선림고경총서(禪林古經叢書)>다. 선종의 바른 사상을 확립하는데 근본이 되는 선사들의 어록과 저서를 번역해서 보급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이 총서에는 당시 최초로 번역된 <벽암록>도 들어있다.

장경각 서적들을 쭉 훑다 보니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싶다. 불교학에 관심이 크지 않다면 감히 접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 장경각이 좀 달라졌다.

"선사들의 가르침을 담고 있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대에 맞게 재편하는 작업을 해내야겠지요."

그런 노력 속에서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선서' 제1권은 <본지풍광(本地風光)이라는 한자어 대신 <무엇이 너의 본래면목이냐>는 한글 제목을 달고 나왔다. 이는 앞으로 계속 발간될 선서 20권 전권이 이렇게 말랑한 한글어 제목으로 나올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문정로>도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는 한결 쉬운 제목으로 다시 태어났다.

번역과 편재도 바뀌었다. 표지 디자인이 산뜻해진 것은 물론이다. 성철 스님은 선을 바로 알리고자 했다면 원택 스님은 독자들이 선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원력을 두고 있는 셈이다.

요즘 장경각에서는 성철 스님 기념사업에서 한 발 떨어진 간행물도 준비 중이다. 틱낫한 스님이 부처의 일대기를 조명한 <소설 붓다>가 올해 안에 장경각을 통해 출간될 예정이다. 틱낫한 스님의 <금강경>, <반야심경>에 이어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간이다.

"불자들이 불서를 안 읽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틱낫한 스님의 글처럼 좋은 반응을 얻는 불서가 없는 것도 아니지요. 이는 우리가 읽을만한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20~30대 젊은 층, 대학생들이 호감 있게 읽을 책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장경각을 방문하면서 '선종', '성철'이라는 키워드가 장경각을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했는데 오히려 장경각이 시대가 바뀌어도 이 키워드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을 알리면서 세상을 향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이라도 하고 싶은 의지, 그것을 장경각은 전해주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볼서 읽기 캠페인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죽창수필
운서주굉 지음, 연관 옮김|불광출판부|1991년

서울 열린선원 원장 법현 스님

'공염불' 참 뜻 일깨워 준 '주옥'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며 흔히 말한다, 공염불(空念佛)에 그친다고…. 보기를 들라치면 '이명박 정부인수위의 영어몰입교육 같은 것이 바로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야', '선거철만 되면 누구나 불교를 우대하고 문화와 생태정책을 펼친다 하지만 당선만 되고 나면 그것이 공염불이었음을 알게 된다' 등이 있다. 이런 잘못된 말을 누구나 아무런 반성과 비판 없이 쓰는데다 우리 불교언론까지 이 말을 쓰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함부로 '공염불'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몇 군데 올렸었다.



일에 집중하면 몸과 마음 평화로워져
신행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것 다뤄

요즈음 위빠사나의 바람이 불면서, 또 숭산선사의 외국인 제자 현각스님의 글이 읽히면서 '~뿐', '다만~할 뿐' 등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이것은 '집중한다'는 뜻으로 잘 쓰이고 있다. 붓다께서 제자들에게 지도하신 마음공부의 방법이니 그렇게 쓰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붓다의 가르침은 모든 일을 할 때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 몸과 마음이 평화로워지며 바라던 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그런데 앉아서도 여러 생각을 하고, 서서 염불(念佛)하면서도 입으로만 창불(唱佛)하고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불공이나 천도재를 진행하면서 지위 높은 사람이 오면 하던 염불을 그만 두고 그 사람을 섬기는 일까지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이런 일을 지적할 때는 '저리가'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따른다.

말(語,言)은 마음(心)이나 진리(眞理)를 제대로 전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고들 하지만 표정이나 동작 언어를 포함해서 말을 하지 않고는 마음과 진리를 나타내는 방법도 없다고 생각하는 나는 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말을 제대로 쓰자는 것이다.

틈이 나는 대로, 아니 틈을 만들어 나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고자 산으로도 가고 물로도 가고 도량에도 앉고 저자에도 서성거려 보았다. 1985년부터 10여년 이상을 종단에서 공직을 맡아 애쓰다가 맘이 쓰여서 1994년 여름 사직서를 내고 달려간 곳이 봉화 청량사(淸凉寺)였다. 인연 따라 내려간 그곳에서 마음 편하게 예불하고 등산하고 아침 동트기 전, 저녁 해질 무렵 좌선대에 앉아서 또는 법당에 앉아서 이리궁구 저리궁구 하면서 여섯 달을 지냈다. 그 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는데 무료할 때 읽으리라 마음먹고 가져갔던 딱 한 권의 책이 바로 명나라 때 선승인 운서주굉(雲棲株宏)스님의 <죽창수필(竹窓隨筆)>이었다.

짧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읽어내려 가기에 좋았다. 선 · 정토 · 계율 · 방생 등 불자로서의 신행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루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헛된 일'이 아니라 '공짜로도 해주는 무주상의 염불'이 바로 '공염불'이다. 천도염불을 하던 장수 곁에 병졸이 다가서자 염불을 하면서 말을 할 수 없어서 손사래를 치면서 마음속으로 '저리가'라고 했더니 극락으로 가야할 병사의 혼령이 나타나 염불내용 중 '저리가'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찾아왔다더라. 출가자도 부모에게 절해야 한다. 1000명의 스님 중에 한 사람의 납자도 없다. 이런 주옥같은 이야기가 3권 450여개의 글에 담겨있다. 내 글의 많은 부분의 모티브가 <죽창수필>에서 나왔다.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26>
(修習止觀坐禪法要)

제3장 기개(棄蓋) ⑤

의심은 선정 장애, 반야문 굳게 닫혀

五棄疑蓋者 以疑覆心故 於諸法中 不得信心 信心無故 於佛法中 空無所獲 譬如有人 入於寶山 若無有手 無所能取 然則疑過甚多 未必障定 今正障定

다섯 번째로 의심의 번뇌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의혹은 머뭇거리면서 결정을 짓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혹심이 있으면 불법에 있어서 올바른 신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래의 위없는 지견을 잃게 된다. 그 때문에 의심이야말로 모든 악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의심은 단지 뭇 악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선업을 선도하기도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가령 그 예를 선정에서 화두를 관하는데 비유해보면 우선 의심이 일어나게 해야만 하는데, 이럴 때의 의심은 공부하는데 보배가 된다.

이를 두고 선종에서는 크게 의심하면 확철대오하고, 작게 의심하면 작게 깨닫고, 의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이 의심이야말로 공부하는데 있어서 그 공로가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선종에서 말하는 의심이 아니라 머뭇거리면서 결정을 짓지 못하는 번뇌로서의 의심이다. 때문에 이 의심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덮어버리고 원력에서 물러나게 하여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오묘한 법에서 청정한 신심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불법대해는 신심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주체라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이 문제에 대해 <화엄경>에서는 "신심은 도의 근원이자 공덕의 모체이며 일체 모든 선근공덕을 자라나게 한다"라고 하였다.

만일 신심이 없다면 불법 가운데서 얻을 것이 없다. 신심이 아니면 불교의 심오한 이치를 연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비유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린다 해도 뿌리없는 나무를 어떻게 윤택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불법이 아무리 광대하다 해도 신심이 없는 사람은 제도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신심이 없는 사람은 마치 뿌리없는 나무와 같아서 광대하기 그지없는 부처님 바다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것과 같이 광대하게 법비가 쏟아져도 신근이 없는 사람을 윤택하게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심이 없는 사람은 억겁을 지난다 해도 조그마한 이익도 얻을 수 없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보배산으로 들어가 보배를 가지려 하나 그에게 손이 없다면 끝내 보배를 갖지 못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보배를 취할 수 있는 손이 없기 때문이다.

신심이 없는 자도 역시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여기에서 손은 '신심'에 비유하였고 보배산은 '불법보장'에 비유하였다.

불법의 보배창고란 무엇인가. 삼명(三明)·육통(六通)·사제(四締)·육도(六度)·삼십칠조도품(三十七助道品)·십력(十力)·사무소외(四無所畏)·십팔불공법(十八不共法) 등이 모두 여래의 보배창고이다. 그렇다고 해도 신심이 없다면 광대한 불법가운데서 실제 이익을 얻기가 어렵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 선근 개발되지 않아
스승이 청정하지 못해도 부처님이라 여겨야

疑者有三種 一者疑自 而作是念 我諸根闇鈍 罪垢深重 非其人乎 自作此疑 定法終不得發 若欲修定 勿當自輕 以宿世善根難測故

의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의심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행인이 단정히 앉아 지관을 닦을 때 마음속으로 문득 "나는 지금 선근은 미약하고 죄장은 무거워 도를 이룰만한 그릇이 아닌데 어떻게 감히 최상승을 바라보며 이 도법을 닦을 수 있으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마음으로 이와 같이 의심을 한다면 선정법은 끝내 개발되지 않는다. 선정을 닦을 때는 절대로 자포자기해서는 안된다.

수행인이 꼭 알아야할 점은 내가 무량겁이래로 어찌 대발심을 하지 않았겠으며 대승의 수행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단정코 과거에 이미 선근을 심었으리라고 생각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내가 과거에 선근을 심지 않았다면 금생에 어떻게 사람의 몸을 얻게 되었겠는가. 일체 성현들 모두가 처음에는 범부에서 출발해서 성취하였고, 시방제불도 중생의 몸으로부터 성취하였다. 따라서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미륵보살은 결코 없으며, 자연적으로 성취된 석가부처님도 아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았다면 자기가 과거에 심은 선근이 깊고 후하다는 것을 마땅히 믿고 자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그들 모두는 여래의 진실한 장자들이다. 이에 따라 대용맹심을 일으켜 뛰어난 불법을 정진 수행한다면 불과를 증득하지 못할까, 또는 열반을 얻지 못할까 근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二者疑師 彼人威儀相貌如是 自尙無道 何能教我 作是疑慢 卽爲障定 欲除之法 如摩訶衍論中說 如臭皮囊中金 以貪金故 不可棄其臭曩 行者亦爾 師雖不淸淨 亦應生佛想

두 번째로 스승을 의심하는 것인데 이는 바로 타인을 의심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것은 "내가 평소에 친근하게 여겼던 대덕선지식의 위엄과 의표를 관찰해 보았더니 그의 살아가는 모습이 도를 깨닫지 못한 일반사람과 차이가 없어 털끝만큼도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것이라고는 없다" 라고 의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선지식을 관찰하고 그 자신에게도 이미 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가 나를 교화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를 성취시키려면 타인까지 성취시키려 노력해야만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것이라고는 없는 그가 다른 사람을 교화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한명의 장님이 여러 장님을 인도하여 다함께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될까봐 염려스러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내가 그러한 스승을 섬긴다면 해로움만 있지 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의심과 교만심이 마음속에 일어나 바로 선정을 장애하여 선정의 문이 열리지 않고 반야의 문은 굳게 닫히게 된다.

스승을 의심하는 법을 버리려 한다면 마하연론에서 "악취가 나는 가죽부대 속에 황금이 있는데 그 악취 나는 가죽부대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황금까지 버려서는 안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것을 명심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행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스승은 악취 나는 자루에 비유했고, 그 스승이 행하는 설법은 자루 속에 든 황금에 비유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외형으로 인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불법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데, 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말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해 허망하게 비판하고 장단점을 자기 멋대로 논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을 크게 어리석고 미친 무리라고 부른다.

여러분들도 옛날 성현이 다른 사람에게 법을 구했던 일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가령 설산대사는 귀신에게 법문을 청하였고, 제석천왕은 짐승에게 절을 하면서 그를 스승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같은 사례는 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다.

따라서 스승이 비록 청정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도 역시 모든 부처님 숫자에 하나의 부처로 속한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한다.

그가 비록 몸은 범부이지만 입으로 하는 말은 모든 부처님 법이고 모든 부처님의 행인 것이다. 따라서 마땅히 부처님을 보는 마음으로 스승을 살펴야 한다.

부처님 대하듯 스승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법문을 들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옛 큰스님은 "스승의 외형은 비록 청정하지 못하다 해도 그가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오온법(五蘊法)

(1) 색온(色蘊)

'색온'은 오근(五根)·오경(五境)·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을 합하여 총체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오근은 안이비설신근(眼耳鼻舌身根)을, 오경은 색성향미촉(色聲香味觸)을, 법처소섭색은 극략색(極略色)·극형색(極逈色)·변계소기색(遍計所起色)·수소인색(受所引色)·자재소생색(自在所生色)을 말합니다.

색온은 안으로는 우리의 육신인 근신(根身)과 밖으로는 기세간(器世間), 즉 우리의 식이 내적으로 의지하고 외적으로 연려(緣慮)하는 모든 인식대상경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색법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는 형질의 장애[質碍]와 상대적인 마주함[有對]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방향을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하며[方所示現], 세 번째는 고정불변적인 사물이 아니라 찰나찰나 소멸하는 의미[觸動]를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과거·현재·미래에 떠오른 모든 색법과, 공간적으로는 일체의 자연현상계와 우리의 육신과 의식 속에 떠오른 관념적인 모습인 모든 상상 속의 물질까지도 모두 합해서 한 덩어리로 색온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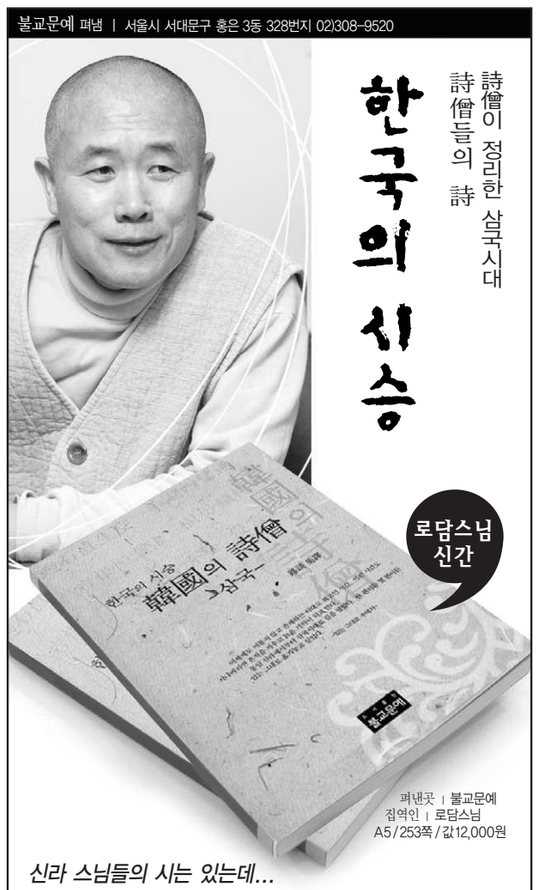
근신·기세간등 모든 인식대상경
의식 속에 떠오른 물질까지 포함

우리의 신체는 실제로 따로의 특수한 색법이 내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본래 자연현상계의 한 특수한 개체적 부분으로서의 색법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치를 잘못 미혹하고 자기의 육신만을 따로의 실재인 양 집착하여 이를 내적인 자아의 모습으로 잘못 인식함으로써, 자연현상계가 나의 밖에 따로 존재해 있는 나와는 별개의 색법이 아닌 이치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한 부분을 통해서 우주전체의 이치를 안다면, 자기의 한 몸이 광대한 자연현상계에 끼어든다 해도 왜소하지 않고, 전체가 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장애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한 몸에 모든 자연현상계의 사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었지만 광대하여 남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다상즉(一多相卽)의 논리입니다.

이처럼 대소의 상대적인 견해가 쌍으로 없어져 그것이 전체다, 또는 한 부분이다 하는 상대적인 관념이 모두 함께 끊기면 대상과 내가 하나의 절대자체로 동화하여 끝내는 진리의 경지에 도달함으로써 이고득락의 경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불교문예 펴냄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3동 328번지 02)308-9520



펴낸곳 | 불교문예
집역인 | 로담스님
A5 / 253쪽 / 값12,000원

신라 스님들의 시는 있는데...
백제 고구려 스님들의 시는 왜 전하지 않는 걸까?

승려신인 로담 스님이 발품을 팔아 정리한
우리 고대사에 빛나는 깨달음의 노래들!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 종 안 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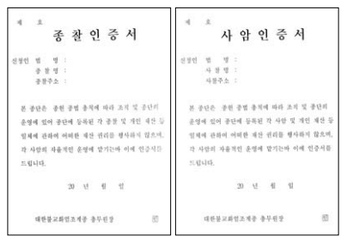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창종주 011-228-7813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종주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패교육원에서 2008학년도 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과정(1년)
◆초급과정
도량석, 종송,각단예불, 삼보통청, 각단불공 등
◆중급과정
49재 의식 및 천도의식,지장청,시왕도청,상용영반, 관음시식,화엄시식,전시식
◆고급과정
천수바라,사다라니,화의재바라,오공향,유원승,요잡작업, 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다림,예수재 등

2.수 업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강의장소 : 경북교구종무원 설법전
6.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7.접 수 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전화접수가능,상시모집)
8.연 락 처 : 053)857-4339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간 2리 265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교육원

선상용왕재 및
고혼천도 수륙대재

대한불교 조동종에서 수륙재 및 중국 보상사 부처님 불치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합니다.
스님들 뿐만아니라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여 행 지 : 석도 – 연태 – 제남 – 태산 – 곡부 – 문상 – 유방
◈출발일자 : 불기 2552년 3월 24일(음 2월 17일) 월요일 ~ 3월 29일(토요일) 까지
◈출발시간 및 장소 : 인천 제 2여객터미널 로비집결 오후 3시
◈주 최 :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
◈동 참 금 : 1인당 60만원 (영가천도 한분당 1만원)

(주) 풍 경 여 행 사
문의 02)2091-0408 / Fax 02)951-0480

오늘의 禪語

⑩ 보임(保任)

미완의 깨달음 완성하는 것

'보임(保任)'이란 '보호임지(保護任持, 잘 보호해서 가지다)'의 준말로서, 깨달은 바를 잃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은 바를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보호하는 것, 또는 깨달은 바를 돈독히 하는 작업이 보임입니다. 즉 배운 것을 숙련 · 체화시키는 과정이 보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점수(漸修)' 또는 '오후(悟後)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선에서 '보임'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임을 소홀히 하면 '다시 매(昧)했다'고 하는데 그 뜻은 '다시 어두워졌다'는 뜻으로 곧 깨달은 바를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90년대를 전후하여 깨달으면 더 이상 수행(보임)할 필요가 없다는 돈오돈수와 깨달은 뒤에도 계속 더 수행해야 한다는 돈오점수의 논쟁이 있은 이후, 보임은 더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상' '무아' '공(空)' 그리고 '번뇌는 허망한 것'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에 불과하므로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자면 더 닦아야(수행 · 보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느꼈던 것, 깨달은 것을 삶이나 현실 속에서 더 연마 · 숙련시켜야만 깨달음이 더욱 철두철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행합일(知行合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임은 비유하자면 밥을 뜸 들이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쌀이 몇 번 부글부글 끓었다고 해서 금방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20분 정도 더 뜸을 들여야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번뇌 망상이 허망한 것임을 깨달았지만(인식), 인식했다고 해서 일시에 번뇌 망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수행을 하여 번뇌 망상의 뿌리 그리고 중생적인 갖가지 습관(버릇)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1차 목표는 물론 깨달음이지만 깨달은 뒤에도 많은 역경(=魔)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을 초월할 것 같지만 여전히 사물이나 이성을 보게 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백치나 목석이 아닌 이상 돈을 보면 갖고 싶고,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타인이 비난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근심이 닥치면 고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동요가 미세하여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가까이 하게 되면 마음의 흔들림은 점점 심하여 나중에는 깨닫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 가버립니다. 보임이란 번뇌의 뿌리가 다시는 싹트지 못하도록 고사시키는 작업입니다. 미세한 동요와 욕망 ·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는 작업, 그것이 보임입니다.

또 보임은 지혜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수행승으로서 본분에 맞는 올바른 삶,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 가는 작업이 보임입니다. '생활의 발견'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역시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요즘은 남녀 할 것 없이 운전면허증은 기본입니다. 1~2개월 동안 학원을 다녀서(수행해서) 운전면허를 땄다(깨닫다)고 해서 당장 차를 몰고 복잡한 시내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거리를 운행하자면 얼마간 더 연수해야 합니다.

또 설사 4차선 같은 넓은 길은 겨우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좁은 골목길이나 신호를 보는 요령 · 주차 요령 등 운전의 모든 노하우를 익히자면 학원에서 배웠던 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비포장도로나 빙판길, 언덕길을 갈 때에도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빙판길은 저속으로 가야지, 속도를 내면 굴러 떨어집니다. 급경사를 내려갈 때에는 브레이크만 사용하면 고장이 납니다. 그 때엔 엔진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익히는 과정이 보임이고 점수이며, 오후(悟後, 깨달은 뒤의)의 수행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운전을 하면서도 음악도 듣고 옆 사람과 이야기도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이 체화되어 자기 것이 된 상태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중생제도, 그리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도 보임의 한 과정입니다. 망설임, 두려움은 보임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식에 머문 깨달음을 체화시키는 것, 미완의 깨달음을 완전한 깨달음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보임입니다.

자기의 본심을 찾아 과정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데 비유한 심우도가 있습니다. 열 폭으로 그려진 그림인데 다섯 번째 단계가 목우(牧牛, 소를 기름)로서 한 수행자가 풀밭(번뇌)으로 들어가려는 소의 고삐를 열심히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것이 보임입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10도)인 입전수수(入廛垂手, 중생 속으로 들어가다)가 다름 아닌 깨달음이 완전히 성취(자기화)된 단계입니다. 깨달음이 자기화가 되면 아무리 번뇌의 소굴로 들어가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멋있는 이성이 나타나도 돈이 가득 쌓여 있어도 마음에 동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80먹은 노인이 아닌 이상 고목(枯木)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욕으로부터, 명예욕으로부터, 비난과 원망으로부터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목표란 지향점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해 두고 노력 정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진실한 수행자일지도 모릅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음 후 마음의 동요· 욕망 뿌리뽑는 지속적 연마
돈오돈수·돈오점수의 논쟁 후 더 중요한 주제로 부각

신행게시판

●**조계사 〈범망경〉 산림대법회**=서울 조계사가 3월 2일부터 〈범망경〉 산림대법회를 열고 있다. 16일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 스님이, 23일과 4월 6 · 20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관 스님이, 3월 30일에는 前 동국대 교수 인환 스님이, 4월 13일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무진장 스님이, 27일에는 조계사 주지 원학 스님이 법사로 나선다. (02)732-2183

●**해인사 스님들과 함께하는 자비행선**=합천 해인사가 3월 9일부터 매주 일요일 낮 12시 걷기명상과 암자순례를 겸한 '스님들과 함께하는 자비명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자비행선은 분별과 경계를 떠나 지금, 여기에서 일체가 동체임을 알고, 큰 자비심을 내도록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해인사 자비행선 코스는 해인사 해인도 앞에서 출발해 지족암 오솔길, 국일암 오솔길, 삼선암 · 금선암 계곡길, 원당암, 홍제암, 외나무다리를 거쳐 해인도 앞에서 끝난다. 30분씩 세 차례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의 안내로 자비행선을 하며 중간 중간 휴식시간도 갖는다. (055)934-3105

●**여래사 〈금강경〉 사경기도**=일산 여래사가 부처님 출가일인 3월 15일(음 2월 8일) 입재해 열반일인 3월 22일(음 2월 15일) 회향하는 '출가에서 열반까지 〈금강경〉 사경기도'를 봉행한다. (031)905-7766

●**구룡사 템플스테이**=원주 구룡사가 3월 15~16일, 29~30일 두 차례에 걸쳐 봄맞이 템플스테이를 마련한다. 구룡사 템플스테이는 요가, 습의 및 사찰예절, 발우공양, 108염주 만들기, 새벽예불 108배, 참선, 세렴폭포 산행, 연등 만들기, 한지공예, 도예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033)732-4800

●**한국정신과학학회 3월 집담회**=한국정신과학학회 서울지회가 3월 15일 오후 3시 30분 '불교수행의 정신 치료적 적용'을 주제로 3월 집담회를 개최한다. 〈붓다의 심리학〉을 번역한 신경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한양대 · 순천향 의대 외래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4층 교육학 시청각교육실에 열릴 집담회는 본 강의에 앞서 오후 2시 30분 자유토론으로 시작한다. (02)554-5701, www.ksjs.or.kr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아들 죽음으로 생멸의 본질 깨쳐

⑩ 끼사고따미 장로니

끼사고따미(Kisagotami)는 사밧티(사위성)의 부잣집 딸이었다. 그녀는 부잣집 젊은이에게 시집가서 둘 사이에 아들을 하나 낳았다. 그러나 아들은 겨우 걸음마를 할 무렵에 죽고 말았다. 슬픔에 빠진 그녀는 아기 송장을 안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기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느냐?"며 묻고 다녔다. 사람들은 그녀가 실성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어떤 슬기로운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말했다.

"저기 부처님이 그대가 만나 뵈어야 할 분이라오. 당신이 찾는 약을 갖고 계시다오. 부처님께 가보시오."

고따미는 부처님께 가서 아기를 살릴 약을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죽은 식구가 없는 집안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죽은 아기를 가슴에 안고, 그런 겨자씨를 얻으러 집집마다 다녔다. 하지만 죽은 식구가 없는 집을 단 한 집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자기 가족만 죽은 것이 아니며,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그녀는 곧바로, 죽은 아기에 애착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더 이상 아기 송장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아기 시체를 숲속에 묻고 부처님께 돌아와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죽지 않음을 아는 하루의 삶 중요"
등잔불의 생·멸 관찰로 생사 해탈

그러자 부처님께서 법문하셨다.

"고따미여, 너는 그대만이 아들을 잃은 줄 알았지. 지금 깨달았듯이 죽음은 모두에게 온다네. 욕망이 채워지기 전에 죽음은 쓸어가 버린다네."

이 말씀을 듣고, 고따미는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 즉, 오온(五蘊)은 영원하지 않으며, 욕망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며,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님을 완전히 깨닫고서, 두 번째 수행경지인 사다함과를 얻었다. 이에 그녀는 마침내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하루는 등잔에 불을 켤 때 불꽃이 일어나고 꺼지는 것을 보고, 그녀는 존재하는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도리를 명확히 깨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천안통으로 이를 보시고, 광명을 보내어 모습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모든 것의 본성이 영속하지 않는 것을 계속 명상하여,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 정진하라 이르셨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게송을 읊어 설법하셨다.

"'죽지 않음(열반)'을 알지 못하는 이로서 백년을 사는 것보다도, '죽지 않음'을 아는 이로서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

이 설법이 끝나자 그녀는 최고의 경지인 아라한과를 성취하였다. 이상은 〈법구경〉에 나타난 일화이다. 위에서 고따미 장로니는 등잔불의 일어나고 사라짐이란 '생멸(生滅)' 현상의 본질을 깨달았다. 한 생각의 일어나고 사라짐, 숨을 들이 쉬고 내쉼, 육신의 생과 사가 등잔불의 켜지고 꺼지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본래 공(空)한 것임을 깨달아 생사(生死)로부터 해탈한 것이다.

중생은 '생사'라는 망념이 공한 것임을 알지 못하기에 온갖 경계가 차별이 있는 듯 느끼지만 망념이 공한 것임을 요지한다면, 곧 고통(死)과 즐거움(生)에 집착하여 구속되지 않는다. 때문에 영명연수 선사는 〈종경록〉에서 "능(能: 주관)과 소(所: 객관)가 다 함께 공하니, 누가 취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겠는가. 이미 집착하여 취하는 마음이 없다면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원각경〉에서 "일체가 허공의 꽃인 줄을 알면 곧 생사의 흐름이 없으며 또한 생사를 받는 나라고 할 마음도 없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괴로움의 소멸' 즉, 열반이란 모든 현상의 무상(無常)과 무아를 자각하여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열반은 미움과 탐욕과 무지가 소멸하는 것이며, 그 결과 마치 불이 꺼진 것처럼 마음의 해탈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숫타니파타〉에서는 "아무런 소유도 없고 집착해 얻는 일이 없는 것—이것이 바로 피난처이다. 열반이라 부르는 그것은 노쇠(老衰)와 죽음의 소멸이다"라고 설하고 있다.

김성우 객원기자


석가모니불 양류관음 천수천안
本佛 조성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기능 3568호 임병배 합장 011-799-4041

산신님 나한님
성불조각미술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번지 공방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전라도 : 010-2311-0157
강원도 : 019-396-1110 경상도 : 011-327-7697
충청도 : 010-8674-23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02)2663-6655 /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목재 골조 평당45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 180*180
다그라스목재도리 : 180*125
다그라스목재서까래 : 100*100
원목목재 상냥: 150*125
특허 브라켓
※ 황토흙벽돌,내화벽돌,판넬등 시공가능
원목목조 20평형

원목목재기둥:100×100×400
원목목재도리:120×50
원목목재중간대:70×50
폴리프로필렌마루판 : 100*15
알루미늄 테두리
특허 브라켓
◆ 원목평상 2100×1800×400(mm)
가격 : 350,000 할인가 : 250,000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마루판
지 구 산 업
www.bangaro.com/ 조립식평상
TEL:(063)323-3010~1
FAX:(063)323-3012
계좌번호 : [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 : 지구산업 곽영호
전품목부가세별도 전국대리점모집

오감만족 보장된 '축제' 현장 찾아가요~



「2008 내나라 여행 박람회」

가족과 함께하는 축제여행



강사 : 백남천(한국여행작가협회. 축제전문여행작가)
주최 :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KBS한국방송
주관 : COEX
일시 : 2008년 3월 1일
장소 : 코엑스 태평양홀

여행을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축제 100여 곳을 발품 팔아 찾아다닌 축제전문 여행 작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눈빛을 보니 신명 넘치는 대한민국 축제 여행 속으로 떠나고 싶은 설레임에 가득 찬 듯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신바람 나는 축제여행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한 교육설문기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최악의 부모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들은 답했습니다. "자나 깨나 공부하라고 잔소리만 늘어놓는 부모요." "함께 놀아줄 줄 모르는 부모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잘 놀아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제 여행 경험을 되돌아 봤을 때 많은 축제장에서 만난 가족들은 무료해 할 틈이 없었습니다. 신명나는 이벤트들로 풍성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박물관은 화석 같은 딱딱함으로 건조한 느낌을 주지만, 지역 축제는 생기 넘치는 놀거리로 풍성합니다. 우리 삶에 즐거움과 여유 그리고 웃음의 엔돌핀을 안겨줍니다. 그야말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즐기는 축제 여행을 강력 추천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축제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축제도 많지만 부정적 이미지의 축제도 많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옥석을 가려 정말 좋은 축제장으로 떠나야겠습니다. 지혜롭게 축제를 누릴 노하우도 알아두시면 더욱 좋으실 겁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들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가족과 함께 하기에 좋은 신바람 나는 축제를 소개합니다.

축제100배 행복하게 즐기는 노하우 10가지

1. 떠나기 전 축제 프로그램 정보 꼼꼼히 챙기기
2. 축제를 선택할 때 함께 즐길 사람의 기호도 배려하기
3. 축제장에서는 적극적인 체험으로 축제의 주인공 되어보기
4. 인파가 몰려드는 시간대는 피하여 즐기기
5. 축제장 주변 명소 둘러볼 수 있도록 여정 짜기
6. 축제 지역의 토속 별미 맛보기
7. 축제장에서 지역 토속 특산품 쇼핑 즐기기
8. 숙소는 축제장에서 다소 떨어진 곳으로 예약하기
9. 만약을 대비하여 축제장에서의 동선을 미리 약속해 두기
10. 여행사에서 마련한 축제여행 패키지 상품 적극 활용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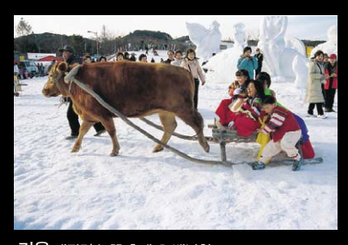
풀빛 봄, 쪽빛 여름, 갈빛 가을, 은빛 겨울 우리 강산의 사계절은 색색이 형용하다. 이 계절에서 저 계절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노라면 매일이 파노라마 같다. 한편의 시와 같고, 영화와 같은 우리나라의 여행 정보를 한자리에 모은 '내나라 여행 박람회'가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월 1일 코엑스 행사장은 개학을 앞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연인 그리고 친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행사장에서 파도처럼 밀려다니는 관람객의 물결은 여가 활용 여행에 대한 비중과 관심이 커졌음을 시사한다. 즐길 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다양하다. 우리나라 구석구석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고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는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백남천 여행 작가가 제안하는 '가족과 함께 떠나는 행복한 축제여행'에 주목한 이유는 가족이 더욱 소중한 요즘이기 때문일까? 현재 대전의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 중인 백남천 작가는 "대동여지도를 고난의 발품으로 완성한 김정호를 존경한다"고 말한다. 휴머니스트 백남천 작가가 제안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축제 여행 정보에 귀 기울여 보자.




봄 광양 매화 축제 ⓒ 백남천


여름 보령 머드 축제 ⓒ 백남천


가을 금산 인삼 축제 ⓒ 백남천


겨울 대관령 눈꽃 축제 ⓒ 백남천

봄 축제의 전령사. 광양 매화축제로 가 볼까요. 3월 8일부터 16일까지 섬진강변 다압면 매화마을에서 펼쳐질 대표적인 봄꽃축제입니다.

매화꽃비 휘날리는 청정 섬진강가에서 봄의 전령을 맞이해 보면 어떨까요. 겨우내 움츠렸던 가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상징적인 축제입니다. 매화꽃길 매직로드쇼를 시작으로 매화 압화체험, 매화음식 경연대회 등을 즐겨보십시오.

청보리밭 위에 눈꽃사태처럼 피어난 매화천국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추억의 사진 한 장 남겨봄직한 사진 촬영의 명소입니다.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온천단지의 산수유 축제도 있습니다. 여수 영취산에서는 진달래 축제가 봄꽃 축제 여행을 이어갑니다.

일명 노천 박물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천년 고도 경주. 이곳에서 벚꽃 만개한 4월에 펼쳐지는 한국의 술과 떡 축제도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우리 자녀들에게 전통 먹거리인 쌀음식 떡을 선사합니다. 어른들에겐 그윽한 우리의 전통술을 맛보게 해주는 축제입니다. 축제와 함께 천년 신라의 역사를 답사하는 살아있는 국사시간이기도 합니다. 놀면서 공부하는 일거양득 축제여행입니다.

지리산자락의 하동 야생차 문화제도 있습니다. 직접 야생차를 덖어보는 체험은 인스턴트 문화에 노출된 가족의 건강을 챙겨줍니다. 인근에 자리한 천년고찰 쌍계사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스님들의 범패 공연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 고민을 합니다. 여행도 하면서 축제의 신명도 덤으로 누릴 수 있는 축제장은 어디가 좋을까요.

보령 머드 축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머드를 바른 몸으로 해변의 각종 이벤트를 즐깁니다. 해변을 누비며 푸른 파도를 느낍니다. 자유와 열정으로 검게 썬탠하는 바다 축제입니다.

보령 머드 축제에는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듭니다. 올해부터는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선정됐습니다.

바다의 햇살이 따갑다면 심산유곡에 텐트를 치고 연극의 숲과 계곡에서 격조 높은 시원한 휴가를 보내면 어떨까요.

거창 국제연극제를 추천합니다. 이곳은 한국의 아비뇽입니다.

강원도 인제의 내린천 레포츠축제나 춘천 인형극축제 그리고 울릉도 오징어 축제도 빼놓을 수 없는 여름휴가철의 축제입니다.

가을 의 우리나라는 축제의 계절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온갖 축제가 만발합니다.

그 가을에 꼭 가봐야 할 대표 축제를 꼽으라면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을 추천합니다. 멋에 취하고 흥에 겨운 덩실덩실 탈춤을 추어대는 자랑스러운 우리 축제입니다.

낮에는 송림아래에서 하회탈춤은 물론 전 세계의 대표적인 탈춤이 펼쳐집니다. 하회마을 강가 부용대 일원에서 초저녁부터 펼쳐지는 선유줄불놀이의 풍류도 빼놓지 마십시오. 아주 이채로운 우리나라 전통 줄불꽃놀이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하회마을 전통가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다보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전통 문화를 선물하게 됩니다.

평창 효석 문화제는 9월초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떠올리는 가을 문학기행 1번지의 축제입니다.

소금밭처럼 펼쳐진 메밀꽃 전원에서 소설 속 장터와 같은 서정과 인정이 흐르는 봉평 장터 메밀음식을 즐겨보십시오. 생명의 뿌리를 직접 캐보며 천하를 얻을 수 있는 힘도 충전하는 금산 인삼 축제도 있습니다. 여름내 더위에 지친 우리 가족의 몸을 보양하는 기회를 지녀보면 어떨지요.

겨울 을 상징하는 눈 축제에는 대관령 눈꽃 축제 그리고 태백산 눈축제가 있습니다. 추울수록 행복한 겨울축제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와 인제 빙어 축제에서 온 가족이 꺼르르한 손맛을 느껴보십시오. 대관령 어르신네들이 이끄는 누렁소가 스르륵 눈밭을 미끄러져 나갑니다.

소달구를 난생 처음 타보는 재미에 아이들의 웃음꽃이 눈꽃에 어울려 신이 납니다. 사철 내내 펼쳐지는 대한민국 축제의 향연 속에서 행복한 부모 그리고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현대 사회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와 자식의 부족했던 유대 관계를 여행의 여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험합니다. 이로써 가족의 의미를 소중히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두고 온 고향을 추억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daum.net

연료비 90% 절약

11년 전통 국내 유일 온수전문 업체

전자파 없는 보일러식 온수매트



(보급형 1인용) 시판 6주년 기념 첫세일 129,000원 100개 한정판매

웰빙 온돌방의 특장점

- 국내산 온수매트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100% 국내산입니다. 품질이나 A/S면에서 아주 우수하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제품과는 비교를 거부합니다.
- 경제성 사용이 편리하고 사용장소에 구애 받지 않으며, 유사제품과 비교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하루 10시간 기준, 한달 전기료 약 4,000원)
- 안전성 온수매트는 전선이 아닌 호스를 사용한 온수난방식이기 때문에 유해전자파가 전혀 없습니다.
- 쾌적성 인체에 해가 없는 내열호스를 사용, 제품의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쾌적한 난방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건강소재 금사 원단처리로 청소가 간편하고, 일반 전선매트는 전선부분만 따뜻하나 온수매트는 매트 전체에 훈기가 있어 비싼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고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으며, 주무시고 나면 몸 전체가 가뿐한 웰빙온돌방입니다.

MBC 불만제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2007년 11월 29일 TV 방영

- ▶전자파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방출되어 플러스 에너지를 가진 사람 인체에 에너지 회전을 방해하며 뇌파침전도 검사 결과 수면방해로 숙면을 취할 수 없음.
- ▶인체를 피곤하게 만들며 면역력에 문제가되는 전자파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있음.
- ▶대한민국환경부에서 2005년 5월 『전기장판은 임산부와 어린이는 사용금지 권고』를 발표해 그만큼 인체에 미치는 유해 영향이 큼.



▶제0271605호 ▶제0002626호
▶제0347807호 ▶제0008462호
▶제0347808호 ▶제0000097호
▶제0335837호 ▶제0027500호
▶제0002625호 ▶제0002661호
등판 : 제 2007-3210121-30-2-10717호

한번 구입하면 10년 이상을 사용하실 매트

일반 전선매트는 전선 부분만 따뜻하지만 온수매트는 매트 전체에 훈기가 있어 좋습니다.

대진하우징은 지난 11년간 온수침구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자파 없는 보일러식 온수매트를 업계 최초로 개발하여 6년전부터 시판하고 있는 우리나라 온수매트의 선두주자이며, 시스템은 같아도 타회사와의 기술력의 차이는 큽니다.

보급형 (한정세일가) 1인용 ~~158,000원~~ ➡ 129,000원 / 2인용 ~~178,000원~~ ➡ 149,000원

고급형 1인용 178,000원 / 2인용 198,000원 고급형 지로분할가 1인용 : 41,000×5회 / 2인용 : 46,000×5회

대진하우징 주문전화 080-338-3388

■ 입금계좌(농협) : 1285-02-011378 이 현 실

'아웃사이더'들 자기실현 과정 그려

뮤지컬 '플라워' 4월 20일까지 공연



극단 맥토의 뮤지컬 '플라워'(인생 3막)가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학로 김동수 플레이하우스에서 공연된다. 산 속의 작은 사찰을 무대로 사회에서 소외된 아웃사이더들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이다. 50세 미만 남자면 누구나 받아주는 강원도 양구의 사찰 '천화사'. 이 곳에서는 사회에서 상처 받은 비주류들이 모여 행자의 길을 걷고 있다. 특이한 것은 이 사찰만의 전통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찰에서 거부당한 사람도 이곳 천화사에서는 출가를 받아준다.

한 때 잘 나가던 미아리 나이트클럽 사장 김영춘, 몰락한 전직 사이비 교주 배근식, 가난 때문에 가출한 언어장애인 오정수, 어린시절 천재로 매스컴의 극찬을 받았던 신욱, 주지스님을 연모해 보살이 된 박 보살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사회의 주변인이면서 동시에 아웃사이더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이들을 아버지처럼 대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주지스님이다. 천화사에서의 행자들은 현실 사회와 거의 똑같이 행동한다. 자살시도를 비롯해 음주가무를 즐기는가 하면 스스로 왕따 되기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속세의 자신을 버리지 못한 채 싸우고 욕하면서 살아가던 이들도 서로의 아픔을 털어놓고 공유하며 간격을 좁혀나가고 마침내는 자기실현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이 이번 작품의 줄거리다.

주지스님은 '돈키호테'와 '햄릿' 등에 출연해 이미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은 최효상씨와 드라마 '토지'와 '연개소문', '대조영' 등 사극에 주로 출연했던 정동규씨가 더블 캐스팅 됐다. 또한 좌충우돌 박 보살 역은 탤런트 노현희씨가 맡아 주목을 끈다. 특히 무용과 출신인 노씨는 이번 작품에서 빼어난 춤과 노래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출을 맡은 강태식 감독은 "요즘 사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아웃사이더'들의 모습을 통해 비록 저마다의 사연들을 간직한 채 사회에서 소외당했지만 그들에게도 역전 만루홈런을 날릴 이상과 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말했다. 4만원. (02)2238-0903.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봄날의 국악여정' 가야금 선율 따라 가볼까

3월 19일 남산국악당서 불자연주자 홍경희씨 공연



남산골 한옥마을에 있는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새 봄 다양한 국악을 들을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서울남산국악당에서는 3~4월 두 달 동안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5시 '봄날의 국악여정'이라는 상설 공연이 이어진다.

매주 수요일에는 '황병기 명인의 가야금 산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유파별 가야금 산조 연주가들의 공연이 계속된다.

박현숙, 김해숙, 홍경희, 김승희, 송화자, 김일륜, 이지영, 지애리 등이 가야금 산조를 들려주고 황병기 명인의 해설도 곁들여진다.

이중 3월 19일 공연되는 홍경희 상임이사(대불련 총동문회)의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연주는 주목할만하다. 우조성음이 주를 이룬 이 산조는 애이불비한 느낌을 주는 곡이다. 선율의 차분한 선비적 느낌은 음(줄)을 막아내는 수법과 풍류의 기법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장단은 변화무쌍하여 가락이 장단을 넘나드는 구성으로 돼 있어 국악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높다. 작곡가 강태홍은 신심 깊은 불자로서 생전에 추구했던 반야의 길을 이 곡을 통해 자신만의 색채로 풀어내고 있다. 그래서 평소 구도적 절제를 통한 무한자유를 추구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 불자 연주가 홍경희씨의 공연은 더욱 기대된다.

금요일에는 주목받고 있는 해금 연주가들이 창작음악을 연주한다. 김정림, 이동훈, 김주리, 노은아, 김영미, 사주현, 김준희, 김애라 등이 출연한다.

토요일에는 퓨전국악밴드 '대한사람'(3월)과 '그림'(4월)이 '남산에서 놀다'라는 제목으로 공연한다. 1만~2만원. (02)399-1114 김주일 기자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30 메밀떡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서는 메밀꽃을 '마치 소금을 뿌려 놓은 듯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꽃'으로 묘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메밀은 하얀 꽃이 떨어지고 나면 흑갈색을 띤 씨앗을 남깁니다. 이것이 메밀입니다.

메밀은 마디풀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로 중앙아시아 북부가 원산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재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곡물에 부족한 필수아미노산 다량
항히스타민 작용있어 알레르기에도 좋아

기온이 낮고 고지대인 함경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지에서 생산된 것이 맛과 질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메밀은 쌀에 들어있지 않은 비타민 B1, B2와 철분이 풍부해 쌀이 주식인 우리 식단에서는 꼭 필요한 보조식품입니다. 또한 메밀에는 다른 식물에는 거의 없는 루틴(항산화물질인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이란 성분이 풍부합니다. 루틴은 비타민P의 작용을 하는데, 이는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낮추고 취약성을 강화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모세혈관에 문제가 있는 질환인 혈소판 감소성자반병, 모세혈관저항 저하성자반병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메밀은 한방에서 '교맥'이라 부르는데 맛은 달고 성질이 찬 음식에 속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메밀이 비장과 위장의 습기와 열기를 없애주며 소화가 잘되게 하는 효능이 있어 메밀을 먹으면 묵은 체기가 내려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이나 체질적으로 열과 습한 기운이 많은 사람이 메밀을 먹으면 몸속에 쌓였던 열기와 습기가 빠져나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여름철에 메밀로 만든 국수나 냉면을 먹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메밀떡 재료 : 메밀, 찹쌀, 밤, 소금

만드는 법

① 메밀은 껍질을 벗겨서 곱게 빻는다.
② 찹쌀은 하루 전에 담가 소금으로 밑간을 한 다음 곱게 빻는다.
③ 밤은 껍질을 벗기고 삶아서 절구에 빻아 곱게 고물을 만들어 놓는다.
④ 메밀과 찹쌀은 7:3의 비율로 섞어 찬물로 반죽한다.
⑤ 반죽을 밀판에 1cm 두께로 밀어 먹기 좋게 썰어 끓는 물에 데친 후 건져 밤고물을 두툼하게 묻혀 낸다.

설법 무료특강

15년의 전통을 지닌 한국설법연수원에서는
"맞춤식 설법 개인지도" 연수생 모집 합니다.

■ 교육목표 ◇나의 발견 ◇나의 계발 ◇나의 실현
■ 교육내용 ◇대인불안 공포증해소, 대담한 성격 배양, 자신감, 열정, 호소력, 화술 … 설법실기
◇인사말, 축사, 주례사, 토론, 회의진행법 등
■ 특 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최면(催眠)도 활용합니다.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 6시
무료강좌 / 선착순 15명(신청자에 한함)
■ 문의 및 신청 TEL 02)747-1567 H·P 011-248-1567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나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나를 만들자

한국설법연수원
한국인성개발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2008년 중국베이징올림픽기념 중국의 세계 문화유산 "사해보녕" 문화 사절단
2004년 유엔 교육과학문화 조직 국제유산 UNESCO "중국 세계문화유산"



사해보녕 "금윤법계-묘음비천-구주일통-홍수묘명" 4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1. 금윤법계-불문숭경, 자기향연, 천수천안, 신령구사로.....
*미와선이 암흑세력에 맞서서 싸우며 정의는 최종적으로 승리 할 것 이라는 진리를 애기한다.
2. 묘음비천
귀신을 쫓아낸 후 인간의 산천이 더욱 아름답게 풍요로움을 느끼고 사람의 생활이 성결 해짐을 나타냄.
3. 구주일통
팔기의장, 고무열화, 풍요수하를 통하여 예술을 통하여 민족의 화합, 국가의 강성을 애기함.
4. 홍수묘명
불광보조, 정의산장, 초원래객, 숭속동라등 4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 이 부분은 양관찬란, 만리무운, 음악명쾌 희경열렬으로 되어있는데 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무용으로 축복을 올린다.

● 중국전통 오페라경극
경극은 대략1830년대 청나라 도광(道光) 황제 때에 여러 가지 지방극이 북경에서 융합되어 발전한 것으로 백팔십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790년 청나라 건룡(乾隆) 황제의 80세 생일 때 조정에서는 전국 각지의 유명한 희곡작가들을 북경에 불러 경축 공연을 하게 하였다.

● 공연시간
A Time = 60분 B Time =100분

● 국제문화교류협회 / 도우 초청연혁
2006 스리랑카 국립무용 초청 2007년 네팔왕실 무용 초청

▪ 초 청 :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 / 도우
▪ 홈페이지 : www.108.or.kr (자료동영상을 찾으십시오)

중국문화예술단 공연은 2008년 4월 15일 ~ 7월 15일까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중국문화예술단 공연을 유치하고자 하시는 사찰, 단체는 문의를 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011-1714-8851(24시간) ▪ 후 원 : 불교상조회

인조 정권 정통성 확보 위해 추존된 왕



16대 추존왕 원종– 장릉

(16대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


남한산성 남쪽 암문. 인조반정이 없었다면 남한산성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장릉 안에 있는 연못.


장릉에 소풍 온 아이들.

15대 광해군 묘 다음으로 16대 인조의 능을 순례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추존왕 원종의 장릉이 있어 도리 없이 김포로 간다. 조선 역대 왕들에 대해 직계 후손들은 하나같이 00대왕이라 부른다. 인조에 대해서는, 완곡하게 말해서 평가가 다양하다.

이런 평가도 있다. 조선 왕조에 반정은 두 번 있었다. 폭정을 일삼던 제10대 연산군을 몰아낸 것은 의로운 거사다. 오늘 날로 치면 4 · 19혁명과 같다. 그러나 인조반정은 그렇지 못하다. 반정이란 미명하에 저지른 역적행위요 밥그릇 싸움이다. 이순신까지 탄핵했던 서인당파가 일으킨 폭거가 인조반정이다. 광해군이 용상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조선왕조는 국력을 회복할 수도 있었다. 최악의 자충수를 둔 역사가 인조반정이다. 반정 일파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킨 의병, 의승군의 문하를 몰아내는데도 앞장섰다.

인조반정을 일으킨 이들의 대의명분은 오랑캐 타도였다. 오랑캐 타도라는 어설픈 정책 때문에 온 나라가 병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들이 주장한 오랑캐는 후금이었고, 후금은 얼마 후 중국을 통일한 청나라였다. 전쟁이 발발하자 큰소리치던 인조와 대신들이 가장 먼저 도망쳤다.

정원군은 선조와 인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4명의 아들 중 셋째다. 정원군의 맏아들이 능양군이며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다. 능양군의 동생 능창군이 역모혐의로 광해군에 의해 위리안치되었다가 목을 매 죽었다. 아비인 정원군은 울화병으로 4년 뒤 죽었다. 아비를 잃고 동생을 잃은 인조의 원한은 반정으로 나타났다.

왕이 된 인조는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하려 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조선은 명분 제1주의 사회다. 명분에 살고 명분에 죽는다. 의리와 명분은 분명, 가치를 지닌다. 지조와 절개는 아름답다. 사육신, 삼학사의 행적은 귀감이 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명분을 만들려는 싸움은 우습다.

인조가 왕위에 오른 후, 누구의 대통을 잇느냐는 정통성 문제가 불거졌다. 할아버지 선조의 종통을 잇고 선조를 아버지로 부르고 친부 정원군을 백부로 불러야 한다는 김장생의 주장과 친아버지 정원군을 그대로 아버지로 해야 한다는 박지계 등 공신들의 주장이 대립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허무 개그지만 당시 대신들은 심각했다. 폼생폼사, 명생명사의 시대였으니까.

선조의 대통을 이어야한다는 주장의 속내는 정원군을 왕으로 추존하려는 인조의 뜻을 꺾기 위함이었다. 대군도 아닌 왕자(군)에 불과했던 정원군을 왕으로 추존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예조와 삼사, 유생들이 극렬하게 반대했다. 성균관 유생들은 추존에 찬성한 박지계를 성균관에서 제명하고 수업까지 거부했다.

인조6년(1628)부터 정원군 추숭 프로젝트가 본격화되었다. 반정공신 이귀, 최명길 등이 분위기를 잡아

성균관 유생들 "전례 없다" 반발 극심
인조 즉위 13년만에 종묘에 위폐 봉안



장릉(章陵)은–조선 16대 인조의 부모인 원종(元宗, 1580~1619)과 인헌왕후(仁獻王后, 1578~1626) 구씨를 모신 능이다. 원종은 선조의 다섯 째 아들 정원군으로 용모가 출중하고 태도가 신중했으며, 효성과 우애가 남달라 선조의 사랑을 받았다. 정원군은 처음에 양주군 곡촌리에 묻혔다. 큰아들 능양군(인조)이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르자 정원군은 대원군에 봉해졌다. 묘가 원으로 승격되어 흥경원이라 했다. 1627년 인조는 정원군 묘를 김포현 성산 언덕으로 천정했고, 1632년 다시 왕으로 추존하여 묘호를 원종, 능호를 장릉이라 했다. 인헌왕후는 아들(인조)이 즉위하자 연주부부인이 되었고, 궁호를 계운궁이라 했다. 1626년 49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김포 성산 언덕에 예장하고 원호를 육경원이라 했다. 흥경원을 이곳으로 천장하면서 원호를 흥경원이라 합쳐 불렀다. 원종이 왕으로 추존되자 자동으로 흥경원이란 이름 대신 장릉으로 불린다. 사적 제202호.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산 141–1 면적 51만9816㎡(15만7520평).

나갔다. 주상 전하의 친부를 왕으로 추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반대가 거세자 인조는 1631년 이귀를 이조판서, 최명길을 예조판서에 임명하여 마침내 1632년 뜻을 관철했다. 정원군을 원종으로, 계운궁 구씨를 인헌왕후로 추숭했다.

그러나 논쟁은 끝나지 않는다. 대사헌, 대사간은 반발을 꺾지 않았다.

"왕위 재위자가 아니면 종묘에 봉안되지 못하는 것이 고금의 법도이다. 원종(정원군)은 선조와는 군신관계다. 제왕의 종통은 지엄한데 소종이 대종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종묘에 봉안될 수 없다."

추존왕이 되었으나 종묘에 들어갈 수 없다면 헛수고다. 인조의 머리도 아팠지만 이미 죽은 지 13년, 백골이 진토된 정원군 역시 누운 자리가 편치 않았을 것이다. 제발 날 흔들지 마라. 과공비례(過恭非禮), 효성도 지나치면 불효가 되건만, 억지 춘향도 유분수지 등의 말이 떠오른다.

정원군 추숭례는 인조가 즉위한 지 13년 만에 겨우 결정되어 1635년(인조13)에 원종은 종묘에 위패가 봉안됐다. 인조의 고집은 자신의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한 책략이었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서인에게 스스로 멸시 당한다고 말할 정도로 수모를 겪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으니 성리학의 정통 문법에 반한다. 아비를 왕으로 추존하여 자신의 권위와 위상이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정권의 정통성 확보, 도덕성 확보는 지금도 화두다. 군사정권의 화려한 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냉소를 감수해야 한다. 정통성과 도덕성은 무한 욕구를 가진 비밀의 방이다. 따뜻한 온기를 모락모락 피우다가도 잠시만 방심하면 한순간에 시퍼런 칼이 된다. 출가수행은 물론 속가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살아 있는 것은 칼날 위를 걷는 것이다.

인조의 우격다짐 덕분에 김포 사람들은 좋은 휴식 공간을 만날 수 있다. 150여만 평의 절대 녹지공간, 공원을 가졌다. 능을 중심으로 좌우로 실개천이 흐른다. 개울의 끝자락에는 연이 수북히 자라는 두 개의 연못이 있다. 규모가 커서 저수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조는 훌륭한 아들인가? 아닌가?

능역 바깥으로 장릉을 돌아 연못 옆으로 난 길을 가면 금정사(金井寺)가 있다. 조계종 직할교구 본사인 조계사의 말사로 봉릉사(奉陵寺)라고도 하는데 장릉의 원찰이다. 장릉을 조성하면서 부근에 있던 절을 폐사시키고 창건했는데, 1920년, 1938년에 중수했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불에 탔다.

1970년 고근(古根) 스님이 중수했고, 1974년 비구니 정념(淨念) 스님이 대대적인 불사를 일으켰다. 1981년 대웅전을 새로 짓고 비구니 수행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D) 양초.net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ϕ X 35cm / 야광 용초 70ϕ X 35cm / 원기둥 마패 7.4ϕ X 30cm 등신불 마패 4.7ϕ X 19.5cm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효타 비결서"
(상 · 하권)
아직도 5년 10년씩 역학을 공부하십니까?
역학을 전혀 모르거나 한자를 몰라도 1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효타비결전서가
완전 한글판으로 출판되었습니다.
▷ 정가 : 각 50,000원

역학강좌안내
· 초급 및 중급 과정 6개월
4월 첫 주부터 매주 월요일 18시 – 21시
· 효타비결 전수반 2개월(스님에 한함)
4월 첫 주부터 매주 화, 수 18시 – 20시
· 무료 강좌
3월 한달은 매주 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효타비결전서를 무료로 강의하여 혼자서도
역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수비결"
토정비결의 괘를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 각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2008년의 직업 운, 사업 운,재물 운,이성과의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일진 및 외출하는 날 등
· 한글전용으로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운세를 쉽게 볼 수 있고,
적중률이 높아서 잘 틀리지 않습니다.
▷ 정가 : 30,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어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하여
· 개명,작명,법명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작명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 하십시요.
바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 정가 :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사찰신축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염불 CD, 테이프
스님이 적은 보시금으로
직접제작해 드립니다.
소량제작도 가능합니다.
도현합장
031)829-3115
010-4343-311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정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하년)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자 격 취 득 안 내
◦포교사 분야 : 상담포교사,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불음법회포교사,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국악연주포교사,장묘관리포교사
◦법사분야 : 상담법사,교법사,상담지도법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국악지도법사
◦대법사분야 : 교학사,종학사,종사,대사,선사,율사
(법인등기 제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대한불교전통예술종합대학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무,범음범패,바라춤,나비춤,
사찰행사,49재,점안식, 전통무용 (살풀이,지전춤,
극락무),찬불가 가야금,학인모집,실전교육
051)515-5222
010-3928-0006
무량사 무상 합장
제 1기생 모집(6개월,1년과정)
2008년 3월 8일 입학

이혼녀보호센터
㉮ 오갈데 없는 이혼녀를
보호 해 드립니다
㉯ 심각한 이혼상담
해 드립니다
031)753-8484
011-354-8484

저작권과 불사인연
1. 유발 소승은 30년간 역학지도와
2. 저서를 백여권 쓰고, 법인 종단을
3. 창종한 지 7년 부득이 저작권 급매
4. 불사를 하고자 인연을 기다립니다.
010-2693-7712

명리.육효 수강생모집
명리 .육효란
단 하루를 배우셔도
올바르게 배우셔야 합니다
용 덕 사
문의 051)506-4038

적천수 · 사주명리학 개인지도
명리학의 경전,적천수 10간론
적천수 핵심원리적용,적중률 90%이상
(용신잡는법)(통변)실전위주 책임지도
대운 · 년운의 정확한 운세대입
수년을 공부해도 실전,통변을 못하는분
적천수를 (아는)자만이 (천기)를 안다
신생아작명,모든 운명을 감정해 드립니다
한국 적천수 명리교육원
080)027-4684
010-6730-1186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역학개인지도 · 숙식제공
명리,육효,육임,관상학
구성학,풍수,음양택,성명학,
최면술,빙의,전생,영가치유비법
(보현사 학산철학원)
054)383-4569
016-717-1592

大方廣佛華嚴經
대 방 광 불 화 엄 경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화엄경(80권)
사 교(7권)
법화경(7권)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강본으로 사용
011-545-7252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원인없이 아프신분 영험
궁금증 즉시 해결
수국사 원성 합장
02)2603-2992
011-340-5963

천도재, 구병시식,49재
스님이 되고자 발심함
초심자(행자)을 모집합니다
묵조선 명상선원
종무소 02)464-8305

미국(L.A.)에서 수행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외국비자 있는 스님에 한함
042)282-9270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출가에 뜻이 있는 (女)행자 구함
1. 신분이 확실 한 자
2. 나이 제한 없음
3. 불교대학 과정(지원)
4. 소정의 이수후 주지 발령
문의:010-2599-6020
우리절 육지장사 여여합장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세 이상 60세 전후)
서울 구파발(전철에서 10분거리)
02)352-0572
011-261-057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6-748-3004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도 모십니다
(경북지역 전통사찰)
010-2063-255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대 후반)
▷서울사찰
02)980-0286

법당보살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천년고찰)
041)836-5066

가족처럼 함께 기도하며 지내실 노 비구니 스님 한분과 노보살님 약간 명께 좋은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60세 이후 노후가 어려우신 분들 오셔서가족처럼 사세요
016-9646-0578
054)683-5188
향적사

조용한 암자에서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55)863-4143
011-392-6885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연락바랍니다
(현대식 요사채이면 합니다)
010-4520-6787
054)433-6315

신심있고 진실하게 일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식구는 별로 없습니다
(서울)
010-5430-273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5세부터 65세까지
(보시금 100만원)
010-7160-273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보시는 상담후 결정)
경북지역
나이 50-65세까지
010-3188-5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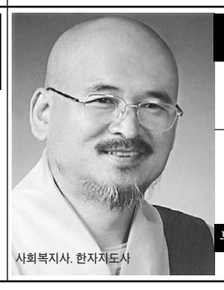
경험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양평)
031)774-6656,6659

부전스님(비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1)266-0330
011-551-1719

역 학 공 부
• 사주초급 : 3월6일 개강(18:30분)
•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 양택 풍수 인테리어 : 3월 첫째 화요일 개강
주역, 풍수금낭경,마의상법
수요일 18:00 수강생 무료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직강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kbs.cc (사주 전과정 완성까지 45만원)
풍수,관상,육효,자미두수,수상 / 수료증 자격증, 졸업생 재택근무가능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02)2264-0258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지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한국(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새법요집,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哲학 學학 講강 義의 나는 아는 바가 없소
성인들의 가르침을 행(行)하였을 뿐이오.
경당문노(耕當問奴)란 말이 있습니다.
농사일은 마땅히 머슴에게 물어보고...
아픈 사람은 마땅히 병원을 찾아야 하듯이...
사주, 궁합, 택일, 학생적성, 작명, 운세 등
중생제도에 알맞는 방편, 화술은 주역선생을
마땅히 찾아 물어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눈은 떳지만 바로 못보네
귀는 열렸지만 바로 듣지 못하고
길은 있지만 바로 못가네
◆ 잘 되고 안되는 짓은 지금 잘 될 짓을 하고 있는가?
고생할 짓을 하고 있는가?
◆ 씨앗도 안뿌리고 추수하시기 바라는가?
◆ 바윗돌에 씨앗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 인연 닿는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 한자는 몰라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 한글은 몰라도 한글을 배울 수 있었듯이...
※ 한번 수강료로 깨우치실 때까지 무료
◈ 장 소 : 寶明寺(보명사) 관악구 신림3동 소재
◈ 일 시 : 2008년 3월 15일(3개월 과정)
매주 2회(토, 일요일) 오후 3~5시
◈ 위 치 :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2번 출구
마을버스 06번 종점에서 하차
◈ 문 의 : 홍보팀 02)738-2045

VIP 여행사
불교성지 순례상품
[불교성지순례]
▶문수도량 : 오대산 순례 + 북경(5박 6일)
₩ 990,000
[불교성지순례]
▶지장도량 : 구화산 순례 + 황산 / 상해 / 항주 / 소주(5박 6일)
₩ 890,000
[불교성지순례]
▶지장도량 :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순례 + 황산(7박 8일)
₩ 1,090,000
[불교성지순례]
▶각원사 / 미안마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순례(5박 6일)
₩ 1,500,000
하나투어 HANATOUR 전문판매점 THECOME
불교성지순례전문여행사
(주)VIP여행사 | 진주시 신안동 8-10번지
신안동 : ☎ 055)743-5001 / Fax 055)743-5003
E-마트 : ☎ 055)741-9999 / Fax 055)742-4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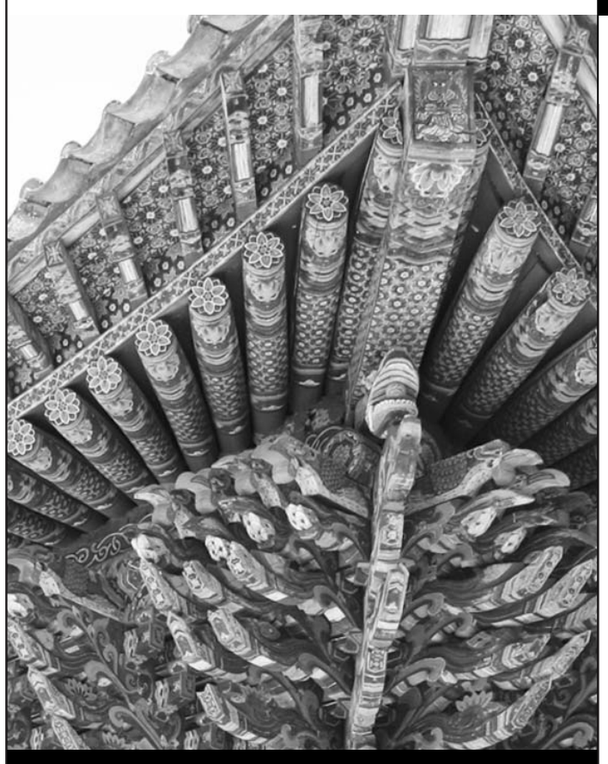
육임 수강생 모집
무자년 운세는 육임으로 보세요.
어떤 것보다 정확하고 명쾌합니다.
운세뿐 아니라 일의 성사 여부와
해결까지 명확한 판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매매에 성사 여부와 가격,
결혼에 시기, 임신여부와 남·여 판단,
시험 운, 이혼 여부 등
「육임 수강생 모집」
■ 육임을 기초에서 백법까지 과정을 함께 공부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를 익힌 다음에는 720 국수자료로 그때그때 알고자하는 질문에 답으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문의 : 02)793-7333
■ 홈페이지 : www.saju79.com(강의 홈페이지)
www.unsemaru.com(운세상담 홈페이지)
■ 사 무 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 (예금주 : 박옥자)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강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특 전 속 성 반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기 간 : 2008년 3월 13일 부터 (4주간)
● 주 간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5시)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부산연수원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 수련비용 : 4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제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운동처방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불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 법당 : 20평
- 요사 : 15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0억

- 전 통 사 찰 -

- 위치 : 지방도시 외곽 10분거리 ●부지 : 5,000평
- 전통사찰 및 일반유적지
- 납골허가 5000기 중 약 400기 안치
- 주차 : 대형버스 20대 주차가능
- 가액 : 40억(즉시 운영가능)
- 대리상담 불가하며 직접상담 시 보안유지 및 방문상담함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 위치 : 의령 정곡
- 대지 : 1000평
- 건물 목조법당 30평+ 10평+15평(3동)
- 요사 30평(공양간)
- 산좋고 물좋고(계곡접) 전망좋은 기도도량 최고
- 양도가 2억 8천만원
- 위치 : 남쪽 바닷가 진해
- 부지 :1500평(주거지역)
- 법당 : 목조 43평(3포,5포)
- 지장전 30평,요사채 40평, 산신각5평 공양간 45평, 대종각, 사무동(2층)40평
- 버스진입 가능, 뒤편에 산세 아주 좋음 정남향, 탁트인 바다전망
- 전통 사찰 최고의 도량 ● 가격:15억

사찰전문 부산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대형사찰 및 임법당 · 포교원 · 사찰부지 다량확보
1억에서 부터 세무상담 및 소유권이전 대행 무료 상담 서비스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지하철역 입구)
- 4층 건물중 3층
- 법당, 방3, 주방
- 보증금 5백만원, 월40만원
  시설비 3300만원
  (시설완벽)

010-2807-7117

사 찰 안 내

- 위치 : 합천
- 평수 : 1530평
  법당15평, 요사채 40평
- 화장실, 샤워실 별도 지하수, 심야보일러 설치
- 법당 앞에 연못과 조경 편안하고 포근한 산자락에 위치한 기도도량
- 가액 : 1억 5천

010-9690-22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구미시내 최고요지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
- 4층 건물 중 3층
- 법당 40평, 요사채 25평, 총 65평, 방3개, 거실, 주방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금 1500만원
- 꼭하실분 가격절충가능 스님 사정상 급매

010-7511-8474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김해시 내동
- 평수 : 총60평(4층 건물중3층)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설, 옥불 200여불
- 보증금 1천만원, 월세절충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 시설 최상급, 몸만오시면가능 스님 해외 공부로 인해 급 안내함

011-628-1156
055)338-132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 법당 : 65평
- 특징 :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전철역에서 5분 거리 롯데백화점 근교, 주차자 완비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90만원
- 최고의 시설로 유학관계로 부득이 저렴하게 양도함

011-9850-134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동
- 평수 : 70평
- 2층 건물중 2층(옥상 사용가)
- 법당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천만원 (상식선에 절충가)

010-3120-1006

사찰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 당고개역 10분거리)
- 총평수 : 807평(전,답)
- 건물 : 조립식 47평,임법당,방3개 욕실, 화장실(실내 2개)
- 하우스 2동, 50평, 15평
- 가액 : 5억6천(내방 후 절충가능)

※오솔길 100m 들어옴

011-9110-7659

사 찰 안 내

- 전철 1호선 동두천 중앙역 앞
- 평수 30평(여유면적 약20평)
- 보증금 300만원, 월 40만원 시설 3개월 되었음
- 사정상 급 안내함 시설비 약간

010-5019-8356
010-3902-3294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부경찰서 정문앞)
- 3층 종무실 27평 방2, 화장실, 거실, 주방 4층 법당 27평
- 3불, 홍탱화, 흑탱화 옥탑 16평 산신각,
- 스님침실, 화장실, 주방
- 보증금 : 4천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019-424-409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 15평 삼존불, 시설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전세 1500만원
- 법사님, 역학하시는 분 환영 60세 이상 연락바랍니다

063)543-5551
018-427-22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감암리 15번지 (용암사) 진주에서 대구가는 국도에서 100m (의령신반에서 5분거리)
- 대구 50분, 창녕 25분, 부산 1시간20분, 진주 1시간 10분
- 면적 : 약 400평 석축공사및 옹벽공사 2000만원소요
- 법당 : 약15평(목조기와 4불및 탱화)
- 요사채 : 30평 (스라브 평당 300만원소요)
- 가액 : 1억 8천만원 (대출 8천만원가능)

011-9506-6612(법사)
011-9329-4241(법사)

사찰안내

- 위치 : 영천시 영천경찰서 부근
- 부지 : 370평
- 방4개, 법당16평, 거실1, 주방1, 심야전기, 주차장 완비

011-769-7029
054)338-0048

도심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아산시(온양온천) 중심가 2층 건물중 2층
- 약 30평
- 법당, 상담실, 내실, 욕실, 거실, 창고 구비
- 보증금 300만원(월 35만원) 시설비 1200만원 교통, 생활편리, 즉시법회가

010-6374-0034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동구 둔촌동
- 법당 : 약30평. 공양간1, 방1
- 보증금 25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5061-2213

토 굴 안 내

- 위치: 부산시 기장
- 대지 56평, 임법당 20평
- 바로 입주 가능 꼭 하실분 가액 절충

018-561-5364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대조동
- 지하철 6호선 2번출구 (로터리 대로변)
- 평수 : 60평(4층 건물중 4층)
- 법당, 삼존불, 칠성단, 신중단, 산신각, 영가단, 각단탱화
- 에어컨 3대, 전광판 2대 법당조명, 음향엠프시설 완비
- 거실, 공양간, 집무실 등 시설완벽
- 보증금 1천만원, 월11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가능

010-6287-3552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2동
- 평수 : 50평(5층)
- 법당, 방2, 사무실, 욕실, 주방, 시설완벽
- 보증금 및 시설비 9천5백만원

017-232-3389

포교당 안내

- 위치: 경기 고양시 토당동 (능곡역 3분 거리, 전철개통 공사 완료)
- 3층 건물중 2층 50평
- 법당, 주방, 거실, 방2, 욕실2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시설 특A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8천만원

010-3116-1992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2층 40평내 법당1, 큰방2. 스님서재방1
- 부처님 삼세불 4자3치, 후불목탱 순금조성 14자6치 신중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칠성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 완벽하고 깔끔한 사찰, 즉시입주
- 전세 6천만원, 월세가능, 주차확실
- 비구니스님도량으로 완벽함
- 주인 직거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011-650-8481

사찰안내

- 위치 : 영천시 영천경찰서 부근
- 부지 : 370평
- 방4개, 법당16평, 거실1, 주방1, 심야전기, 주차장 완비

011-769-7029
054)338-004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 대지 : 109평
- 법당 : 15평(동 주불, 오존불) 옛 사찰터임
- 가액은 답사 후 결정

016-541-436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하양읍
- 대지 : 475평, 밭(전) 238평 목조신축법당 : 31평 (약사여래부처님 7자반, 좌대 4자반)
- 주지실 15평, 구건물요사채 2동(25평)
- 동네 산밑에 있음
- 가액 : 6억(절충가능)

016-813-7409

포교당 안내

-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동
- 평수 : 80평
- 3층 건물중 2층
- 보증금 1000만원, 월62만원 시설비 : 2500만원 시설완비, 즉시법회가

055)372-2090
010-2914-3534

포교원 안내

- 위치: 칠곡군 약목면
- 건평 : 약 45평
- 2층 건물중 2층, 아주편리함
- 법당, 큰방2, 주방, 화장실, 베란다
- 보증금 15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2700만원
- 스님 LA 파견으로 급 안내함

017-217-1919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 3층 건물중 3층(전체사용)
- 총평수 : 140평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후원 10평, 휴식공간 30평 시설 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30만원 전세만 가능 시설비 : 상담 후 절충가능

010-4199-0047

토 굴 임 대

- 위치 : 서부 경남 천년 고찰 사지
- 2층 법당 25평
- 요사 25평, 창고 30평 녹차밭 200평
- 수행 중 요양이 필요한 비구니 선객에게 복지차원에서 무료임대

011-590-979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경기 경계 원도봉산
- 시지 약 300평, 별채 20평 신축건물 임법당 45평,
- 경내 7층석탑, 관음석불, 심야보일러
- 1호선 망월사 전철역에서 5분거리
- 지하수, 상수도 공기 청정하고 조용하며 산세 수려함
- 가액 : 3억 2천만원

016-337-9518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시 오라동
- (공항에서 10분 거리)
- 대지 : 196평. 마당에 연못있음
- 법당 30평, 공양간 25평
- 가액 : 3억8천만원

018-590-3583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팔공산자락 (파계사 근교)
- 대지 : 430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별채 40평
- 삼존불 모셔져있음
- 가액 : 6억 5천만원

대구 시내, 근교 사찰터

- 가액 : 2억 5천 ~20억
- 평수, 금액 다양함 (사찰 양도하실 분 소문없이 해결 해 드립니다)

019-534-7239

별장식 토굴안내

- 위치 : 밀양 표충사방향 단장면 부근
- 대지 : 45평
- 방2, 주방, 욕실 (전기, 수도, 기름보일러)
- 차량진입, 명당토굴 산세수려함
- 가액 : 6천만원 집기일체양도

018-540-53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함창읍
- 대지 총776평 (대지 238평, 전 538평)
- 건물 : 요사채29평, 법당 22평, 창고 10평, 삼성각 2.5평
- 기도도량 유실수 100주 이상 (2~3년생)
- 2006년 10월 등기 대문까지 차량진입 함창읍에서 2~3분
- 가액 : 1억 3천 8백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1-522-9391

암 자 안 내

- 위치 : 강원도 영월
- 부지 : 1200평 건물 5동
- 즉시법회가능 시설일체 조경완비 산세수려함
- 가액 : 1억7천 8백만원

033)372-6494
011-790-919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제주시 외도 1동 부영2단지. 2천세대 대단지 앞
- 굿당으로 최적지
- 법당 15평, 요사완비
- 주차공간 300평 및 채소밭으로 활용가능 시설비품 집세 합 700만원

017-393-1127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마산,진주,고성,통영,함안30분거리
- 가액 : 상담 후 결정(대출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3996-2035

사 찰 안 내

A. 위치 : 대명산 팔공산 대지 80평
- 3층 건평 80평, 심야전기, 에어컨 최고급 시설이 갖추어짐(인공폭포)
- 오시는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2억6천만원

B. 위치 : 김천시 구성면 진흥리
- 대지 510평
- 기존건물 3채(전기, 전화가능)
- 가액 : 7,500만원

*교통 : 승용차 절까지 진입가능

010-8804-8041
053-982-8041

사 찰 중 개

- 위치 : 경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목조
- 요사 : 30평
- 가액 : 10억
- 위치 : 서울산아래
- 대지 : 국유 300
- 법당 : 45평기와
- 요사 : 25평
- 가액 : 9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특)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신도시 부근
- 부지 : 680평(실제 1300평이상 활용) 납골당 가능
- 대웅전 20평, 요사채 2(100평, 20평), 창고 2동
- 도시 속 노송 우거진 풍치 수려한 절 두개의 신도시(차로 5분) 서울(차로 25분) 교통요지 포교와 신행의 최적지, 시설좋음
- 창건주 건강문제로 부득이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주택가격이 평당 500 ~ 1천만원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내방 후 결정

010-5290-3709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김해시 장유면
- 대단지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 평수 : 45평(3층 건물중 2층)
- 최신식 현대시설의 <지장도량>
- 법당, 공양간, 방2, 주차장
- 전세보증금 1천만원, 월55만원 시설비는 현장 확인 후 절충

016-9620-3346

도심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시내중심가
- 평수 : 46평(3층 건물중 2층)
- 법당1, 방3, 사무실, 주방, 세면실2 관음도량, 150 원불
- 역학 포교스님 최고위치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시설비 1500만원

011-258-1147

암 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 대지 : 507평, 법당 : 25평
- 주지실, 극락전 45평, 요사채 40평 기본시설 일체완비
- 가액 : 직접 답사 후 상담 (전화상담 가능)

011-704-2858

암자 터 및 전원주택지 안내

- 위치 : 부산 포교의 중심지 아파트 밀집지역 (대도로옆, 전철역 입구)
- 평수 : 150평
- 법당, 요사, 주방 등 현대식 최신식 최상급시설. 냉,난방 등 일체 시설 완비 ※ 시설비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하겠음
- 보증금 1억, 월 200만원 (월세를 전세로 전환가능)
- 신축불사 관계로 급 안내함

011-594-1526

주택 암자 안내

- 위치 : 강릉시 주문진 소돌 아들 바위 부근 바닷가 5분거리, 주문진 해수욕장
- 텃밭, 집 2채
- 전세 3천500만원 (기한 5년까지 가능) 양도가 6천 500만원(보전 등기 가능)

011-9918-525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홍제지하철역 2분 거리(150m) 내부순환도로 바로연결, 상업지역
- 평수 : 20평(3층)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55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시설A급, 즉시법회, 생활가능함
- 포교원, 법당 처음하시는 분 최적지 침술, 역학치료하시는분 최적지

010-2709-6101

불자정보 계속



봄철 불청객, 황사 대처법

황사의 계절이다. 평소 호흡기가 약했던 사람이나 피부가 민감했던 사람들의 고통이 심해진다. 올해는 예년보다 황사가 잦고 정도도 심할 것이라는 예보도 있었다. 봄철 불청객 황사의 피해를 줄일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녹차로 먼지 씻고 미나리로 독소 말끔히

오염물질로 위험해진 황사

황사는 주로 고비사막, 타클라마칸사막 등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와 황하 상류에서 강한 상층기류를 타고 올라 초속 30m의 편서풍에 실려 온 흙먼지다. 황사가 발생하면 카드뮴, 납 등 오염물질을 포함한 흙먼지가 대기를 황갈색으로 오염시켜 먼지량이 평소의 4배 이상 된다. 황사는 호흡기로 침투해 천식, 비염,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눈에 붙어 결막염, 안구건조증 등의 안질환을 유발한다.

#황사 예방, 차단과 청결이 중요

정부의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황사가 발생했을 때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우선이다. 창문 등은 반드시 닫고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활용해 쾌적하게 유지한다. 외출 때는 마스크, 긴소매 의복 등으로 황사에 직접적인 노출을 피한다. 귀가 후에는 반드시 얼굴, 손 등을 깨끗이 씻는다. 피부과 전문의 유재욱 원장(바름클리닉)은 "봄철에 피지가 왕성하게 분비되지만 황사 등으로 피지에 먼지가 엉겨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쉽다"며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헹군 뒤 차가운 물로 씻어 낸 다음 녹차 우린 물로 헹궈주는 세안법을 권한다.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실내공기를 환기하고 황사에 노출된 오염 물품을 세척한다. 먹을거리도 중요하다. 황사 발생 시는 장독을 닫고, 야채 · 과일 등은 보관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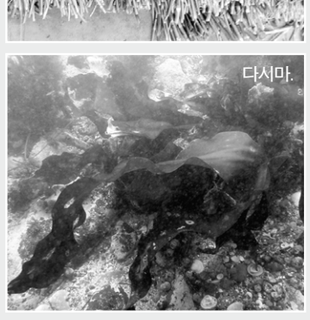
#황사에 좋은 음식은 무엇

황사가 한바탕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삽겹살을 부쩍 찾는다. 삽겹살은 황사 먼지를 정말 씻어주는 걸까? 황사에 도움 되는 다른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

신한승 교수(동국대 식품공학과)는 "돼지고기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돼 폐에 쌓인 공해물질을 중화하는 기능이 있다. 이런 기능 때문에 황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여동현 원장(소중한몸 한의원)은 "<동의보감>에는 돼지고기의 성질이 차고 맛이 달고 독이 없다"고 말한다.

2007년 한국식품연구원이 유해물질 노출 근로자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150g을 매주 2~3회씩 총 6주간 섭취시킨 결과, 납은 약 2%, 카드뮴은 약 9%가 감소하는 효과도 증명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방이 많은 삼겹살은 고혈압, 비만 등 다른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금속 배출을 위해서는 미역, 다시마 등도 효과가 있다.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는 은행, 더덕, 도라지 등이 도움 된다. 여동현 원장은 "은행은 가래를 삭히고 기관지를 튼튼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더덕과 도라지도 폐기를 돕구고 기침을 멎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며 추천했다. 하지만 은행의 경우 도로변에서 채취된 것은 매연 등으로 중금속을 함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콧물이 흐르는 등의 비염에는 도꾸마리씨나 목련꽃 봉우리를 다린 물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해열, 해독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나리와 해장국으로 많이 사용되는 황태도 황사에 도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교수는 "미나리에 풍부한 리그닌과 엽록소성분이 체내의 중금속을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 명태에도 들어있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도 황사에 함유된 공해물질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녹차를 마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녹차는 다량의 비타민이 들어있고, 카테킨 등 성분이 호흡기와 순환기의 활동을 도와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황사로 인한 피해가 외부의 이물질로 인한 것이니만큼 이물질 흡입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22. 황사

매서운 추위도 한풀 꺾이고 봄 기지개를 펼 때가 왔다. 하지만 항상 이맘때면 찾아오는 봄손님 중에 우리가 원치 않는 불청객도 있으니 바로 황사다. 올 겨울에는 황사 발원지인 중국 각지의 폭설로 인해 예년보다 황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했지만 3월 들어 계속 되는 황사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황사는 호흡기나 피부 뿐 아니라 눈 건강에도 치명적이다. 이물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과 다양한 안표면 염증과 정상적인 눈 방어기전을 떨어뜨려 봄철 안질환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우리 눈 표면은 항상 적당한 눈물층으로 덮혀 있어야 건강하게 유지된다. 눈물은 여러가지 다양한 성분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겨울철이 되면 공기 중의 습도가 낮아질 뿐 아니라 기온 저하로 인해 눈물 성분을 만들어 내는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져 눈물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눈이 더 쉽게 충혈되고 안구건조 합병증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에 대기오염이나 황사는 눈에 더 심한 합병증을 초래한다.

황사먼지는 눈 알러지를 유발하는데, 이 시기에는 눈물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어 알러지 증상이 훨씬 심할 수 있다. 과거에는 꽃가루 등이 봄철 알러지의 주된 원인이었지만 최근에는 황사에 의한 알러지가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알러지 반응과 무관하게 미세먼지나 중금속 자체에 의한 자극성 결막염도 발생할 수 있다. 알러지 또는 자극성 결막염으로 인해 눈은 충혈되고 때로는 눈이 심하게 가려우면서 눈꺼풀이 붓는다.

황사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크기가 큰 먼지도 많이 포함돼 있다. 굵은 먼지는 각막이나 결막에 들어가면 눈물에 의해서도 잘 배출이 되지 않는다. 눈에 이물감을 느껴 눈을 심하게 비비면 오히려 각막, 결막에 원치 않는 상처가 나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각막의 이물은 각막 속에 파고들어가서 눈물에 의해 제거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차 세균 궤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각막에 상처가 나거나 각막염이 발생하면 눈은 충혈과 함께 심한 안통을 동반하고 눈물이 계속 난다.



황사 먼지 눈 충혈·각막염 등 유발

외출할 땐 렌즈보다 안경 착용해야

황사가 심한 날에는 안경이나 보안경이 도움이 된다. 이런 날에는 특히 콘텍트렌즈는 착용하지 않은 것이 좋다. 소프트렌즈는 렌즈의 특성상 우리 눈물을 빨아들여 눈 표면의 눈물을 감소 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한 렌즈 자체의 움직임이 적어 눈물 순환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외부 자극에 대한 눈의 정상적인 방어 기능을 감소시켜 황사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된다. 또한 황사에 포함된 먼지나 중금속, 각종 세균이 렌즈 표면에 달라붙어 각막상처, 각막염을 유발하게 된다. 황사가 심한 날은 안경을 쓰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렌즈를 착용하게 된 날은 인공누액을 자주 점안하고 렌즈를 뺀 후에는 렌즈 세척에 신경쓴다.

이와 같이 황사는 알러지, 감염, 자극, 상처 등 다양한 안표면 질환을 유발하며 질환에 따라 치료 방법 또한 모두 다르다. 임의로 인공누액만을 점안하다가 병을 키우는 수도 있다. 따라서 황사로 인해 눈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눈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 한 후에 이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또한 황사가 매우 심한 날에는 가급적 실외에서 지내는 시간을 줄이고 보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02)755-0055

■ 김준헌(소중한안과 원장)

불자정보 670호 |

TEL 02) 2004-8215
732-1522(直)
FAX 02) 737-0696

포교원안내
- 위치 : 정릉 4동 북한산 입구
- 평수 : 4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1-9281-5474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평수 790평 법당 20평
- 요사채 방 4개, 큰 창고
- 비구니 스님 기도처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2억

010-3138-4897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 건평 : 60평, 법당 30평
- 방2, 부엌1
- 보증금 2천만원, 월35만원 시설비 : 1천만원

011-600-312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평수 : 250평
- 대웅전 25평, 삼성각 6평 요사채 30평, 주지실, 종무소 6평
- 전세 6000만원(양도 및 월세가능) 사찰 규모 완벽함, 시설비 절충 스님 해외 공부로 인하여 급 안내함

055)674-5978
011-9393-2323

토굴터안내
- 위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 5,064㎡(약1500평) 임야
- 가액 : 평당 28,000원
- 진입로 포장, 섬진강변

011-647-4444

포교원안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45평(3층)
- 보증금 : 300만원 월세 : 42만원 시설비 : 500만원

011-9552-3976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학장동
- 4층 건물중 4층
- 평수 : 45평
- 주차장완비, 즉시법회가능 시설 A급
- 보증금 8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2700만원

051)313-5589
010-6416-5589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포교의 최적지)
- 6층 건물중 4, 6층. 각 70평, 총 140평
- 법당, 종무실, 방2, 공양간 최신시설완비 즉시 법회 및 숙식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월160만원 시설비 : 꼭 하실분 절충
- 스님 사정상 급 안내 (삼존불 및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미륵불, 관음지장원불)

010-2774-1250
031)653-0355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고창
- 부지 : 약1200평, 법당 : 20평
- 요사채 : 50평, 주지실 : 20평
- 약 100여년된 전통사찰 삼존불 봉안 외 법당 내부시설 완벽 심야보일러 설치
- 가액 : 1억4천만원 필히 하실분만 연락바람

010-3618-7355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청 주변
- 평수 : 40평. 법당, 방2, 주방
- 주차시설편리
- 보증금 2천만원/월15만원 시설비 포함

051)517-4513
011-857-1906
남·여 행자 모집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물야면 (태백산 오전 약수탕)
- 부지 : 2600평(종교용지, 대지 600평)
- 건물 : 법당 25평 (춘양목 5포 7포, 단청, 삼단 닷집)
- 요사채 30평, 누각 18평, 산신각, 명부전
- 현대식 부엌, 화장실 호수 위에 위치하여 500평 마당과 경치가 수려함
- 가액은 협의 후 조정

017-848-333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석촌동(송파역2분거리) 4층 건물중 2층
- 총평수 : 65평, 삼존불, 동불상
- 법당, 방 2, 주방 1 주차가능, 에어컨 3대 살림일체완비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0만원, 220만원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010-3088-3133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중심지 사찰
- 대지 : 230평 법당 25평, 요사 50평
- 주차시설완비
- 가액 : 7억원

- 위치 : 부산중심지 산밑
- 대지 : 80평, 법당 20평(슬라브) 요사 40평(슬라브)
- 가액 : 2억6천

018-554-6198

포교원(급)안내
아래 포교당은 감포기도도량으로 몸만 들어오시면 즉시법회가능함
- 위치 : 대구시 중구 남산동 (남문상가 2층 40평)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천2백만원)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팔도시장 내 40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35만원 (시설비 700만원)

010-7207-3323

재단법인 한·중·원 **금강불교 조계종 입종안내**

● 총본산 : 경남 통영시 용봉사

본 종단은 금강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고 부처님 정법을 널리 홍보하고 각 寺,庵의 재산권은 주지가 책임지고 총무원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함.

■ 입종구비서류
- 입종신청서(총무원 비치, 요청 시 팩스 혹은 우편 발송)
- 주민등록등본 2통
- 승적서류, 타종단 승려증 사본 2통
- 사찰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각2통
- 여권용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외부) 각 한장씩

※ 입종시 사찰등록증,주지임명장,승려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예비승 · 행자모집
-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서류전형후 면접)

■ 처사 · 공양주 하실 분 모집
- 문의처 : 재단법인 한,중,원 금강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 소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740번지
  TEL 055)649-5959 / FAX 055)649-5974
- 담 당 : 총무국장 011-857-1865

총무원장 혜명 합장

관직 버리고 백련결사 결성 염불수행 매진

중국불교의 거사들 〈5〉

여산 혜원문하의 거사들❷

백련결사의 주역 류유민(劉遺民)

여산 동림사(東林寺) 혜원 스님의 문하에서는 수많은 거사들이 활동했다. 그중 가장 뛰어난 공로를 남긴 거사는 사령운(謝靈運)과 류유민(劉遺民: 352~410) 거사이다. 류유민 거사는 당시 최고의 가문 출신으로 고위 관직을 두루 거치며 사치하고 호탕했던 사령운 거사와 대조적이다. 류유민 거사도 한(漢)나라 초원왕(楚元王)의 후예로 귀족가문 출신이다.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뛰어난 실력을 지녔지만 결코 드러내지 않고 겸손했다. 동진(東晋)의 승상 환원(桓元)과 시중(侍中) 사곤(謝琨), 태위(太尉) 류유(劉裕) 등 당시의 최고 실권자들이 류 거사의 실력을 알아보고 관직을 추천하여 참군(參軍)과 현령(縣令)을 맡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혼란한 정세를 비판하며 관직을 거절했다. 거사는 진하게 교류하던 주속지(周續之)와 도연명(陶淵明) 등과 함께 관직에서 물러났고,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삼은(三隱)'이라 칭했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 거사는 동림사 혜원 스님을 찾았다. 팽제청(彭際淸)의 <거사전>에는 혜원 스님과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스님이 "관록이 높고 높은데 어째서 마다하는가?"라고 묻자 거사는 "동진은 반석이 견고하지 않고, 세상이 계란을 쌓아놓은 듯하니 어찌 제가 관직을 맡겠습니까? 태위 류유가 저의 굽히지 않음을 보고 '유민(遺民)'이라는 호를 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거사의 이름이 본래 '정지(程之)'였으나, 관직을 그만 두고 평민으로 남아 있다는 의미의 '유민'을 호로 삼게 된 유래다..

혜원 스님 문하에 들어온 거사는 서림(西林)의 계곡 북쪽에 선방을 지어놓고 청빈하게 수행했다. 류유민 거사가 혜원 스님 문하로 들어오자 뢰중륜(雷仲倫), 장래민(張萊民), 장수실(張秀實) 등이 거사를 따라 입산했고, 후에 주속지와 도연명 등도 동참했다.

<거사전>에 따르면, 수행하는 거사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혜원 스님은 류유민 등 거사들에게 "여러분이 이 도량에 온 것은 분명 정토에 뜻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며 '백련결사(白蓮結社)'를 결성했다고 한다. 류유민 거사가 관직을 버리고 혜원 스님의 문하를 찾은 것이 태원(太元) 10년(395)이고, 백련결사가 결성된 때가 원흥(元興) 원년(402) 7월의 일이니, 거사가 혜원 스님의 문하에 머문 지 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백련결사'와 관련된 자료에서 혜원 스님이 행한 '염불삼매(念佛三昧)'의 수행과 관련된 것 외에 결사의 동기를 짐작하게 하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도선(道宣)의 <석혜원여류유민서(釋慧遠與劉遺民書)>의 주에 따르면, "류유민 거사가 혜원 스님 문하에 머물자 종병(宗炳), 장야(張野), 주속지(周續之), 뇌차종(雷次宗) 등 당시 뛰어난 문인과 학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불법의 도리를 깊이 연구했는데 그 중 류유민 거사가 가장 뛰어났다. 류 거사는 이런 모임을 영원히 지속하기를 희망했다"는 내용이 보인다. 여기서 필자는 '백련결사'의 결성이 류유민 거사가 혜원 스님에게 건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추론한다. 특히 앞에서 언급된 모든 거사들이 '백련결사'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사실은 그 심증을 더해준다.

혼란한 정세 비관 관직 물러나 혜원 스님 문하로
뛰어난 문인·학자들과 의기투합 염불·경학 공부

'백련결사'는 동림사 반야대(般若臺) 무량수불상(無量壽佛像)을 앞에서 '염불삼매(念佛三昧)'를 닦고, '서방왕생(西方往生)'을 기원하는 서원으로 결성됐다. 혜원 스님을 필두로 해 혜영(慧永), 혜지(慧持), 담순(曇順), 담항(曇恒), 도생(道生), 혜예(慧叡), 도경(道敬), 도병(道昺), 담선(曇詵), 백의(白衣), 서역으로부터 온 불태야사(佛馱耶舍) 등의 스님들과 류유민, 장야, 종병, 장전(張詮), 주속지, 뢰차종 등의 18인을 상수(上首)로 한 승속을 포함한 123명이 참여했다. 혜원 스님은 류유민 거사에게 <발원문>을 짓도록 했다. '백련결사'는 동참자들이 점차로 늘었고, '정토'의 가르침이 흥성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쳐 '결사(結社)'의 선범(先範)이 되었다. 중국에 있어서는 원(元)나라 지대(至大) 원년(1308)에 '백련결사'를 황제의 령으로 금지시켰다가 동림사의 우담보도(優曇普度: ?~1330) 스님이 <여산련종보감(廬山蓮宗寶鑑)> 10권을 찬술해 황제에게 상주하고 그 종지를 밝힘으로 다시 재개돼 현재에까지 이어졌다.



그림 · 김홍인

류유민 거사는 '백련결사' 이후에 더욱 염불수행에 정진했다. 그의 전기에는 류 거사가 '백련결사' 후 3년째 수행할 때 선정(禪定) 가운데 아미타불의 광명이 땅을 비치니 모두 금색으로 변하는 것을 봤다고 한다. 그로부터 수년 후 한마음으로 염불수행하던 중에 아미타불이 옥호의 광명을 비치며 팔을 드리워 이마를 어루만진 일도 있었다. 류유민 거사가 "어지해 여래께서는 저의 이마만을 만지십니까? 옷으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라고 하자 부처님이 이마를 만지시며 가사를 끌어 그를 덮어줬다. 후에 또 다른 꿈에서는 거사가 칠보의 연못에 들어가니, 청색과 백색의 연꽃들이 가득한데 그 물이 매우 맑았다. 이마에는 원광(圓光)이 빛나고 가슴에는 만자(卍字)가 드러나 있는 어떤 사람이 연못의 물을 가리키며, "팔공덕수(八功德水)다. 너는 이 물을 마셔 보거라"라고 말했다. 거사가 물을 마시니 매우 감미로웠다. 잠에서 깼을 때도 한동안 기이한 향기가 몸에서 풍겼다. 그때 류 거사는 사람들에게 "내게 정토의 인연이 이르렀다"고 말하고는 스님을 청해 <묘법연화경>을 수백 번을 염송했다. 그 후 류유민 거사는 불상에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하고 축원하기를, "저는 석가모니불의 유교(遺敎)로써 아미타불이 계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이 향을 석가여래불에게 공양하고, 다음에는 아미타불과 <묘법연화경>에게 공양해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원합니다. 이 경전의 공덕으로 모든 유정이 정토에 왕생하기를 서원합니다"라고 말하고는 대중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서쪽을 향해 합장하고 입적했다. 거사는 입적 전 아들에게 "관 대신 흙으로 벽을 쌓아 무덤을 만들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거사가 입적한 지 6년 후, 혜원 스님이 감실(龕室)에서 좌선하다 깨어보니, 아미타불의 불신이 허공에 가득 차 있었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좌우에서 시봉하고 있었다. 류유민 거사와 먼저 입적한 스님들이 합장하며 말하기를, "대사는 일찍이 발심했는데, 어째서 이리 늦게 오십니까?"라고 했다. 7일 후 혜원 스님이 입적했다.

류유민 거사는 훨씬히 염불수행에 매진했다. 하지만 류유민 거사의 사상은 단지 '염불수행'과 '왕생정토'에 국한되지 않는다. 류 거사는 당시 유행하던 반야학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예를 보였다. 구마라집(鳩摩羅什)의 수제자인 승조(僧肇)가 찬술한 <반야무지론(般若無知論)>을 도생 스님이 북방에서 가져왔을 때 류 거사는 읽고 찬탄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혜원 스님에게 보여주자 스님도 감탄하며 거사에게 몇 가지 의문점들을 승조에게 질문하도록 했다.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승조의 <조론(肇論)>에 실려 있는 <류유민서문부(劉遺民書問附)>이고, 이에 대한 승조의 답장이 <답류유민서(答劉遺民書)>이다. 여기에서 거사의 예리한 탁견을 엿볼 수 있다. 거사의 질문과 승조의 답변은 당시 남북으로 대별된 불교학풍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 흥미롭다. 승우(僧祐)의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과 도선(道宣)의 <대당내전록(大唐內典錄)>에 따르면, 거사에게 <석심무의(釋心無義)>라는 저작이 있다고 하지만 아쉽게도 현존하지 않는다.

류유민 거사가 살았던 시기는 서진의 멸망과 동진의 건국, 그리고 제후들의 궐기로 인해 전란이 끊이지 않고 제국의 명멸이 교차하던 중국 역사상 가장 복잡한 시기였다. 혜원 스님의 훨저한 수행과 '사문(沙門)'은 세속의 왕에게는 예를 표할 수 없다'는 출가인의 기개로 여산 일대는 정치적 무풍지대로 인정받아 혼란기에도 불법의 혜명을 존속할 수 있었다. 여기에 중국불교사상 최초의 '결사'인 '백련결사'가 큰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필자의 추론처럼 '백련결사'가 류유민 거사의 건의로 이뤄졌던 혹은 혜원 스님의 결정에 의한 것이든 관계없이 자료들은 류유민 거사의 이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백련결사가 재가자와 출가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류유민 거사가 보여준 훨저한 수행은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 이르기까지 거사불교의 귀감이 된다.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김진무 연구교수



〈바로보인 선문염송 11권〉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역저한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 11권 출간!
전 30권의 대장정이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회 안내
• 매월 첫째 일요일 –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 매월 둘째 일요일 –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 매월 셋째 일요일 –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 매월 넷째 일요일 –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www.zenparadise.com

발 로 해
(특수기능성 두한족열 양말)



발 로 해 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참선,명상,성지순례,등산,운전,고시수험생)
◉양말 내부의 금장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독소,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보들보들,보송보송 100%보장!

KBS(생로병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명복한오후)출연
SBS스페셜(0.2평의 기적)출연 BBS불교방송(무명을 밝히고)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 2만원 (배송은 무료)

주문처 :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본 종단에서는 석가세존의 자비사상바탕으로 수행정진에 힘쓰는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사찰 및 사암등록을 환영합니다

※ 행자모집(스님이 되고자하는분) : 일체 교육비 받지 않음(6개월간 무료 교육) 스님 양성

※ 동자모집(불우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대학까지 책임지고 교육)

▫ 유관단체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세계불교무술총연합회, 한국불교사암총연합회
세계불교고승연합회, 영남범음범패 교육원

※본 종단 입종후 종도연수교육 수료한후 승려증을 발급합니다.
※본 종단은 강원 및 율원 선원 불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범음범패 이수 받으실분은 문의 바랍니다.
※본 종단에서는 무속인은 일체등록을 불허합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고원사
TEL : 054)382-3363,3397 / FAX : 054)383-5005 www.gowonsa.com



길을 묻는 이에게

제670호 현대불교
2008년 3월 12일(음력 2월 5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아주 적중하게 알맞게 자고 알맞게 깨어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여): 포항지원에서 왔습니다. 어떠한 인연으로 이렇게 제가 복을 받게 됐는지 스님 가까이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스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요, 요즘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여쭙고 싶거든요. 얼마 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양을 복제를 했다 그러고요, 또 미국에서는 원숭이를 복제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인간까지도 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을 복제하고 싶다면 어떤 사람을 복제하고 싶냐고 앙케이트 조사까지 했더니만 세종대왕과 이순신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복제하고 싶다고까지 말이 나왔습디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저를 만약에 복제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외양이나 모습은 저를 닮았을 줄 모르지만 그 마음 또한 똑같을는지요.

그리고 그 마음 또한 일체 만물만생과 연결되는 한마음, 참마음이 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또한 그 마음 또한 저와 인연이 지어져서 그렇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스님: 그렇게 복제를 한다면, 여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습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각양각색으로 찰나찰나 변하고 천차만별로 쓰이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의 차원에 따라서 어떻게 될 테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되는 건 아니지만 그 몇 가지의 조목을 넣어서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넣어서 하면 되죠.

질문자2(여): 그리고 또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스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너무 미약해서 마음공부를 한다고 사실 말하기조차 부끄럽지만요, 예전에 공부하기 전과 지금 공부할 때 달라진 제 모습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공부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상대로 인해가지고 제 모습은 보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생겨가지고 상대를 보고 원망하며 제 마음도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차츰차츰 작아지면서 이제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 한 모금이 먹고 싶어서 컵에 한 잔을 따랐다가도 저도 모르게 '주인공, 감사해!' 하는 마음과 '일체 만물만생에게 감사해!' 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잘해가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스님께서는 한 마음 전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력을 뻗쳐 넣고 있는데 그걸 끌어다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그림 · 최주현

희들이 좀 끌어 쓰고 싶거든요. 어떻게 끌어 써야 잘 쓰는 건지 또한 어떻게 꽂아야 불이 들어오는 건지도 저는 아직 미약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한마음 전력에다가 코드를 잘 꽂아가지고 저희들 마음공부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마음 한 말씀 주셨으면 합니다.

스님: 그런데 말이야, 지금 마음이 아니라, 다 그렇게 욕심 부리고 그러는 마음 말고 말이야, 움죽거리지 않는 마음이 바로 중심이 되거든요. 심봉이 돼요. 그 마음과 이렇게 동일하게 됨으로써 거기에다 코드를 꽂거든요. 음, 그런데 그것은 자연적으로, 아까도 뭐 복제한다고 그랬지요?

그랬는데 그것도 기계화로 입력을 해서 넣는 거지 스스로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마음이 나와서 이게 수시로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만 모두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욕망, 의욕, 그것도 좋은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그대로 '왔다' 야, 그냥 아주. 하하하. 시쳇말로 말입니다.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하다면 그냥 뭉청뭉청 무너져요. 그 유전성이라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업보성, 인연, 인과성, 세균성이 그냥 몽땅몽땅 무너져요. 무너지게 되면 환하게 문 아닌 문이 보여요. 그랬을 때에 그 문으로 털썩 들어서면 들어서는 사이 없이 들어서게 돼요. 그러면 뭐,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주인이 자긴데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감사하면 모두가 녹아지게 돼 있어요. 그전에 내가 공부할 당시에 빨치산으로 붙들렸단 말이야. 붙들려서 끌려갔는데 (손가락을 가리키시며) 여기다가 막대기를 넣고 고문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빨치산 그런 사람들, 무척 붙들리고 그런 때야. 그런데 그렇게 고문을 하는데도 하나도 그 사람이 원망이 되지 않고 내가 감사하게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아하, 내 주인공이, 얼른 쉽게 말해서 내 주인공이 나를 다스리느라고 저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을 오히려 수고를 하게끔 만들었구나.' 하는 거야. 수고를 하게끔 만든 것 아니냐고. 나 때문에 말이에요. 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기껏하고 이제 그 방 문 이렇게 설주 있는 산골 문 있잖아, 그 방에다 넣고 바깥으로 문을 잠갔는데, 그 사복을 하고 있던 형사들이 모두 그렇게 자더라고. 그래 거기다 넣었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는 뭐 이만하면 됐으니까 가자.' 내 생각에 '가자' 그러고선 문 한쪽을 이렇게 드니까 기다랗게 설주 끼었던 그 한쪽이 쑥 빠지면서 그냥 이렇게 열리는 거야. 하하하.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책상에 여섯 명이 양쪽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엎드려서 자는 거야, 건빵을 먹다가요. (대중 웃음) 건빵하고 물하고 모두 먹다가 놓고 그냥 자는 거야, 너무 피곤해서 말이야. 그래서 건빵을 주섬주섬 또 주워서 하하, (대중 웃음) 주머니에 넣고 그러고서는 슬슬 물 한 모금 또 거기 있기에 마시고 그러고선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하하. (대중 웃음) 아, 이러곤 나왔더니 말입니다.

그 죄 없이 상처 입은 건 빨리 낫습디다. 그러니깐 죄 없이 상처를 입은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조금씩 흠이 있지만 그냥 금방 나아버려요. 아프질 않아요. 이 마음이 아픈 것이 문제지 이 살덩어리 아픈 건 금방 나아요. 마음이 좋으면 그냥 금방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들지 말고 사시라 이겁니다. 가는 날까지 병들지 않아야 사람이 살맛이 나지 병들게 되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죠. 그러니 모두 내 집 지키는데, 내 집 지키기를 아주 자기네 보물단지 넣어놓고 지금 집에서들 살듯이, 그 집을 지키듯이 자기 몸뚱이 집도 지키셔야 합니다. 주인이 없으면 아무나 들어와서 자고 가니깐요. 허허. 그러고요?

질문자2(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님: 아니, 말 다 했어요? 하하. 그래요. 아주 그만큼 감사한 마음이 일체 생겼다는 것이 벌써, 당신 그 과거 부(父)와 현재 자(子)가 만남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질문자3(남): 성남에서 왔습니다. 제가 스님께 질문을 할 그럴 자격이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데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루하루 넘기기 힘들 정도로 어떤 육체적 고통들이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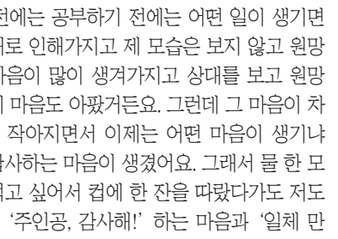
스님: 다리 아픈데 조금 다가와서 해요. 편히 앉아서 다리 이렇게 편히 앉아서 해요. 옳지요.

질문자3(남):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 정도로 육체적 고통들이 있는데 단순히 이런 차원에서 끝난다면 제가 이렇게 스님께 질문을 드릴 이유도 없지마는 이런 육체적 고통 뒤에 보이지 않는 마음들이 있어서 때때로 제 마음을 돌아다 보면 그런 육체적 고통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곤 하고 뭔지 모를 어떤 마음의 희열들이 느껴집니다. 저 자신에게도 해당되겠지만 모든 인간들에게 어떤 육체적 고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바라볼 때 마음공부 하는 것하고 육체적 질병이 있는 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를 첫 번째 청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하고 같이 온 분이 제가 질문을 하러 나가니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여쭙겠는데요, 수련 중에 수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고요, 또 잠을 좀 적게 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음, 그거야 뭐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집이가 어떠한 고통이든지 막론하고 어떠한 고통의 용도든지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하나 지나고 나면 또 오고 또 오고 이런 게 있어요. 사는 게 그렇고 진리가 그러하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나한테 닥쳐올 때마다 자기 주인공인, 즉 말하자면 자기 몸뚱인 싹과 같고 자기 주인공은 뿌리와 같은 거야,

☞26면으로 계속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004-중-1784호 〈광고〉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 동신방 한의원에서 - 한방(韓方)요법으로 다스려!
◆ 허리, 목 디스크 한방요법 치료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 퇴행성 관절염 통증
◉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
◉ 목, 허리 디스크 통증
동신방 한의원에서는 한의학적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
동신방 한의원에서는 허리, 목 부분까지 연결 된 척추뼈 사이에 있는 섬유 태와 그 사이에 들어있는 수액을 디스크(추 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거나 파괴되어 생긴 병이라고 하며, 동신방 한의원은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나 목과같이 많이 움직이거나 충격을 가해졌을때 추간판이 정상적인 위치를 벗어나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얘기하고 동신방 한의원에서는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저희 한의원의 노하우가 담긴 처방을 사용하여 한약재를 깨끗한 물을 이용하여 한의학 방법으로 만들어 지는 약물 치료 요법으로 디스크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한다고 동신방 한의원은 말한다.
동신방한의원 문의 080-598-9832

부처님의 말씀을.. 스님의 법문을..
황홀한 아름다운 풍경을 가슴에 담고
추억의 마음에 남기면서
잊지 못할 한순간 한순간을
작은 공간에 가득히 담아 소중히 담아
영원히 남기세요
풍경 영상과 함께..... 풍경 영상 기획 사업부
사찰홍보, 사찰행사, 자서전(다큐멘타리)
단체 사찰성지순례, 스님 강의, 법문
• 약력 : – 한국비디오 작가 연합회 정회원
– 한국디지털 비디오 영상 편집실 실장
– 방송 아카데미
– VJ특공대
– KDV 경남본부장

풍경영상기획 055)867-0844, 746-2778
※신문구독 신청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055)867-0776

사단법인 대한호국 불교 소림선종
입 종 안 내
달마조사께서 주석 하셨던 중국 숭산소림사의 달마조사 33대제자 석영신방장 큰 스님으로부터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총무원장 덕산 석연화 큰 스님과 10여명의 소림선종의 스님들이 달마조사 34대제자로 중국 숭산소림사 큰 법당에서 소림 1600년사에 외국스님들에게는 최초로 금년 1월 23일 수계법회가 여법히 거행되었음을 중국언론에서 특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로 중국 숭산소림사 석영신방장 일행 23명의 소림스님들이 서울 인사동 소재 중국 숭산소림사 한국문화원본부 현판식 참석 및 소림무술 공연 행사를 (2월 18일~2월 21일) 서울 신촌 봉원사와 원주 소림선종 본찰 용화사, 부산 해동용궁사에서 거행하였고 그리고 본 종단의 숙원 사업인 소림승가대학과 소림중앙선원 소림무술학교 건립불사를 시행하여 본 종단의 면모를 여법히 갖추고져 합니다. 이에 때를 같이하여 뜻을 함께하실 대덕큰스님과 종도 및 행자님을 모시고져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국소림사에서 달마조사의 제자로 수·도계첩 수여(입종비:15만원)
◇입종시 :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부여
◇입종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승려증사본 2통, 이력서 1통, 여권사진 5매
소림문화원 개원에 따른 수강생 모집
(개강일 4월 1일)
■ 명상수행 : 새벽반, 오후반(무료)
■ 서화(동양화) : 주 3회 2시간 청곡 이한동선생(3개월 10만원)
■ 서 예 : 주 3회 2시간 석천 김기섭 선생
■ 소림무술 : 소림무술스님 : 석연체스님, 석연탁스님(소림사 석영신방장님제자), 스님 무료(입종스님에 한함)
■ 대상: 스님, 일반인, 학생
중국 숭산 소림사 한국문화원
소림선종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70번지 동일빌딩 6층
전화 02)720-6363 / 팩스 02)720-6340 / 담당 010-6438-3561
인터넷 동영상:(야후) 연합불교방송

모든 생활이 공부니까 열심히들 해 보세요!

☞25면에서 계속

불성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광대무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 구성된 하나의 바로 불성이니까, 불성이 중심을 꿰어서 바퀴가 돌아가듯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싹은 뿌리를 믿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너만이, 마음이 의욕이 생기고 편안케 할 수 있고 너만이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너만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너만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한다고 믿는다면 차차로 살아나가는 것도 편리해지고 또 가정도 편리해져요, 차차 말이에요. 마음이 한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연 중에 그, 부처님 일체 마음이 바로 비 내리듯 해서 나의 마음을 촉촉하게 하고, 식구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거야. 그게 자비의 꽃과 같은 꽃잎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서로서로 살기도 여유가 있어지고 사람의 마음도 여유가 있어지고 그러니 사람의 혈색이 좋아지고 사람이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 어떤 거든지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다스리는 그 선장한테 맡기란 얘기입니다.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스님: 그리고 아까 잠 얘기 했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졸리면 자고 또 졸리지 않으면 일어나고, 배고프면 밥 먹고, 또 똥 누고 싶으면 똥 누고, 이 세 가지 네 가지 이 자체가 그냥, 전체 진리에 관한 건이 몽땅 다 그 자리에 들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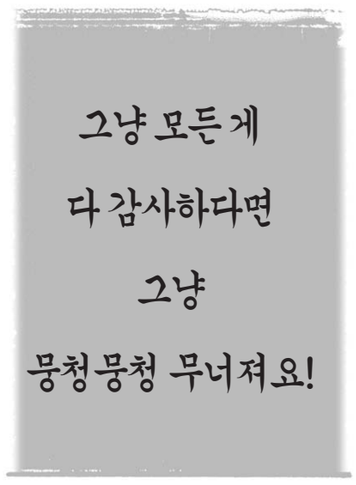
그러니까 그렇게 말들도 하지만 지금 속가에서 살면서 잠을 너무 자도 안 되고 너무 안 자도 또 안 돼. 너무 안 자도 몸이 망가지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아주 적중하게 알맞게 자고 알맞게 깨어라 이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건 다 지내봐요. 그전에 세시 반에 일어나서 도량석 하고 종송 하고 예불 올리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눈이 오면 또 쓸고. 내가 그렇게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눈이 와서 목탁을 들 수가 없이 저거 했어도 치면서 손이 얼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눈물이 흐를 수가 없어, 고맙고. 그 쇳송소리가 어디만큼 가느냐 하면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그 소리가 다 돌고 남음이 있어. 그렇기 때문이야. 그 쇳송하다가도 그 쇳송 하는 소리 그 자체가 그냥 전부 내 눈물이었어. 그랬듯이 하여튼 모든 생활이 공부니까 열심히들 해봐.

질문자3(남): 예. 알겠습니다.

스님: 자는 것도 우리가 하는데 세시에 일어나면 줄창 그 시간이면 일어나야겠으니까, 일어나야겠으니까 아주 못을 박은 거 아냐. 그러니깐 저절로 그 시간이 되면 깨져, 그냥 깨져요! 지금도 그 시간이면 깨진다고. 지금 내가 안 하고 모두 이 스님네들이 하는데도 내가 깨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딱 한 번 '이 시간은 깨져야 돼!' 하면, 그러니까 아홉시에 자걸랑은 여섯시에 일어나기로 하든지 다섯시에 일어나도 되겠지. 다섯시에 일어나도 능준하지. 하니까 열시에 자면 또 한 시간 늦춰서 여섯시에 일어나든가. 그렇게 적중하게 그저 사람이 사는 동안 여섯 시간 반이나 그렇게 자면 족하지 않아? 난 족하다고 봐. 일곱 시간, 여섯 시간 뭐 여섯 시간 반.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을 향해서 얘기야. 젊은 사람들은 여섯 시간이면 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지.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깨고 싶으면 깨고 이러란 말입니다. 잠자는 것도 좌선이요 서 있는 것도 좌선이요 일하는 것도 좌선이요 누운 것도 좌선이요 앉아있는 것도 좌선이야. 이 마음이 좌선이 돼야지 몸뚱이가 좌선을 한다고 해서 좌선이 아니거든.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좌선이지.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구애받지 말고…. 잠이 안 온대? 잠이 많이 자진대? 허허.



질문자3(남): 잠이 많이, 아니 잠이 많이….

스님: 잠을 너무 지나치게 잔다 이거죠?

질문자3(남): 그게 아니라 수련을 하는데 잠의 유혹이 너무 이렇게 심해서요.

스님: 오, 수련하는데, 수련하는데 졸리면 그냥 자는 것도 수련이야. (대중 웃음) 이 공부가 왜 편안한 줄 알아? 졸려서 자는 것도 수련이기 때문에 그냥 자는 거야. 편안하게 좀 배우라고. 그래서 몸을 그냥 움치고 그냥 우그려뜨려 앉혀놓고선 애쓰게 만드는 게 그게 수련이 아냐. 자유스럽게 몸을 두면서 이 마음이 움죽거리지 않게 하는 거야. 어때? 모두 무슨 호흡 한다고들 해가지고 병이 들어선 나한테 와서 그걸 고쳐 달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밖엔 할 수가 없어서 관하는 거 가르치고 그래서 더러 나았지.

그런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을 열고 나올 줄 알아야지. 문으로 그냥 문을 열고 그냥 들여보내기만 하고 빼낼 줄 모르면 그건 병들지, 그냥. 스님네들이 예전에 혈관조절 하기 위해서 단전호흡이 필요했던 거야. 앉아서 정진하니까 그 피 순환을 시키느라고. 그런데 그것을 넣었다가 확 펴서 온기를 다 빼야 될 텐데 넣기만 하고 그냥 할 줄 모르니까 거기서 정수리로 뜨거운 김이 막 나가고 귀로 빠지고 그냥 이렇게 떨리고 그냥, 기를 빼지 못해서 모두 병신이 돼버리지. 항상 먹는 그릇도 물을 떴으면 먹고, 빈 컵이 나가서 다시 물을 먹고 싶으면 떠야 이게 정상인 거라. 그런데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는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붓기만 하고 이걸 먹을 줄도 모르고 남을 줄 줄도 모른다면 이 물은 썩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졸리면 자는 것도 좌선이기 때문에 그냥 자라고 그래요.

질문자3(남): 예, 알겠습니다.

스님: 구애받지 말고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놓고, 자게 하는 것도 네놈 안 자게 하는 놈도 네놈, 먹게 하는 놈도 네놈 못 먹게 하는 것도 네놈, 살게 하는 것도 네놈 못살게 된 것도 네놈. 그러니깐 잘 생각해서 그냥 맑은 물로 만들어서 먹게 만들어야지. 안 그래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지요? (대중 웃음) 그거 자기 뿌리의 불성을 믿고 한번 그렇게 해봐요.

질문자3(남): 네. 알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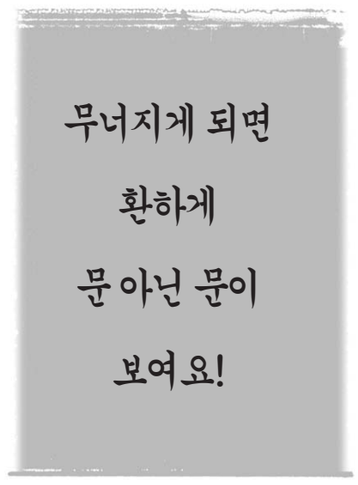
스님: 난, 고깃덩어리인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야. 나를 따르기만 하고 믿진 말아요. 믿는 건 네 주인공 네 바로 불성을 믿어라 이겁니다.

질문자4(여): 저는 이절 저절 다니다가 어느 곳에서 '옴마니반메훔'이 잡귀를 떨친다 해서 우리 집의 영가님들이 다 천도가 안된 것 같아서 저는 '옴마니반메훔'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음도 많이 좋아지고 다 좋아진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아파서 우리 영가님들을 다 천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천도도 몰랐습니다. 저는 불도를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영가님들 천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스님의 테이프 안에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동감이 굉장히 돼서 그 다음날 떠나서 L.A.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스님을 뵙고 제가 감히 우리 아들을 스님이 한번 봐주셨으면 해서 (대중 웃음) 전 여기 꿴 다음에 한마음공부를 그때서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욕심이 많아 가지고 남들은 다 스님 뵙고 이렇게 좋은 비디오가 나오고 테이프가 나왔는데 나는 스님 한 번 친견 못하고 비디오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아이고 나도 부럽다, 어서 서울 가서 스님을 뵈련다 하고 제가 그 다음날 따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님을 제가 그때 뵐 때 이런 말은 못하고,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말은 제가 못하고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아들 효자예요. 우리 아들 너무 좋은 아들이에요. 정말 착하고 불심이 너무 좋은 아인데 제가 몰랐어요." 우리집에는 제가 정말 문제였어요. 모든 것이 저한테 달렸는데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용인에 14만평짜리 산소에 조상님이 몇백 년 묻혀 계신데 그 산이 지금 넘어가게 생겼으니까는 스님 책을 보니까 빚 갚아준 사람도 다 있고, 그 책에, 그래서 나도 가서 우리 스님한테 조르련다 하고 그러고 왔던 것입니다. 그때 처음에 뵙고 그 말씀을 하니까 우리 스님이 "관하라!"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관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지 스님한테 와갖고 또 제가 욕심에 스님을 뵙고 싶은 겁니다. 한 번 더 뵙고 그 다음에 내가 한마음 공부를 하지 그 마음이 또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지 스님은 스님한테 가지 않아도 네가 법당에 올라가라 그래서 그때는 법당에 올라가서 들었는데, 그때 법문을 하시는 스님이 너무도 좋았어요. L.A.에서는 이런 법문을 듣지를 못했는데 너무도 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스님을 뵈었을 때 그 산 걱정을 했더니 "관하라." 그랬는데 스님 말씀도 제가 알아들었어요. 나를 왜 그날 스님 안 뵙게 해주셨지? 오,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아무것도 몰랐어. 그러니까 나를 스님께 또 못 가게 하고, 스님 괴롭히니까 못 가게 했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는 알았어요. 그저께요, 저희 산이 풀렸어요. 저희 산에 빚이 다 갚아졌어요. 어떤 분이 나와 갖고 그 빚이 3억 5000만원인데 그 빚을 자기가 먼저 갚아주고 너희가 걱정 없게 해놓고 이 산은 나중에 팔리면 그때 이득을 갈라주마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 아들은 그 산을 팔겠다고 얼마나 친구들이나 모두 부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산은 살려야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 모신 산입니다."라고 막 그러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또 될 것도 같고 그랬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은 그런 거야. 자기가 필요치 않으면 그 산 사줄 사람 없어.' 그랬는데 저도 마음 가운데 한마음 주인공께 이 산을 부탁하면 그래도 우리 아이가 효심이 좋으니까 또 우리 영감도 효심이 좋은 분이니까 조상님이 계시다면 이 산이 그렇게 넘어가진 않겠지. 그런 지 4년짼데 그 산이 해결이 돼서 '오, 됐다! 나도 스님 뵙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돌아가야지. 주지 스님한테 이 얘기 하면 이번엔 인사 가게 해주시겠지.' 해서 오늘 온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제가 질문하러 온 거는 아니에요. 우리 아들 잠을 많이 자요. 우리 아들 저기 앉아 있어요.

스님: 말씀 못하시고 가시면 그냥, 그냥 부글부글 끓을 테니까 잘하셨어요. (대중 웃음)

질문자4(여): 스님, 우리 아들 저기 앉아 있는데 스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스님: 이 '옴마니반메훔'이라는 진언을 염하면 얼른 쉽게 말해서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쫓는 게 아니에요. 아, 전부 귀신 아닌 게 없는데, 산 귀신 죽은 귀신 그냥 전부 있는데 그걸 다 쫓고 나면 자기까지도 쫓아지게요? 하하. 그러니깐요, 귀신이 따로 없고 사람이 따로 없어요. 귀신도 얼마나 좋은 귀신들이 많습니까? 하하하. 아, 저도 귀신인데요, 뭐. 하하. 예. 하여튼, 이제 요다음에요, 아들을 위해서 그 산에 묻힌 조상들을 파내서 그 자리에서 태워 탑에다가 모시도록 하세요.

질문자4(여): 스님, 탑이 어디 있죠?

스님: 저, 금왕에 있어요.

질문자4(여): 예. 오늘 제가 이 질문 필요한 거….

스님: 그렇게 하고 그 땅은 팔게 되면요, 아드님한테 소중하게 쓰이게 돼요.

질문자4(여): 아들한테 소중하게 쓰이죠?

스님: 예.

질문자4(여): 예. 그리고 또 이제 한마음 저도 좀….

스님: 관하면서 뭐든지 하게 하세요.

질문자4(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박수)

사회자: 질문 끝났습니다.

스님: 끝나셨습니까? 뭐, 끝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자꾸 그냥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염불을 하는 걸 들어도 법문이고, 노래를 하는 걸 들어도 바로 법문이고 여기는 선법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노래도 잘하시고 염불도 따라서 잘하시고 또 관하는 것도 집중해서 잘하시고 그저 여러 모로 닥치는 대로 가는 거 억지로 잡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닥친 거 마다하지도 말고 그냥 거기다 맡기고 가시면 스스로서 되게끔 돼 있어요.

※위 법문은 1997년 3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천기누설을 가장 많이 한 책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정신병의 70%이상은 귀신에 의하여 생기는 병이다. 귀신처리만 정확히 하면 정상인이 된다.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기가 있어 고생하시는 분, 어딜가도 답을 못 찾으신 분,
원인모를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한글한문(겸용) 불교상용의식집

실무자 스님이 염불 한글화 하여!
"염불자가 경전의 내용을 알고 염불하는"
《의식집》을 만들어 소개합니다.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우리말염불(경전 내용으로 구성)을 염불자가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 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②우리말 염불화를 하기위하여 한문의 (음)만 달은 것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을 염불로 구성하여 편찬함으로 염불을 하면 자동적(주입식)으로 경전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③의식의 분야에 따라 각각 5권으로 분류하여 염불내용을 위주로 조직하여 책의 분량을 줄여서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④염불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운)을 최소한 적게하고 실무차원에서 염불자의 작은 애로 까지도 배려하여 초보 집전자도 편안하게 집전 할수있게 하였습니다.

⑤염불의 한글화는 우리 불교의 과제인데 염불하는 방법을 한부분 소개한다면 "삼청을 하는 청사를 "2청은=한문염불(기존염불)로 하고 "1청은=우리말염불(한글염불)로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한글화 할수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확신 합니다.

구 성

- 제 1권:예경:각청편
- 제 2권:천도:시식편
- 제 3권:수계:방생편
- 제 4권:장의편
- 제 5권:점안편

(이상 5권이면 기본염불 완료) 총 5권 특별보급가 67,000원

문의 전 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농협 : 211012-52-203756) 박명덕 ※각권 별도 판매 사절

주역원전 강좌 개강

계절의 변화, 한 나라의 흥망성쇠, 만물이 나고 죽는 것 등에 모두 일정한 법칙이 있다. 周易은 바로 이러한 일정한 법칙을 연구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다.
주역의 대가 **大山 김석진** 선생님의 **'쉽고 간단한' 주역**을 제자들이 이어서 강의를 한다.

「주역」 매주(수) 오전 11시 ~ 1시
哲山 최정준 선생, 3월 개강

그 외, 대산 선생님의 「시경(화요일 오후)」강의를 비롯해, 「노자의 도덕경(3월 개강, 월요일 오전)」, 「이천역전(4월 개강, 목요일 오전)」, 「춘추(월요일 오후)」, 「장자(목요일 오후)」가 진행됩니다.

사단법인) 동방문화진흥회

☎ 02)2237-9137, 2237-8970
서울 종로구 승인2동 261번지 화성빌딩
2층(1호선 동묘역 3번 출구)
www.DONGBANG.or.kr



불자 세상보기

전 보 삼
한국사립박물관협회장

'문화인식' 의 무료화 걱정

정부가 17대 대통령의 공약대로 5월부터 전국의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무료 관람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31개 국립 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입장이 무료가 될 경우 국민들은 보다 쉽게 이들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질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박물관 무료화정책과 관련하여 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국민의 문화 향수권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야하는가를 진정으로 고민하였는지 묻고 싶다. 자칫하면 문화 향수권 확대라는 말이 문화포퓰리즘으로 인식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진다.

문화향수권이라는 것도 문화를 누릴만한 소양과 자질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갖추어졌을 때 그 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무조건 환영만 할 일은 아니라본다. 이에 따라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립박물관의 무료화와 여타 관련기관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우선 무료화정책과 관련하여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들에서는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 이유로는 국립 박물관, 미술관의 관람료가 폐지되면 관람객들이 국립기관으로 몰려들 것이고 가뜩이나 운영난을 겪고 있는 사립 박물관, 미술관 또한 관람료를 폐지하라는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뜻밖의 상황이 예상된다. 특히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입장료수입이 기관 운영비의 30%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립박물관 미술관들은 새 정부의 무료 관람제 방침이 자칫 생존까지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입장료 수입의 감소분에대한 대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여 진다.

영국 대영박물관이나.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같은 무료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박물관의 경우, 그 관리제도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잘 조화되어서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우리가 과연 그만한 제도와 성숙된 시민의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반문해보고 싶다. 숭례문이 불탄 원인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문화 향수권 만을 주장할 수 없다. 문화유산들이 무관심과 홀대받는 상황에서 자칫 무료화정책이 문화유산들에 대한 경시 풍조를 만연시키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국립박물관 무료화정책이 수요자 부담의 원칙으로 가야하는 기본논리를 뛰어넘어 무료화 정책이라고 언성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더 저급하게 만들 것이며, 문화 홀대 현상을 더욱 더 심화시킬 것이다.

현재도 어린이날, 여성주간, 한복착용자, 국가공휴일, 노는 토요일(놀토)등 국립중앙박물관은 다양하게 무료개방의 날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동시에 국민의식의 성숙과 비례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여 진다.

전면적인 무료개방은 국민의식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졸속행정의 표본이다.

2004 ICOM(국제 박물관협의회) 서울대회를 통해서 이제 막 박물관 미술관의 활동과 역량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국립박물관 무료화정책은 한국에 있는 모든 사립박물관들에게 박물관의 존립을 뒤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무언의 압력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앞으로 열악한 사립박물관의 운영의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정부 당국의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먼저 믿음 보여 주면 '만사 O.K.'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54 세상에 믿을 사람 몇 사람인가요

나부터 변해 보세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요." 때때로 듣는 말이다.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그 마음의 방향을 돌려주려고 한 마디 해준다. "왜 믿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있잖아요. 나부터 남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보세요. 그럼 최소 한 사람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학생을 보고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 또 다른 사람도 점차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지요. 불평만 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변해 보세요."

인간관계에서 믿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믿음 없이는 껍데기 :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한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 믿음이 없다면 인간관계는 껍데기뿐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타인에게 믿음을 주려면 오랜 시간을 지나는 동안 모든 나의 말과 행동들이 믿을 만해야 한다.

배신의 아픔 : 아픈 기억이 있다. 고등학교 시절 매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하고 지내게 되었다. 솔직히 어떤 일로 내가 그 친구를 배신하고 모든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신뢰가 무너진 순간 그 친구와의 우정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직도 그 친구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빌고 싶다. "나 정말 미안하다. 괴롭다." 이렇게 믿음은 인간관계에서 쌓기도 힘들지만, 오랜 기간 쌓아왔다고 해도 한번에 무너뜨릴 위험도 있는 것이다.

세상에 있나요 : 인간관계에서 완전한 신뢰, 과연 그런 것이 세상에 있기나 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아는 사이〉와 〈친구〉의 차이 : 나의 경우 믿음은 친구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잣대이다. 서로 간에 믿음이 없는 학우는 그냥 '아는 사이'일 뿐이다. '아는 사람'과 친구,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된다.

한 사람도 없는 이유 : '믿음' 하니 내가 이 세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쯤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아니, 더 나아가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은 과연 몇 명쯤 될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웬일인가.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를 진실하게 믿어줄 사람도 없는 것 같다.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다. 대학생으로서 나의 인간관계라는 범위는 학교에서의 몇 명의 친구와 남자친구, 그리고 가족이 전부이다. 좁고 한정적이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정말 내가 신뢰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 없다는 건 어쩌면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같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이유 중 하나는 내가 그들에게 한 개 이상씩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 중에는 그 사람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다. 숨기는 것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의 전부를 보여줄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또 나와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나에게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믿을 수 없게 된다.

의심은 나의 적 : 믿음에 대한 가장 강한 적은 바로 의심하는 마음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남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지 않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관계는 끝장이다. 회복하기 어렵다.

진실의 힘: '진실은 언제나 통한다'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한다. 항상 진실하게만 사람을 대한다면 결국은 통해서 신뢰받게 된다.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내세울 것도 별로 없다. 오직 진실한 마음만이 인간관계에서 나의 빽이다. 나는 언제나 사람들이 믿어주고 나도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상대에게 맞추세요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관계에서 믿음을 얻는 진리는 한 가지이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바랄 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대해 주는 것이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시오!' 그럼 만사 오케이이다.

공생의 도리

우리는 간혹 공생으로 더불어 사는 도리를 잊고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을 망각하기도 한다. "마음공부는 서로 아끼며 서로 사랑하며 내 몸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새겨야겠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불자의 눈

다시 생각하는 환경 가치

"뭇 생명의 고향이자 불국토의 터전인 한반도를 보존하고 가꾸는 보현행자로 살아가자."

3월 7일 조계종 특별수행도량 문경 봉암사에는 정부의 경부대운하 건설 계획에 따라 얼마나 훼손될지 모를 강토의 살과 피를 지키자는 불자들의 발원이 가득 찼다. 2월 12일 김포에서 출발한 종교인 도보순례단과 불자들은 이날 법회를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

불교계는 대체적으로 경부대운하 계획에 반대를 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정부가 내놓는 경제효과를 몰라서 반대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문제는 환경과 생태 보전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 공청회를 비롯한 관련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환경과 생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과 생태의 가치는 경제논리에 묻히기 쉽다. 경제는 현실을 말하고 환경과 생태는 앞날을 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종교인들이 들길을 걷고 강을 건너며 이 강토의 자연을 느끼고 그 느낌을 국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깊은 뜻도 바로 앞날의 가치를 오늘의 문제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봉암사에서 열린 참회 정진법회가 우리사회 한 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후손들의 행복한 삶까지 내다보는 혜안을 나누자는 간절한 호소임을 알아야 한다.

'혼란의 종단' 들 참회로 거듭나야

불교계의 큰 종단들이 혼란지경이다. 태고종과 천태종 진각종이 '짜 맞추기'라도 한 듯 검찰 조사를 받거나 내부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조계종이 지난해 동국대 신정아 사건과 제주관음사 사태 등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 온데 이어 이들 종단도 언론에 오르내리며 불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물론 해당 종단들은 공식적으로 '큰 일'이 아닌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종단들의 해명이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 사태를 보면서 하나의 단어를 떠 올린다. '정직'이다. 태고종과 천태종의 경우 이 단어를 위배한데 따른 곤경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 진각종의 경우도 종도들에 대한 책임감에 스스로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내분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불자들은 부처님에게 '정직'을 가장 큰 가르침으로 배운다. 스스로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정직한 삶을 사는데서 참 불자의 길은 열린다. 팔만대장경의 법문이 다 '마음'이라는 단어로 귀결된다지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바로 정직한 마음일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불성이란 바로 거짓에 오염되지 않은 정직한 마음인 것이다. 종도들에게 바른길을 제시하고 이끌어야 할 종단의 지도부가 스스로 정직하지 못한 일로 곤경에 처해있는 현실은 부끄럽다. 하루속히 정직하지 못했던데 대한 참회를 하고 진정한 지도자상을 확립하길 바란다.

탈 종 공 고

1. 사찰명:용정사 ◇법명:근 파(김성식) ◇주소:경남 창원시 대산면 가술리 66번지
2. 사찰명:도덕암 ◇법명:명 현(김윤곤) ◇주소:경남 창원시 동읍 봉산리 413번지
3. 사찰명:금산사 ◇법명:영 파(공성도) ◇주소: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396번지
4. 사찰명:용주사 ◇법명:법 우(김용철) ◇주소:경남 창원시 동읍 용강리 289번지
5. 사찰명:팔봉암 ◇법명:송 하(김인곤) ◇주소:경남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816번지
6. 사찰명:원각사 ◇법명:향 산(윤형찬) ◇주소:경남 창원시 동읍 용강리 280-1번지
7. 사찰명:약수암 ◇법명:녹 원(강정록) ◇주소: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550-1번지
8. 사찰명:장안사 ◇법명:묵 암(이건우) ◇주소: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1141-1번지
9. 사찰명:안정사 ◇법명:선 파(박영진) ◇주소:경남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512번지
10. 사찰명:불곡사 ◇법명:서 암(임영복) ◇주소:경남 창원시 대방동 1036번지
11. 사찰명:혜원사 ◇법명:능 산(조재억) ◇주소:경남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379-7번지
12. 사찰명:법림정사 ◇법명:일 봉(조인규) ◇주소: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621-1번지
13. 사찰명:용천사 ◇법명:해 암(양충기) ◇주소:경남 창원시 동읍 화양리 1500번지
14. 사찰명:성불암 ◇법명:덕 산(장진용) ◇주소:경남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897번지
15. 사찰명:금수암 ◇법명:진 공(황길호) ◇주소:경남 창원시 동읍 봉산리 176-5번지
16. 사찰명:호국사 ◇법명:송 열(김태근) ◇주소:경남 김해시 이동 544-1번지
17. 사찰명:당선암 ◇법명:정 공(최주석) ◇주소:경남 창원시 대산면 북부리 235번지
18. 사찰명:만성사 ◇법명:도 성(이태식) ◇주소:경남 창원시 동읍 봉곡리 55-1번지
19. 사찰명:백련사 ◇법명:원 명(김석한) ◇주소:경남 창원시 동읍 노현리 60-1번지
20. 사찰명:신성암 ◇법명:성 문(이숙희) ◇주소:경남 창원시 동읍 신방리 753번지
21. 사찰명:극락암 ◇법명:영 산(조영길) ◇주소:경남 창원시 대산면 북부리 281번지
22. 사찰명:용화사 ◇법명:만 송(배계한) ◇주소:경남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978번지
23. 사찰명:일성암 ◇법명:득 성(홍정부) ◇주소:경남 거제시 능포동 419번지
24. 사찰명:불령사 ◇법명:영 암(김외태) ◇주소:경남 창녕군 영산면 구개리 162번지
25. 사찰명:대원사 ◇법명:혜 월(박동만) ◇주소: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04번지
26. 사찰명:연봉사 ◇법명:봉 파(김경천) ◇주소:경남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474번지
27. 사찰명:향림사 ◇법명:법 향(김순자) ◇주소: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33-27번지
28. 사찰명:금음사 ◇법명:호 산(박기홍) ◇주소:경남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841-1번지
29. 사찰명:대은암 ◇법명:김희선 ◇주소:경남 김해시 한림면 어은동 대곡산
30. 사찰명:장수암 ◇법명:득 암(김갑출) ◇주소:경남 마산시 구산면 심리 156-2번지
31. 사찰명:용화사 ◇법명:득 일(윤경훈) ◇주소: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459-1번지
32. 사찰명:관불사 ◇법명:득 일(윤경훈) ◇주소: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446번지
33. 사찰명:백용사 ◇법명:정 파(이을용) ◇주소:경남 창원시 북면 신촌리 392번지
34. 사찰명:미륵사 ◇법명:송 광(박광우) ◇주소: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744-7번지
35. 사찰명:덕산사 ◇법명:반야성(황이상) ◇주소:경남 밀양시 초동면 성만리 산 74번지
36. 사찰명:성운암 ◇법명:득 인(곽병환) ◇주소:경남 김해시 한림면 명리 인현 836번지
37. 사찰명:용정사 ◇법명:동 준(이학근) ◇주소: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산 13번지
38. 사찰명:미타사 ◇법명:현 진(안위섭) ◇주소: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 2동 78번지
39. 사찰명:백련암 ◇법명:경 봉(박심영) ◇주소:경남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682-6번지
40. 사찰명:용화사 ◇법명:무 호(조행순) ◇주소: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181번지
41. 사찰명:미륵암 ◇법명:동 파(채효치) ◇주소: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150번지
42. 사찰명:만수사 ◇법명:정점자 ◇주소:경남 김해시 동상동 407번지
43. 사찰명:정진암 ◇법명:곽봉제 ◇주소:경남 창원시 북면 월백리 1110-5
44. 도 공
45. 연 화
46. 종 파

용정사(근파) 도덕암(명현) 금산사(영파) 용주사(법우) 팔봉암(법산) 원각사(향산) 약수암(혜산) 장안사(묵암) 안정사(선파) 불곡사(서암) 혜원사(능산) 법림정사(일봉) 용천사(도일) 성불암(덕산) 금수암(진공) 호국사(송열) 당선암(정공) 만성사(도성) 백련사(원명) 신성암(성문) 극락암(연산) 용화사(만송) 일성암(득성) 불령사(영암) 대원사(혜월) 연봉사(봉파) 향림사(법향) 금음사(호산) 대은암(김희선) 장수암(득암) 용화사(득일) 관불사(득일) 백용사(정파) 미륵사(광우) 덕산사(반야성) 성운암(운산) 함안 용정사(동준) 미타사(현진) 백련암(경봉) 정진암(선재) 김해 용화사(무호) 미륵암(동파) 만수사(정점자) 정진암(곽봉제) 43개사찰

위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종 제 11교구(김창) 소속 43개 사찰과 3인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혜 륜 법하

이 탈종에 관한 문의는 용정사 근파스님께 연락바랍니다.
[용정사 TEL 055-291-4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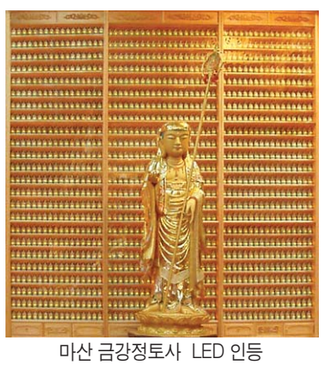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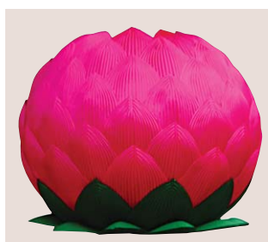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공 단 등


팔각봉축접등


칼라(보카시)연등


주름등


청사초롱


종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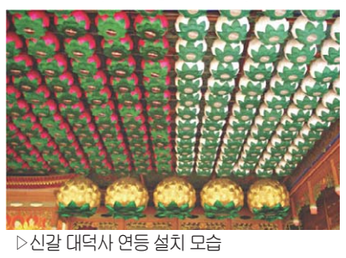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연등 작업 현장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설치 작업


▷신갈 대덕사 연등 설치 모습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부처님 오신날 초대형 연꽃!

설치예:
도량내,도심공간
연못,저수지,강
차량(발전기탑재)
건물옥상,난간,기타

제작품목:
아기부처님(5종)
석가탑,
연꽃,봉오리,연잎,
광고탑,
기타 캐릭터

기타:
벽화,단청
조명용 탱화(매직그라스)

귀의 삼보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주) 불교조형미술 **대산**에서는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는
조립식 대형연꽃 (실용신안등록 제0392945호) 을 주품목으로
봉축탑,차량장엄물을 제작 설치하는 전문회사 입니다.
좋은날,행복한날,부처님 오신날을 찬탄하는 대형 장엄연꽃으로
부처님 도량을 화엄만다라의 세계로 연출하십시오.
아름답고 화려한 조명으로 만들어진 장엄연꽃은
부처님 오심을 더욱 환희롭게 할 것입니다.




창원 성주사


포항 시청


수원 팔달사


대구 동구청


창원시(연꽃캐릭터)


창원 유등재(용지못)

주요실적 : 수원,속초,홍천,원주,군위,구미,대구,영천,포항,청도,마산,창원,거제 봉축위원회,치악산 구룡사,팔공산 동화사,죽림정사,금굴사,부산 법륜사,구미 봉죽사,대둔사,포항 죽림사,대구 무량사,정법사,묘적사,보현사,구화사,대구불교대학,마산 백운사,칠곡 망월사,뉴질랜드 남국정사,마산시청,대구동구청,창원유등제,청도유등제

(주)불교조형미술 대산 (053)764-2296 FAX(053)764-2295 E-mail jang8458@yahoo.co.kr
〒706-060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0-4번지 011-812-2296.016-510-1622